GYEONGGI, Mahan Baekje

경기도박물관 개관 25주년 기념

경기문화재단 · 경기도박물관 · 문화재청 · 한성백제박물관 SEOUL BAEKJE MUSEUM ·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협회 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 중부지역문화재조사기관협회

95910
ISBN 978-89-999-0431-8 [PDF]

경기도박물관 개관 25주년 기념
경기, 마한 백제 특별전

경기, 마한 馬韓 백제 百濟

GYEONGGI, Mahan Baekje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경기도박물관 GYEONGGI PROVINCE MUSEUM

마한백사 한성 백제로
To Hanseong Baekje

마한 흙무지무덤의 정수, 김포 운양동
마한의 소국 백제국에서 고대왕국 백제로,
몽촌토성과 석촌동 고분
From a statelet to ancient kingdom of Baekje, Mongchontoseong and Seokchon-dong tombs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안에 위치한 몽촌토성은 자연구릉을 이용하여 쌓은 성으로 길이가 전체 2,383m에 달한다. 몽촌토성이 사용된 시기는 4~5세기이다. 몽촌토성은 이웃한 풍납동 토성과 더불어 북성 풍납동 토성과 남성 몽촌토성으로 짝을 이루며 당시의 '서울'인 한성을 구성하였다.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발굴한 북문터 일대에서는 성 안을 계획적으로 구획한 대규모 포장도로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궁' 자가 찍힌 곧은입짧은목항아리, 배수관 역할을 하는 토관, 왕성 안 주요 건물을 장식했을 굴뚝 장식 등의 유물이 출토되어 왕성으로서 면모를 보여준다.
석촌동 고분군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48번지 일대에 위치한 백제 한성기 왕실의 묘역으로 3~5세기경에 조성되었다. 2015년부터 한성백제박물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많은 성과가 쏟아졌다. 석촌동 고분군은 수십 기의 돌무지무덤이 서로 맞닿아 이어진 연접식 돌무지무덤으로 밝혀졌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 안에서만 100m 넘는 규모가 확인되었다. 또한 축조 과정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대량의 항아리와 접시,
등의 유물을 매납한 의례공간도 확인되었다.

경기, 마한 백제 특별전

경기도박물관 개관 25주년 기념

주 최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 (사)한국문화유산협회

후 원 문화재청, 한성백제박물관, 중부지역문화재조사기관협회

자 문 권오영(서울대학교), 김길식(용인대학교), 이형원(한신대학교), 박경신(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이혁희(한성백제박물관)

출품기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검단선사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한신대학교박물관, 화성시역사박물관, 기남문화재연구원, 백두문화재연구원, 한강문화재연구원 〈가나다순〉

자료제공 및 협조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화성시역사박물관, 한양대학교박물관, 한신대학교박물관, 가야문물연구원, 겨레문화유산연구원, 경기문화재연구원, 고려문화재연구원, 기남문화재연구원, 대동문화재연구원, 백두문화재연구원,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중부고고학연구소, 중앙문화재연구원, 한강문화재연구원, 한국문화유산연구원, 한양문화재연구원 〈가나다순〉

총 괄 김기섭

전시기획 정성희, 김영미

전시진행 김영미, 곽창호, 신지섭, 이승연, 이영은, 정미숙, 정윤희, 조준호

전시지원 곽민희, 백경민, 이희진

홍 보 이지희

행정지원 정문섭, 이석주, 이주상, 김재민

원 고 김영미, 이승연

유물촬영 선유민

일러두기

1. 이 책은 경기도박물관·(사)한국문화유산협회가 2021.08.10.~10.31 공동 개최한 경기도박물관 개관 25주년 기념 『경기, 마한백제 특별전』의 전시도록이다.
2. 도판의 저작권은 경기도박물관과 출품 기관에 있다.
3. 본문에서의 도판캡션은 유물명칭/출토지/시대/규격/소장처 순으로 표기하였다.
4. 외래계 유물일 경우 시대/제작지 순으로 표기하였다.
5. 경기도박물관 소장품은 소장처를 기재하지 않았다.
6. 국가귀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유물은 발굴처를 표기하였다.
7. 본문에 수록된 유적, 유물명은 쉬운 우리말을 사용했으나, 이로 인해 혼란이 생기는 경우에는 학계에서 흔히 쓰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경기도박물관의 동의없이 함부로 전재 및 복제할 수 없습니다.

목 차

CONTENTS

008 **발간사**

010 **축사**

012 **프롤로그**

016 Ⅰ **마한 여명을 열다**
- 청동기시대 의례 공간 환구, 구리 토평동
- 청동기시대 가장 큰 옥을 품은 고양 강매동
- 철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초기철기시대 무덤, 인천 검암동
- 전문가 칼럼 _ 경기지역 마한의 형성기는 기원전 3~2세기 점토대토기문화 이형원

036 Ⅱ **마한을 말하다**
- 초기철기시대 토기와 마한의 토기를 모두 사용한 유적, 양평 양수리 537-1
- 중부지역에 등장한 서북한계 무덤, 남양주 금남리
- 북한강변에 등장한 대장간 마을, 가평 대성리
- 두물머리에 자리한 초대형 마을의 한 조각, 양평 양수리 708-3
- 임진강 중류의 거점마을, 연천 강내리
- 마한 흙무지무덤의 정수, 김포 운양동
- 김포 운양동 무덤의 계승 집단, 인천 검단지구
- 뚜껑있는 굽다리단지가 부장된 경기도 최북단 무덤, 오산 궐동
- 중부지역 초대형 마을과 돌무지무덤, 광주 곤지암리
- 서북한 이주민의 철기생산 기지, 화성 기안리
- 경기 남부 목지국 계열 최초의 무덤, 평택 마두리
- 마한의 주거지 분포도
- 마한의 무덤 분포도
- 전문가 칼럼 _ 경기지역의 마한 소국을 말하다 박경신

082 Ⅲ **마한에서 한성 백제로**
- 마한의 소국 백제국에서 고대왕국 백제로, 몽촌토성과 석촌동 고분
- 거대한 사주식 주거지, 시흥 은행동·계수동
- 마한의 전형적인 네모난 주거지가 있는 유적, 인천 남촌동 고래실골
- 경기 북부로 이주한 사주식 마을사람들의 흔적, 양주 옥정동
- 금동관과 금동신발이 발견된 무덤, 화성 요리
- 경안천 유역 백제의 세력 확장, 용인 고림동
- 백제의 경기 남부 전략 거점, 화성 소근산성
- 전문가 칼럼 _ 경기지역 백제 한성기 물질문화의 지역성 이혁희

126 **에필로그**

128 **논고**
- 중부지역 마한과 고대국가 백제 이남규
- 백제의 마한 통합과정에 대한 이해 권오영

171 **도판목록**

178 **부록 전시 구성**

발간사

『경기, 마한·백제 특별전』은 경기도박물관과 (사)한국문화유산협회가 경기지역의 마한馬韓 및 백제百濟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공동 기획한 특별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포 운양동에서 출토된 철검을 비롯하여 마한·백제계 출토유물 750여 점을 소개하였습니다.

전시는 3부로 구성하였습니다. Ⅰ부는 경기지역에서 마한이 성립하게 된 배경으로서 청동기시대 및 초기철기시대의 고고학적 조사연구 성과를 정리하였습니다. 가령, 구릉 정상부를 둘러싼 도랑시설 環溝은 청동기시대 의례 공간으로서 마한 소도 蘇塗의 기원으로 볼 수 있으며, 기원전의 철기 제작과 관련한 유적·유물은 마한 성립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Ⅱ부는 마한이 융성하던 시기의 주요 유적·유물을 소개하였습니다. 각종 생활유적에서 새로이 나타나는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종류와 수량이 급증하는 철기류, 다른 곳에서 만든 뒤 교역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보이는 구슬류 등은 흔히 소국연맹체 단계로 분류하는 마한 문화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Ⅲ부는 마한 소국의 하나인 백제국 伯濟國이 고대국가 백제 百濟로 성장하면서 주변의 경쟁세력들을 차례로 통합해간 과정을 물질문화로 유추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마한 소국들은 백제에 흡수된 뒤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유지하였음을 경기지역의 여러 고고유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 마한 사람들이 남긴 흔적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더듬어 보노라면 오늘날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韓민족의 위대한 시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한사람들은 "활·방패·창·노를 잘 쓰며, 비록 싸우고 전쟁할 지라도 굴복한 상대는 귀하게 여긴다(善用弓楯矛櫓 雖有鬪爭攻戰 而貴相屈服)"는 『진서晉書』의 기록을 통해, 그리고 마한사람들이 남긴 발자취를 통해 역사 속 우리 모습을 찾아보시길 기대합니다.

전시를 공동으로 개최한 (사)한국문화유산협회, 후원해주신 문화재청, 한성백제박물관, 중부지역문화재조사기관협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시의 기획부터 개막까지 학술자문으로 도움을 주신 권오영, 김길식, 이형원, 박경신, 이혁희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시개최 및 도록제작에 헌신한 직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1. 12

경기도박물관장 김 기 섭

Preface

Gyeonggi, Mahan special exhibition is jointly organized by the Gyeonggi Province Museum and the 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to reveal the identity of Mahan based on archaeological discoveries from the Gyeonggi region. This exhibition presents 750 artefacts, including Mahan iron swords found in Unyang-dong, Gimpo.

The exhibition aims to discover the characteristics of Mahan in three parts. The First part is to recognize how the Mahan was built by explaining archaeological research of the bronze age and the early iron age. For example, A reel surrounding the top of the hill can be regarded as the origin of "Sodo"蘇塗, artefacts regarding smith iron can be seen as the Mahan'sMahan's beginning. In the second part, the exhibition introduced artefacts produced during Mahan'sMahan's flourishing age. Newly found artefacts on remains such as Plain Harder Pottery, iron which drastically increased in both sorts and quantity, Marbles which assumably manufactured from else and imported shows the Mahan's culture, often be considered as the federation of the small states. In part three, the exhibition introduces how did the small state of Baekje伯濟 be able to grow as an ancient state百濟 and merge other rival nations explaining by referencing their material civilization. Mahan small nations maintained their own traditions, recognizable by looking at some ruins around Gyeonggi-province.

We can feel the great beginning of our Korean people韓 when looking at mere evidence on the Gyeonggi-province Mahan people.

We expect to see our ancestors' historical footpath by the record of the time; Mahan people are skilled and honourable worriers who respect the defeated opponents.

Special thanks go to the people who gave support to the exhibition.

December, 2021

Director of the Gyeonggi Province Museum Kim, Kiseob

축 사

한국문화유산협회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최신 발굴조사 성과를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2014년부터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서, 매년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최신 발굴성과를 조명하는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것을 보호·보존하는데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여덟 번째로 경기도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경기도 일대의 발굴조사 성과 중에서 마한의 생활과 문화를 한자리에 모아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한의 여러 문화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체험하며 마한에서 한성백제로 발전하는 과정도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마한은 소국들의 연맹체이지만 고도의 철기 기술과 토기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에 걸쳐서 대외 문화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발달된 문화수준에 도달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 일대 마한소국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여 북방 문화와 남방 문화가 교류 거점으로 기능하였습니다. 그런 여러 요소들이 한성백제의 형성에 문화적 기반이 되었고 한국고대문화의 최대 거점 중 하나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최근 경기도 및 서울 지역에 소재한 우리 협회 회원기관들은 마한과 한성백제 초기에 해당되는 많은 유적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을, 고분, 생산 유적 등 다양한 종류의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그 유적 중에서 핵심적인 것을 선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김포 운양동 출토 금귀걸이, 인천 운북동 출토 오수전과 청동화살촉 등 발굴 당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던 총 75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매장문화재의 소중함과 그 발굴조사에 대한 시민의 이해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매진하면서 선조들이 남긴 작은 흔적마저도 놓치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협회 회원기관과 소속 연구원들에게 관심과 격려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코로나 사태로 많은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이번 특별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애써주신 경기도박물관 관계자 여러분, 귀중한 유물을 대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경기 및 서울지역 회원기관 임직원 여러분, 전시회를 적극적으로 후원 해주신 문화재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 12

(사)한국문화유산협회 회장 서 영 일

Congratulatory speech

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strives to share the results of excavation. One example, the association held special exhibitions on the latest excavation results in every region every year with support from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from 2014. This exhibition aims to gather support from the public to protect or preserve the buried treasures.

Our 8th-time exhibition is jointly held with Gyeonggi Provincial Museum. We aimed to show recent excavations in Gyeonggi-do focusing on living life as Mahan and their culture. Discover and experience Mahan's cultural traits to recognise the transformation between Mahan to Hansung Baekje era.

Mahan was only a tiny states' federation but had improved iron smithing and pottery technologies. On top of that, frequent external culture is shared between China and Japan. As a result, it is recognised that Mahan reached to highly developed civilisation. Mainly, those Mahan states in Gyeonggi-do were located in the centre of the Korean peninsula enabled to interact with both Northern and Southern cultures. Those characteristics become Hansung Baekjae's cultural background, leading Baekjae to play one of the most significant key roles in ancient Korean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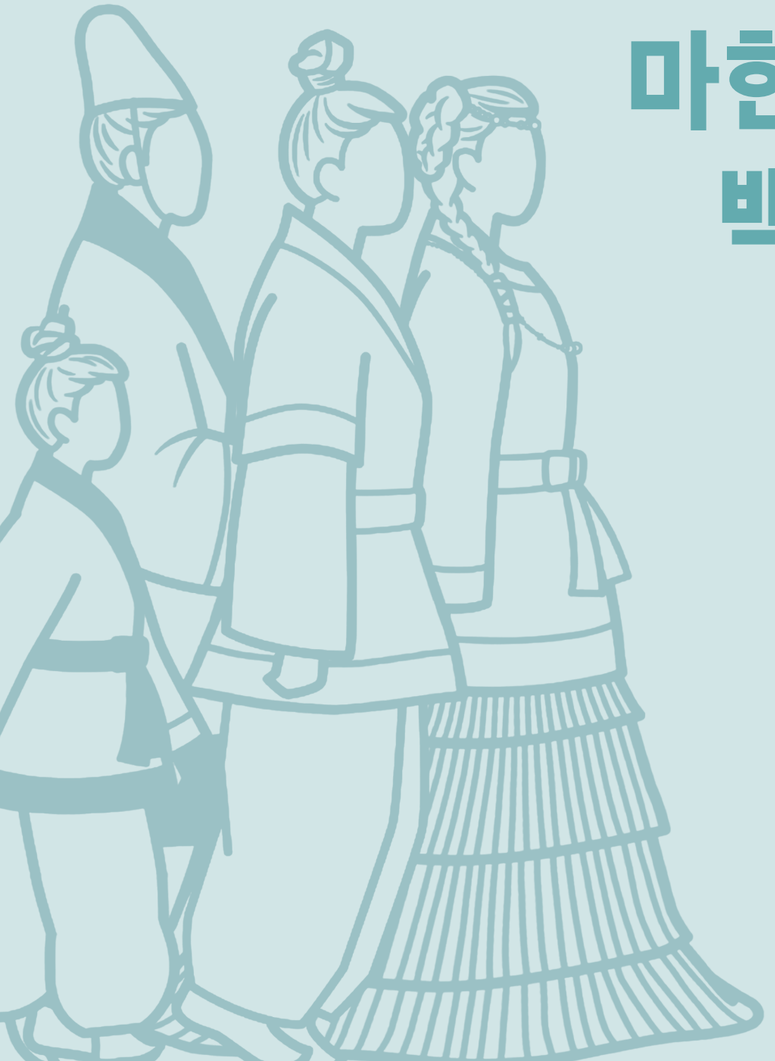
Recently, associates in our association located in Gyeonggi and Seoul region excavated numerous treasures belonging to Mahan and early Hansung Baekje. As a result, we discovered various types of villages, tombs, manufacturing facilities, etc. This unique exhibition chose primary artefacts to introduce to the public. Those 750 artefacts which highlighted from fellow researchers such as Gold earrings excavated in Unyang-dong, Gimpo and Pottery excavated in Geumnam-ri, Namyangju are exhibited.

After this unique exhibition, I hope the people understand buried artefacts and recognise the importance of broads. Furthermore, I hope hard-working associates and fellow researchers tracking our ancestors can gather more interest and caring the public.

Lastly, special thanks to the Gyeonggi-provincial Museum staff, associates lend precious artefacts, and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supported the difficulties of novel Covid-19.

December, 2021

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Chairman SEO, Young-il



경기, 마한 백제

경기도박물관
개관 25주년 특별전

GYEONGGI, Mahan Baekje

프롤로그

우리나라의 경기·충청·전라 지역에는 기원전 3세기~기원후 4세기 중반 마한이라는 소국연맹체가 존재하였다. 중국은 마한·변한·진한을 한韓이라 불렀으며, 이중 마한이 가장 강성한 나라였다. 마한 시기 백제는 마한의 소국 중 하나였으며 서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3세기경 중국의 기록인『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후한서後漢書』동이전東夷傳에는 마한의 위치와 사회, 풍습이 소개되어 있다. 당시 마한·진한·변한을 일컬어 한韓이라 말하며, 대방帶方의 남쪽에 위치하며, 그 중 마한은 서쪽에 있다고 전한다. 마한은 54개 소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나라 이름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이중 8번째로 소개된 나라가 백제국伯濟國으로 마한의 소국 중 하나이며, 국가 단계로 도약하기 이전임을 알 수 있다.

마한은 소국연맹체의 형태였는데 소국은 중심마을과 여러 개의 마을로 구성되었다. 소국의 규모에 따라 신지臣智, 험측險側, 번예樊濊, 살해殺奚, 읍차邑借 등으로 불리는 정치적 우두머리가 있었다. 신지는 마을 간의 교역과 소국 간의 교역 활동을 주관하며 경제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중심마을은 물자 교역의 거점이자 중심지가 되었으며, 소국은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 활동이 전개되는 독자적인 경제 단위이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지는 군사력을 전체적으로 통솔하는 군사 지휘자이기도 했다.

韓在帶方之南 東西以海爲限 南與倭接 方可四千里
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大者自名爲臣智 其次爲邑借…
凡五十餘國 大國萬餘家 小國數十家
總十餘萬戶 辰王治月支國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마한의 생활에 대한 기록에서 이들은 초가지붕에 흙방土室을 만들어 사는데 그 모양이 마치 무덤 같으며, 문이 위에 있다고 소개하는데, 이는 최근 발굴조사에서 밝혀진 여呂·철凸자형 주거지, 사주식 방형주거지의 구조와 유사하다. 또한 이전보다 토기와 철기의 생산기술이 보다 전문화되어, 이로 인해 발달된 철제 농경도구를 사용하여 생산력이 높아지고 잉여생산과 부의 축적이 가능해졌다. 마한 사람들은 높은 온도에서 구워 단단해진 경질무문토기와 중국 전국戰國 계통 및 낙랑에서 들여온 신기술이 적용된 타날문토기를 사용하였다. 주로 쌀과 보리 등의 곡물을 재배하여 부뚜막에서 이러한 토기들로 조리하여 먹었다.

居處作草屋土室 形如冢 其戶在上
擧家共在中 無長幼男女之別
其葬有棺無槨 不知乘牛馬 牛馬盡於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주목할 만한 풍습으로는 구슬을 귀하게 여겨 옷에 꿰매 장식하기도 하고, 목이나 귀에 달기도 하지만, 금·은보다 구슬을 귀하게 여겼다. 머리카락을 틀어 묶고 상투를 드러내었고, 베로 만든 도포를 입고 발에는 가죽신을 신고 다닌다. 남자들은 몸에 때때로 문신을 하였고 기록하고 있다. 마한의 주거지와 무덤에서는 다양한 구슬류가 발견되는데 유리, 마노, 수정 등으로 이들을 옥이라 불렀다. 유리는 남중국의 남월국에서 유입된 포타시 유리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소다유리가 유입되었다. 마노는 남아시아에서 인도의 다이아몬드 천공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후, 낙랑을 경유하여 운양동까지 수입되었을 것이다. 마한은 원거리 교역을 통해 수입된 고가의 사치품인 구슬을 통해 소국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했을 것이다.

以瓔珠爲財寶 或以綴衣爲飾
或以縣頸垂耳 不以金銀錦繡爲珍
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聚歌舞飮酒晝夜無休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마한에는 신성 구역인 '소도'가 있었다. 소도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아 귀신을 섬기는 신성 지역이어서 죄인이라도 소도에 들어오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실제 마한의 마을 유적 중에는 소도로 추정되는 유적들이 발견된다. 소도는 비교적 넓은 규모의 신성한 의례공간으로 구분되며, 주변에 제사장과 수장의 주거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마한에서는 정치적 지도자와 별개로 제사장인 천군이 있어 제사를 주관하였다. 소도와 유사한 환구環溝 시설은 청동기시대에도 찾아볼 수 있다. 환구는 동그란 도랑으로 둘러싸인 구획 공간으로 마을의 중심지에 위치한다. 그리고 초기철기시대 지배자급의 무덤에서 세형동검, 청동창 등의 청동무기와 청동거울, 청동방울, 방패형 동기 등의 청동 의례용기가 다량 발견되었다. 이것은 선사시대 공동체의 지도자가 동시에 제사장을 겸했으며, 이들이 청동거울, 청동방울과 같은 의례품을 사용하여 의식을 진행한 증거이기도 하다. 선사시대부터 마한의 소도와 같은 공간과 제천 의식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信鬼神 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
名之天君
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 縣鈴鼓 事鬼神
諸亡逃至其中 皆不還之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제1부

마한의 여명을 열다

The Dawn of Mahan

마한은 소국연맹체의 형태로 기원전 3~2세기 이래 세형동검 및 초기철기문화를 배경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청동기시대 환구環溝 유적에서도 마한의 소도蘇塗 문화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삼국지三國志』 위서 동이전과 『후한서後漢書』 동이열전 한조韓條의 문헌기록, 그리고 고고학 자료로 볼 때, 기원전 3세기경부터 이미 '한韓'으로 불리고 있었으며, 기원전 1세기부터 정치체로 부각되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다.

마한 54개국 구성 단위인 각 소국은 농경사회였던 청동기시대 부터 각 지역에 존속하였던 대·소규모 단위 집단이 지형 조건이나 문화 권역 단위로 통합되어 형성되었다. 초기철기시대에 들어서며 지배자가 소유하는 금속제 유물의 종류는 이전의 청동 무기·청동 의례용기에 더해서 최첨단 소재인 철기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게 된다.

Mahan arose in a confederacy of tribal states during the period from the 3rd to 2nd centuries BC in the background of the slender bronze dagger culture. The origin of 'Sodo', which is a sacred district in Mahan dates back to remains of settle- ment surrounded by a ditch from the Bronze Age.

According to the Chinese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Account of Dongyi, Book of Wei), and Book of the Later Han (Treatise on the Dongyi), it was called 'Han( )' as early as from around the 3rd century BC and emerged in history as a small political entity from the 1st century BC.

Mahan consisted of 54 statelets and each statelet was formed as large and small unit groups that existed in the agricultural societies during the Bronze Age were integrated based on geographical conditions or cultural regions. By the 3rd to 2nd centuries BC of the early Iron Age, bronze weapons and ritual objects owned by the rulers as their metal artifacts were replaced by state-of-the-art iron tools, heralding the arrival of a new era.

侯準旣僭號稱王
爲燕亡人衛滿所攻奪
將其左右宮人走入海
居韓地 自號韓王

'기준'이 참람되게 왕이라 칭하고,
'연'나라 망명인 '위만'이 공격하여 빼앗았다.
그 좌우궁인들과 도망하여 바다로 들어가, '한'의 땅에 거하였다. 스스로 '한왕'이라 하였다.

『삼국지三國志』 권30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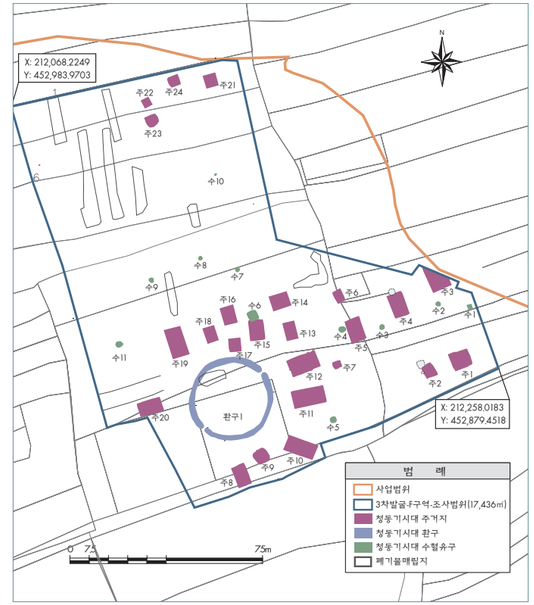
청동기시대 의례 공간 환구, 구리 토평동

Bronze Age ritual district surrounded by a ditch, Topyeong-dong, Guri

구리 토평동 유적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771-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2014년 서울문화유산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하였다. 이곳에서는 청동기시대 취락과 함께 환구環溝시설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환구는 동그란 도랑으로 둘러싸인 구획 공간으로 광장 또는 신성한 의례 공간으로 삼한 소도蘇塗의 기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환구를 중심으로 주변에 방사형으로 다수의 주거지가 분포한다.

환구 주변의 주거지는 청동기시대의 전형적인 방형과 장방형의 평면을 이루며, 이 가운데 가옥 규모가 크고 간돌검磨製石劍을 소유한 10호 주거지의 거주인이 마을의 의례를 주관 하는 공동체의 지도자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나온 석검은 청동기시대 석검 가운데 가장 오래 된 것으로 고조선의 비파형동검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F구역 청동기시대 환구 및 주거지 배치 상태



F구역 청동기시대 문화층 발굴조사 유구 배치도

1

민무늬토기

無文土器

Plain Pottery

—

구리 토평동 F구역 10호 주거지
청동기 기원전 12~11세기경
높이 24.6, 입지름 27.7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2

겹아가리토기

二重口緣土器

Double-rimmed Pottery

—

구리 토평동 F구역 10호 주거지
청동기 기원전 12~11세기경
높이 42.6, 바닥지름 9.0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3

긴 목 항아리

長頸壺

Long-necked Jar

—

구리 토평동 F구역 10호 주거지
청동기 기원전 12~11세기경
현재높이 24.55, 입지름 9.8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4

반달모양 돌칼, 바퀴날 도끼, 돌검 손잡이

半月形石刀, 環狀石斧, 石劍 柄部

Semilunar Stone Knife, Disk-shaped Stone Axe,Stone Dagger Handle

—

구리 토평동 F구역 10호 주거지
청동기 기원전 12~11세기경
현재길이 14.38(돌칼), 지름 8.3(도끼), 현재길이 8.5(돌검)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청동기시대 가장 큰 옥을 품은 고양 강매동

Remains of the largest jade dating from the Bronze Age, Gangmae-dong, Goyang

고양 강매동 유적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산40번지 일대로, 2017년 겨레문화유산연구원이 발굴조사하였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구릉지에 위치하며, 총 18기가 발견되었는데 평면형태는 모두 방형과 장방형이다.

유물은 골아가리무늬口脣刻目文와 구멍무늬孔列文가 있는 토기, 채집·농경과 연관된 반달모양 돌칼, 벌채·목공과 관련된 돌도끼, 돌끌, 무기류인 돌화살촉, 돌창 등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기다란 대롱모양의 길이 8~16cm에 달하는 3점의 대롱옥이 발견되었는데, 현재까지 조사된 청동기시대 대롱옥들이 대부분 2~4cm 정도의 크기인 점과 비교해 보면 가장 큰 크기이다. 이러한 대형 대롱옥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청동기시대 통치자의 권위나 지위를 상징하는 물건일 가능성이 높다. 이 곳 강매동 주거지에서 나온 대롱옥은 모두 주거지에서 발견되었다.

유적 전경

청동기시대 11호 주거지

5

대롱옥

管玉

Tubular Jade

—

고양 강매동 1지점 청동기 8호·11호 주거지
청동기 기원전 10~9세기경
길이 16.0(8호), 길이 13.5(8호), 길이 8.1(11호)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6

구순각목공렬문 심발형토기·석기류

深鉢形土器·石器類

Pottery, Stone Implement

—

고양 강매동 1지점 청동기 9호, 11호 주거지
청동기 기원전 10~9세기경
높이 35.0(토기/11호), 현재길이 14.3(석부/11호), 현재길이 12.7(석창/11호), 현길이 15.9(석창/9호)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7

반달모양 돌칼

半月形石刀

Semilunar Stone Knife

—

고양 강매동 1지점 청동기 주거지
청동기 기원전 10~9세기경
길이4.2~5.5 폭 12.6~21.8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철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초기철기시대 무덤, 인천 검암동

Tomb from the early Iron Age, Geomam-dong, Incheon

인천 검암동 유적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15-1번지 일원으로 2011년 중부고고학연구소가 발굴조사 하였다. 초기철기시대의 삼각형덧띠토기와 세형동검이 함께 발견된 사례가 드물어 중요한 유적이다.

검암동 널무덤木棺墓에서 출토된 세형동검은 무덤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모서리 벽에 연접해서 검의 끝 부분이 바닥에 박혀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것은 매납 당시에 의도적인 의례 행위로 판단된다. 철기류는 세형동검 주변의 보강토에서 출토되었는데, 부식이 된 채로 3cm 이내의 작은 조각으로 발견되었다. 토기편은 의도적으로 깨뜨려 부순 후 나무널 위에 뿌린 것으로 보인다. 검암동 유적에서 확인된 주조철부는 중국 전국戰國 혹은 고조선 계통의 철기가 유입된 이후인 대략 기원전 3~2세기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 전경

1호 토광묘

1호 토광묘 조사 후

1호 토광묘 세형동검 출토 상태

8

점토대토기

粘土帶土器

Attached-rim Vessel

—

인천 검암동 1호 토광묘
초기철기 기원전 3~2세기경
잔존높이 7.45
인천광역시검단선사박물관 소장

9

세형동검

細形銅劍

Slender Bronze Dagger

—

인천 검암동 1호 토광묘
초기철기 기원전 3~2세기경
길이 31.7 너비 2.95

10

철도끼, 철기편

鐵斧, 鐵器片

Iron Axes, Iron

—

인천 검암동 1호 토광묘
초기철기 기원전 3~2세기경
현재길이 2.1, 현재너비 3.9(철도끼)
인천광역시검단선사박물관 소장

전문가 칼럼

경기지역 마한의 형성기는 기원전 3~2세기 점토대토기문화

이 형 원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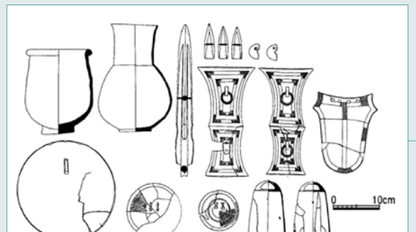
한韓 또는 마한馬韓 형성기 경기지역(서울 및 인천 포함)의 문화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앞선 시기의 고조선문화권古朝鮮文化圈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기원전 5~4세기의 원형점토대토기 시기인 청동기시대 후기는 고조선의 청동기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 시기의 남한지역은 고조선문화권에 속하며 충청 및 전라지역은 청동 무기武器류와 의기儀器류를 무덤에 부장하는 장제 문화를 통해서 수장 권력의 상징성이 확인되며, 경기지역은 종교적 의례공간인 환구의 축조 및 운영을 통해 수장首長의 권력이 발현되었다(그림 1). 권력과 종교적 제의를 행사하는 방식에서 지역성이 반영된 것이다. 이 시기를 문헌상의 한이나 마한과 직접 연결시킬만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기원전 3세기가 되면 경기지역을 비롯한 남한지역에 철기가 등장한다. 철기가 유입되는 시기부터 원삼국시대 이전까지를 초기철기시대로 보는 입장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의 늦은 단계부터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중심을 이루는 시기에 해당한다. 경기지역에서는 주조철기鑄造鐵器가 부장된 인천 당하동유적을 비롯하여 인천 검암동, 평택 율북리, 평택 화양리유적 등에서 초기철기시대 분묘가 확인되었다. 당하동의 경우는 원형점토대토기가, 검암동의 경우는 삼각형점토대토기가 공반되었으며, 오산 탑동과 김포 운양동유적에는 삼각형점토대토기 옹관묘가 존재한다. 생활유구는 수원 고색동, 서울 가락동, 천왕동, 화성 도이리, 이천 이치리 유적 등에서 주거지나 수혈, 구상유구 등이 있다. 남한지역은 기원전 3~2세기에 고조선과 관련한 연계燕系 철기문화가 꽃을 피운다. 문헌에 등장하는 기원전 2~1세기의 마한과 삼한三韓의 물질문화는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되므로 이 때를 마한 형성기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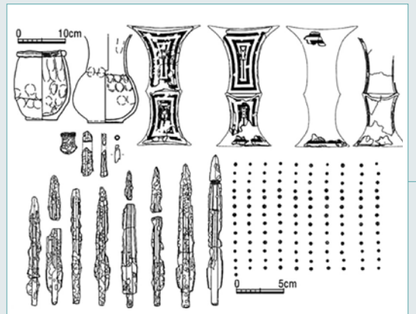
이 시기의 중심지는 완주 신풍유적과 갈동유적 등이 위치한 전라지역의 만경강유역이며, 중국 요령 및 서북한지역 철기문화의 남하 루트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지역에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의 철기문화가 정착했을 가능성이 높다(그림 2). 경기 및 남한지역의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의 분포를 비교하면, 전자가 남한 전역에 분포하는 반면에 후자인 삼각형점토대토기는 강원을 제외한 경기·충청·전라·경상지역에서 확인된다. 남한에서 마한과 진한·변한으로 구성된 삼한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그림 3). 한편 문헌사료(기원전 2~1세기)와 고고학 물질자료(기원전 3세기)의 접목을 통해서 볼 때 한 또는 마한의 형성기는 기원전 3~2세기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보다 앞선 기원전 5~4세기 단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원형점토대토기문화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로의 전환과정, 청동기문화에서 철기문화로의 전환과정, 고조선 중심지와 고조선문화권에 속하는 남한지역의 시기별 상호작용에 대한 진전된 연구를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심양 정가와자 3-2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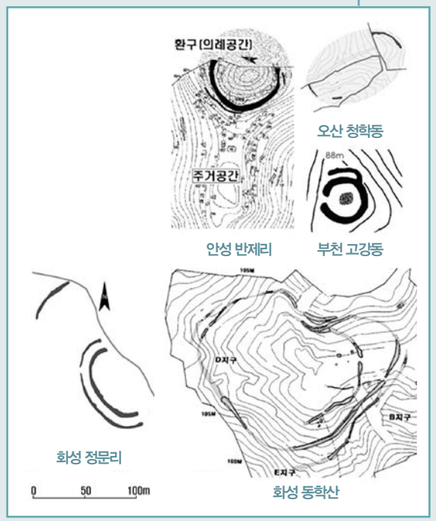
정가와자 M6512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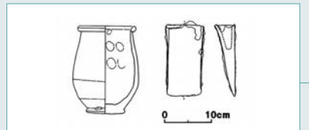
대전 괴정동 적석목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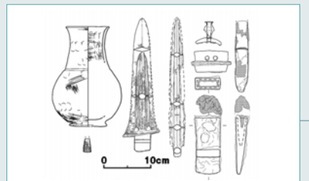
군산 선제리 적석목관묘



〈그림 1〉 원형점토대토기문화 분포권(기원전 5~4세기) 고조선의 중심지(요령지역)와 고조선 문화권(남한의 주요 수장묘 : 충청 및 전라지역은 청동 무기와 의기 등 고조선과 관련한 청동기문화가 발전하며 경기지역은 의례공간인 환구의 존재가 부각된다.



인천 당하동 5-1B 1호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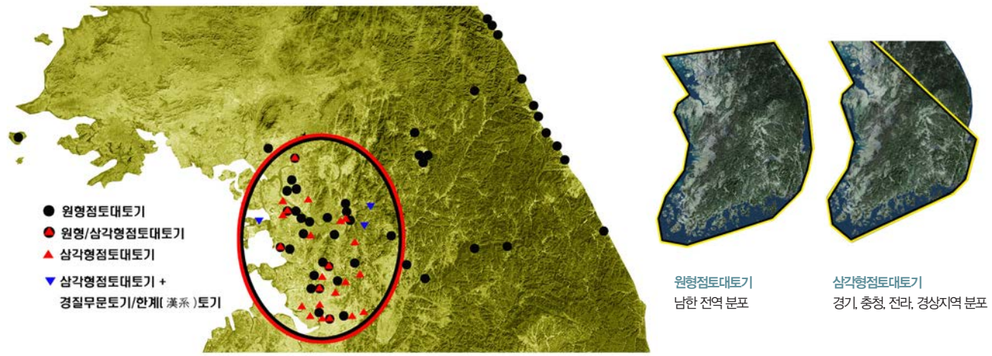
서산 동문동 목관묘

당진 소소리

완주 갈동 3호묘

완주 갈동 4호묘

〈그림 2〉 마한 형성기 경기 및 충청전라지역 최고(最古) 단계 철기 유적



〈그림 3〉 경기 및 남한지역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 분포 : 삼각형점토대토기의 분포는 마한을 포함한 삼한형성기(기원전 3~2세기)의 공간적 범위에 해당한다.

제2부

마한을 말하다

About Mahan

마한은 경기, 충청, 전라지역에 걸쳐 분포하였으며 경기에서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후 4세기까지 존재한 소국연맹체이다. 경기지역에서 최근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보면, 약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경까지 그 흔적이 뚜렷 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거지와 무덤의 양상을 살펴보면 방형과 여呂·철凸자형의 주거지, 그리고 흙무지무덤墳丘墓, 움무덤土壙墓, 돌무지무덤積石墳丘墓 등으로 구분되며, 유물의 양상도 매우 다양하여 경기지역 내에 다양한 정치체들이 존재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크게 보아 이전과 다른 마한 시기의 문화적 양상은 철기의 발달 및 보급으로 철제 농기구에 의한 농경이 발전하고, 이전 시기보다 높은 온도에서 구워 단단해진 경질무문토기, 중국 전국계戰國系 토기의 영향을 받은 회색타날문토기가 생산되며, 낙랑군을 통해 한漢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철기의 발달과 활발한 교류는 사회 변화를 촉진하고 고대 국가가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Mahan was a confederacy of statelets that existed from the 3rd century BC to mid-4th century AD across Gyeonggi, Chung- cheong, and Jeolla provinces. The latest discoveries excavated in the Gyeonggi region traces back to around the 1st century BC to 4th century AD. Largely, the settlements and tombs of Mahan are characterized by “yeo”(呂) and “cheol”(凸)-shaped architecture, and earth mound tombs, pit tombs, stone mound tombs, and types of artifacts are greatly varied, indicating that different political entities existed in the Gyeonggi region. Notable cultural aspects of Mahan compared to the former periods include the advance of iron farming tools and use of cows in farming with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iron tools, production of plain harder pottery fired at higher temperatures and gray paddled patterned pottery influenced by the Warring States period of ancient China, and active acceptance of advanced cultures and objects through the Imperial Han(漢) Lelang Commandery. The development of iron tools and active exchanges during this period promoted social change and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develop- ment of the ancient state.

초기철기시대 토기와 마한의 토기를 모두 사용한 유적, 양평 양수리 537-1

Remains of the early Iron Age and Mahan pottery discovered together, Yangsuri, Yangpyeong

양평 양수리 유적은 경기도 양평 양수리 537-1번지 일대로, 2016년 한양문화재연구원이 발굴조사하였다. 원삼국시대 주거지 총 11기, 수혈유구 총 16기가 조사되었다. 이곳에서는 초기철기시대의 마연토기, 원삼국시대 마한의 새로운 토기인 경질무문토기, 타날문 토기, 철기 등이 발견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장방형 평면의 3호 주거지에서 초기철기시대 대표유물인 흑색간토기와 경질무문토기인 손잡이달린옹把手附甕이 함께 발견되었다. 5호 수혈유구에서는 중국 전국계戰國系 회도灰陶 계통의 타날문토기가 발견되어 주목된다. 그리고 6호 수혈유구에서는 경질무문토기와 발형의 삼각형점토대토기가 거꾸로 겹겹이 포개진 채 출토되었다. 이것은 기원전 1세기 전반~기원전후 시기 초기철기시대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물질문화와 결합하여 마한시기로 변화하는 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원삼국시대이자 마한의 초기를 정의할 수 있는 물질자료 구성은 전국계 회도 제작기술의 파급과 철기문화의 확산, 새로운 토기문화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양수리 유적은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조사지역 원경

원삼국시대 6호 수혈

11

경질무문토기·삼각형 점토대토기

硬質無文土器 · 三角形 粘土帶土器

Plain Harder Pottery · Triangular Attached-rim Vessel

—

양평 양수리 원삼국시대 6호 수혈
기원전 1세기
복원구경 12.5(점토대토기), 저경 6.0(무문토기), 저경 6.2(무문토기)
한양문화재연구원 발굴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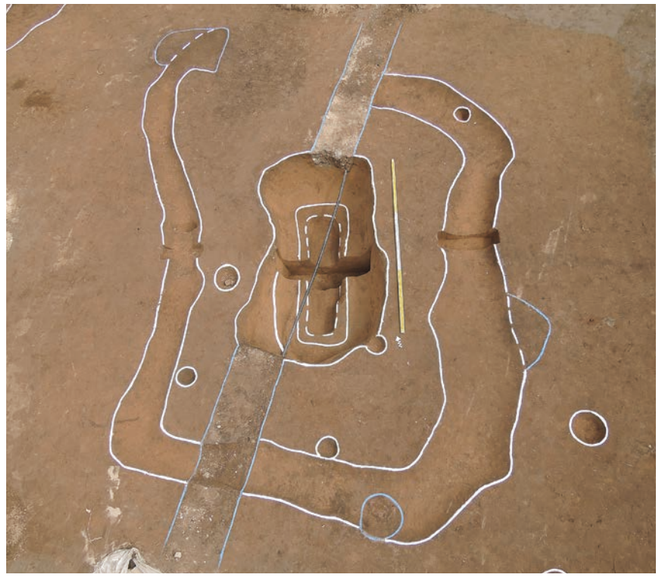
중부 지역에 등장한 서북한계 무덤, 남양주 금남리

Northwest region style tomb discovered in central Korea, Geumnam-ri, Namyangju

남양주 금남리 유적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367-1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2020년 한강문화재연구원이 발굴조사하였다. 이 유적에서는 원삼국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서북한계 무덤 4기가 발견되었는데, 화분형토기와 니질계 짧은목항아리 세트와 함께 다양한 청동기·철기 유물들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1호 덧널무덤木槨墓에서는 화분형토기, 짧은목항아리, 삼각투창 그릇받침이 발견 되었다. 2호 덧널무덤에서는 화분형토기, 짧은목항아리, 쇠창, 쇠낫, 쇠도끼, 청동둥근고리 자루칼靑銅環頭部鐵刀, 쌍새모양검손잡이장식雙鳥形劍把頭飾과 철제단검, 청동고리가 출토되었다. 3호 덧널무덤에서는 화분형토기, 짧은목항아리, 청동고리, 을乙자형 동기가 조사되었다. 4호 무덤에서는 삼각형점토대토기, 짧은목항아리, 쇠창, 쇠낫, 쇠도끼, 쇠끌, 철제단검 등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물 조합 양상은 주로 서북한지역 무덤에서 확인되는데, 같은 북한강 유역의 가평 달전리 유적과 춘천 우두동 유적에서도 확인된다. 남양주 금남리 무덤들은 원삼국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1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1호 목곽묘



2호 목곽묘

12

삼각투창 그릇받침, 짧은 목 항아리, 화분형 토기

器臺, 短頸壺, 花盆形土器

Stand, Pottery

—

남양주 금남리 1호 목곽묘
기원전 1세기 전반
높이 16.0(단경호)
한강문화재연구원 발굴

13

짧은 목 항아리, 화분형 토기, 철기류

短頸壺, 花盆形土器, 鐵器類

Pottery, Iorn

—

남양주 금남리 2호 목곽묘
기원전 1세기 전반
높이 11.0(짧은 목 항아리)
한강문화재연구원 발굴

14

짧은 목 항아리, 화분형 토기, 乙자형 동기, 청동반지· 팔찌

短頸壺, 花盆形土器, 乙字形 銅器, 青銅指環· 環

Pottery Pot, Bronze

—

남양주 금남리 3호 목곽묘
기원전 1세기 전반
높이 16.0(짧은 목 항아리)
한강문화재연구원 발굴

북한강변에 등장한 대장간 마을, 가평 대성리

Blacksmith village on the banks of the Bukhan River, Daeseong-ri, Gapyeong

가평 대성리 유적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93번지, 618-11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2004~2006년 경기문화재연구원과 2008년 겨레문화유산연구원이 발굴조사하였다. 원삼국시대 주거지 총 54기, 수혈유구 총 67기가 조사되었는데 원삼국시대 전기와 후기 마을이 공존한다.

전기 마을은 기원전 2세기 말에서 기원전 1세기 전반까지 유지되었다. 전기 마을의 주거지는 소형의 방형이며, 한쪽 벽면에 화덕爐을 설치한 구조이다. 전기 마을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전국계戰國系 및 낙랑의 유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화분형토기, 짧은목항아리 등의 토기류와 주조철부, 갑옷미늘小札, 쇠와 구리로 만든 화살촉鑌莖銅鏃 등의 금속기류가 함께 출토되었다. 후기 마을은 기원후 2세기 전반에 등장하여 3세기 전반까지 유지된다. 후기 마을의 주거지는 대부분 여呂·철凸자형으로, 화덕, 외줄구들을 설치한 구조이다. 후기 마을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낙랑계의 토기류와 두 줄의 철대를 돌린 주조철부二條線突帶鑄造鐵斧, 쇠화살촉, 쇠낫, 쇠끌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후기 마을에서는 단야鍛冶 공정을 통해 철기를 생산한 흔적이 다수 확인되는데 재료인 철을 수입하여 재가공한 후 주변 마을들로 유통했던 대장간 마을로 평가된다.

유적 전경

원삼국시대 10호 주거지

15

경질무문토기

硬質無文土器

Plain Harder Pottery

—

가평 대성리 원삼국시대 주거지
2~3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6

낙랑계 토기

樂浪系 土器

Nangnang style Pottery

—

가평 대성리 원삼국시대 주거지
2~3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

타날문 토기

打捺文土器

Pottery

—

가평 대성리 원삼국시대 주거지
2~3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8

화분형토기

花盆形土器

Pottery Pot

—

가평 대성리 원삼국시대 주거지
기원전 1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

철기류

鐵器類

Irons

—

가평 대성리 원삼국시대 주거지
2~3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두물머리에 자리한 초대형 마을의 한 조각, 양평 양수리 708-3

Fragment of a large settlement in Dumulmeori, 708-3 Yangsu-ri, Yangpyeong

양평 양수리 유적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708-3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2019년 한국문화유산연구원이 발굴조사하였다. 청동기시대~삼국시대 해당하는 주거지, 수혈유구, 구상유구 등이 복잡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주거지의 평 면형태는 철凸자형과 방형·장방형 으로 구분되며 모두 구들을 갖추었다. 유물은 호, 바리, 뚜껑류의 경질무문토기, 계란모양 토기長卵形土器, 곧은입짧은목항아리直口短頸壺, 연질계합, 뚜껑 등이 있다. 백제 한성기 양식의 영향을 받은 토기들이 사용된 점으로 보아 주로 4세기에 생활한 주거지로 추정된다. 양수리에는 708-3번지 유적을 비롯해 여러 차례의 소규모 발굴조사가 진행됐다. 많은 수의 소규모 발굴조사를 통해 밀집도가 높은 유구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로 볼 때 전체 면적이 조사된다면 경기지역에서 가장 큰 마을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조사지역 원경

조사지역 근경

20

경질무문토기

硬質無文土器

Plain Harder Pottery

—

앙평 양수리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기원후 3~4세기
한국문화유산연구원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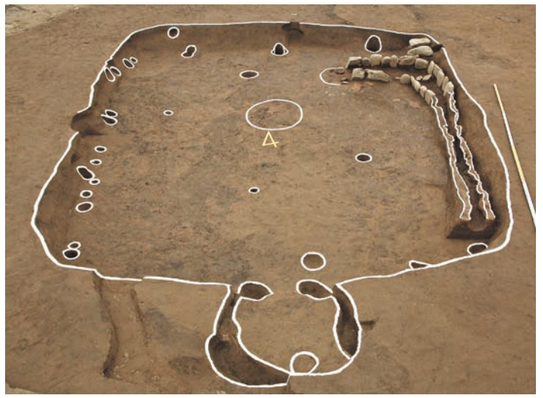
임진강 중류의 거점마을, 연천 강내리

Stronghold village in the middle of the Imjin River, Gangnae-ri, Yeoncheon

연천 강내리 유적은 경기도 연천군 강내리 691-1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2009년 고려 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하였다. 원삼국시대 주거지 총 71기, 수혈유구 총 89기 등 임진강 중류역권에서 가장 많은 수의 유구가 발견되었다. 원삼국시대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여呂·철凸자형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방형은 일부 확인되었다. 원삼국시대 27호 주거지는 길이 2,097cm, 너비 960cm의 초대형 규모로서 임진강 중류역 거점마을據點聚落의 중심 주거지로 보인다.

연천 강내리 마을에서는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낙랑계토기 등의 토기류와 쇠화살촉, 쇠낫, 쇠손칼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특히 39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쇠대패鐵鉋는 중국 한漢의 대표적인 농공구로서, 당시 중국 문물이 적극적으로 유통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연천 강내리 마을은 기원후 2세기 후반에 등장하여 4세기 후반까지 유지되었다.

유적전경



원삼국시대 1호 주거지

21
짧은 목 항아리
短頸壺

Short-necked Jar

—

연천 강내리 원삼국시대주거지(58)
3세기
높이 30.3, 입지름 19.5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22
경질무문토기 시루
硬質無文土器 甑

Plain Harder Pottery Steamer

—

연천 강내리 17호
3세기
높이 18.4, 입지름 28.9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23
경질무문토기 단지
硬質無文土器 甕

Plain Harder Pottery Jar

—

연천 강내리
3세기
높이 24.5, 입지름 13.1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24
경질무문토기 단지
硬質無文土器 甕

Plain Harder Pottery Jar

—

연천 강내리
3세기
높이 18.2, 입지름 11.8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25
경질무문토기 단지
硬質無文土器 甕

Plain Harder Pottery Jar

—

연천 강내리
3세기
현재높이 20.5, 입지름 14.7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마한 흙무지무덤의 정수, 김포 운양동

Essence of Mahan earth mound tomb, Unyang-dong, Gim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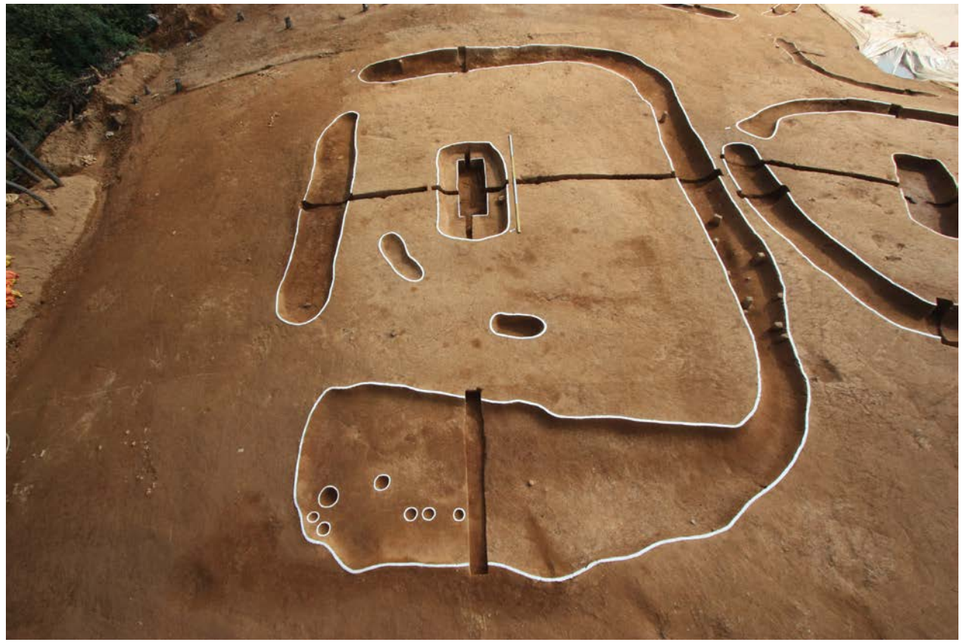
김포 운양동 유적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장기동 일대에 위치하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한강 문화재연구원이 발굴조사하였다. 이 유적은 중서부 지역에서 확인된 원삼국시대의 대표적인 흙무지무덤墳丘墓 유적으로 1–11지점, 2–9·11지점에서 흙무지무덤 총 32기, 널무덤木棺墓 총 3기, 독널무덤甕棺墓 총 1기가 조사되었다. 김포 운양동 유적에서는 '선先 흙무지墳丘 조성, 후後 매장주체부 굴착'이라는 흙무지무덤의 축조 순서가 밝혀져 의미가 크다.

흙무지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북방계 금귀걸이, 남아시아계 마노, 수정, 유리구슬 등과 같은 화려한 장신구류, 무기 및 농공구 등의 철기류, 큰독, 낙랑계 짧은목항아리, 두귀달린항아리兩耳附壺 등의 토기류가 함께 출토되었다. 김포 운양동 유적은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중부지역에서 발견된 마한 흙무지무덤 가운데 단연 으뜸이다. 한편 김포 운양동 유적은 기원후 2세기에서 3세기대의 무덤 유적으로서, 마한의 여러 소국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국제 교류를 주도했던 세력의 무덤군으로 평가된다.

발굴 전경

1–11지점 원삼국시대 흙무지무덤

1–11지점 원삼국시대 흙무지무덤



1–11지점 원삼국시대 분묘군

26

철검

鐵劍

Iron Knife

—

김포 운양동 1–11지점 원삼국시대 분구묘
2~3세기
길이 120cm 내외
국립중앙박물관 소

27

철모

鐵矛

Iron Spearhead

—

김포 운양동 1–11지점 원삼국시대 분구묘
2~3세기
높이 20.1~56.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8

금 귀걸이

金耳飾

Gold Earring

—

김포 운양동 2-9지점 1호 원삼국시대 분구묘
2~3세기
높이 2.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9

유리구슬

琉璃玉

Glass Beads

—

김포 운양동 1-11지점 원삼국시대 분구묘
2~3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30

수정, 유리구슬

水晶, 琉璃玉

Crystal, Glass Beads

—

김포 운양동 2-9지점 1호 원삼국시대 분구묘
2~3세기
높이 1.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김포 운양동 무덤의 계승 집단, 인천 검단지구

Successor group of tombs in Gimpo Unyang-dong, Geomdan District, Incheos

인천 검단지구 유적은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당하동, 마전동, 원당동, 일원의 광범위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적이다. 2007년 대동문화재연구원, 충청문화재연구원, 중부고고학연구소 등 5개 기관이 발굴조사하였다. 원삼국시대와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무덤은 총 49기로 도랑무덤周溝墓과 덧널무덤木槨墓이 확인되었다. 원삼국시대 무덤은 김포지역의 운양동, 양촌지구 등의 무덤과 유사하다.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은 짧은목항아리, 철검, 쇠창, 쇠화살촉, 구슬류 등이 있다. 인천 검단 대동-1-7지점 A구역 1호 도랑무덤에서 출토된 철검은 100cm로 운양동에서 출토된 철검과 유사한 형태이며, 한대漢代 철검을 북방지역으로부터 수입한 결과로 추정된다. 인천 검단 원삼국시대 널무덤에서 출토된 짧은목항아리와 쇠창은 유물의 연대로 볼 때 기원후 3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인천 검단지구의 도랑무덤은 김포 운양동의 무덤 문화를 계승한 집단의 무덤으로 평가된다.

I –7지점 전경

Ⅰ-7B구역 원삼국시대 1호 주구묘

Ⅰ-7B구역 제1호 목곽묘

31

백색토기

白色土器

White earthenware Jar

—

인천 검단지구 Ⅰ-7B구역 원삼국시대 1호 주구묘
3세기 전반
잔존높이 20.9, 구경 12.8
인천광역시검단선사박물관 소장

32
철검
鐵劍
Iron Knife
—
인천 검단지구 I –7B구역 원삼국시대 1호 주구묘
3세기 전반
길이 100.2
인천광역시검단선사박물관 소장

33
철모
鐵鉾
Iron Spearhead
—
인천 검단지구 I –7B구역 원삼국시대 1호 주구묘
3세기
전반길이 27.1~36.5
인천광역시검단선사박물관 소장

뚜껑있는 굽다리단지가 부장된 경기도 최북단 무덤, 오산 궐동

Tomb where a mounted jar with a lid is buried discovered in northernmost Gyeonggi region, Gwol-dong, Osan

오산 궐동 유적은 경기도 오산시 궐동과 금암동 일대에 위치하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문화재연구원이 발굴조사하였다. 오산 궐동 유적에서 조사된 원삼국시대 움무덤土壙墓은 총 36기이며, 이중 말발굽모양의 도랑周溝을 갖춘 것은 12기이다. 출토유물은 짧은목항아리, 뚜껑있는 굽다리단지有蓋臺附壺, 깊은바리 등의 토기류와 철검, 쇠창, 쇠도끼, 쇠낫, 쇠끌 등의 철기류 등이 있다.

뚜껑있는 굽다리단지는 영남지역과의 교역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로서 중서부지역에 국한되어 출토된다. 오산 궐동 유적은 경기도에서 뚜껑있는 굽다리단지가 출토된 가장 최북단 유적이다. 뚜껑있는 굽다리 단지가 출토된 유적으로는 평택의 마두리·좌교리, 아산의 용두리 진터·공수리, 천안의 신풍리, 청주의 오송·송절동·상신동, 세종의 합강리·봉기리에서 출토되었다. 오산 궐동 유적은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기원후 2세기 중엽부터 3세기 전반까지 만들어진 무덤군으로 추정된다.

유적 원경

5지점 20호 움무덤

34

둥근 바닥 바리모양 토기

圓底深鉢形土器

Deep Bowl

—

오산 궐동 5지점 23호 토광묘
2세기 후반
높이 14.3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35

뚜껑 있는 굽다리단지

有蓋臺附壺

Mounted Jar with Lid

—

오산 궐동 5지점 20호 토광묘
2세기 후반
입지름 13.4, 높이 6.1(뚜껑), 입지름 12.0, 높이 27.1(단지)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중부지역 초대형 마을과 돌무지무덤, 광주 곤지암리

Ruins of a large settlement from the Proto Three Kingdoms period discovered in central region, Gonjiam-ri, Gwangju

광주 곤지암리 유적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일원에 위치하며, 2011년~2019년까지 기남문화재연구원, 고려문화재연구원 등 총 5개 기관이 발굴조사하였다. 광주 곤지암리 유적은 중부지역 최대 규모의 마을 유적으로 주거지 총 253기, 수혈유구 총 238기가 확인되었다. 특히 북서 쪽의 돌무지무덤積石塚이 함께 조사되면서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마을 사람 들의 생활과 죽음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희귀한 유적이다.

돌무지무덤에서는 남아시아의 마노와 중앙아시아 소다계의 붉은색 유리 구슬, 대롱옥 등이 출토되어 마한의 장례 풍습 및 대외교섭 관계를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광주 곤지암리 마을은 기원후 3세기 중엽에 처음 만들어져 4세기 전반까지 유지되었다. 돌무지무덤은 이보다 약간 늦은 3세기 후엽에 만들어져 4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돌무지무덤 전경

23호 주거지 전경

36

마노, 유리, 옥구슬

瑪瑙, 琉璃, 玉

Agate, Glass, Jade Beads

—

광주 곤지암리 돌무지무덤
3~4세기
기남문화재연구원 발굴

서북한 이주민의 철기생산 기지, 화성 기안리

Ironware production base of migrants from northwestern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Gian-ri, Hwaseong

화성 기안리 유적은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기안리 457-83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2002~2003년 경기 문화재연구원, 2012~2013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굴하였다. 화성 기안리 유적에서는 공방터, 대장간터爐蹟, 숯가마炭窯, 수혈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철기를 생산한 흔적으로는 철광석, 단야 도구, 송풍관 등이 출토되었다. 철기생산 작업은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 정제한 정련 공정, 철을 두드려서 강하게 만드는 단련 공정, 철의 제련과 제강이 이루어지는 공정 등 다양한 형태의 철기생산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성 기안리 유적의 조업 기간은 대체로 3세기 전반부터 4세기대로 보고 있다.

화성 기안리 유적에서는 쇠도끼, 쇠손칼, 갑옷미늘小札, 낚싯바늘, 쇠송곳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철기를 생산하면서 생성된 단조박편 등이 함께 발견되었다. 화성 기안리 유적에서 발견된 토기류는 낙랑계토기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계란모양토기長卵形土器와 같은 지역고유의 취사용기가 함께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화성 기안리 유적은 서북한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만든 대규모 철기생산 유적으로서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유적 전경

Ⅳ 지점 전경

37

송풍관

送風管

Tuyer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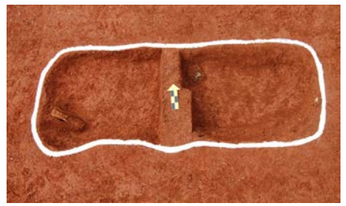
후반 화성 기안리
3세기
길이 42.4, 32.0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경기 남부 목지국 계열 최초의 무덤, 평택 마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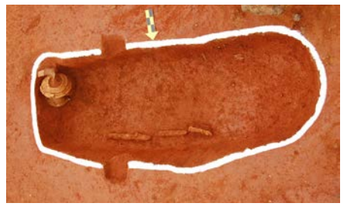
First tomb from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discovered in southern Gyeonggi region, Madu-ri, Pyeongtaek

평택 마두리 유적은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마두리 194-9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2008년 한국문화유산연구원이 발굴조사하였다. 모두 3기의 단순 움무덤土壙墓이 조사되었다. 1호 무덤의 맨 위 바닥에서는 목걸이頸飾로 추정되는 푸른색 유리구슬이 일괄로 수습되었고, 중간 부분에서 말모양허리띠고리馬形帶鉤, 맨 아래에서 쇠낫, 쇠도끼가 출토되었다. 2호 무덤에서는 뚜껑있는 굽다리단지, 구슬, 목걸이, 쇠창, 철검, 쇠낫, 쇠화살촉 등이 출토되었다. 3호 무덤에서는 회색 연질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1호 무덤에서 발견된 말모양허리띠는 천안 청당동, 청주 봉명동, 청원 송대리 등에서도 출토되었는데, 그 분포범위가 마한의 중심세력인 목지국目支國의 영역과 일치한다. 1호 무덤에서 출토된 말모양 허리띠고리와 푸른색의 유리구슬은 낙랑과의 교역과정에서 중부지역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평택 마두리 무덤이 만들어진 시기는 출토유물로 볼 때 기원후 2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조사지역 전경



1호 토광묘



2호 토광묘

38

뚜껑 있는 굽다리단지

有蓋臺附壺

Mounted Jar with Lid

—

평택 마두리 2호 토광묘
2세기
지름 15.7, 높이 7.2(뚜껑), 입지름 30.4, 높이 31.2(단지)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39

유리 구슬

琉璃玉

Glass Bead

—

평택 마두리 2호 토광묘
2세기
직경 0.2~0.4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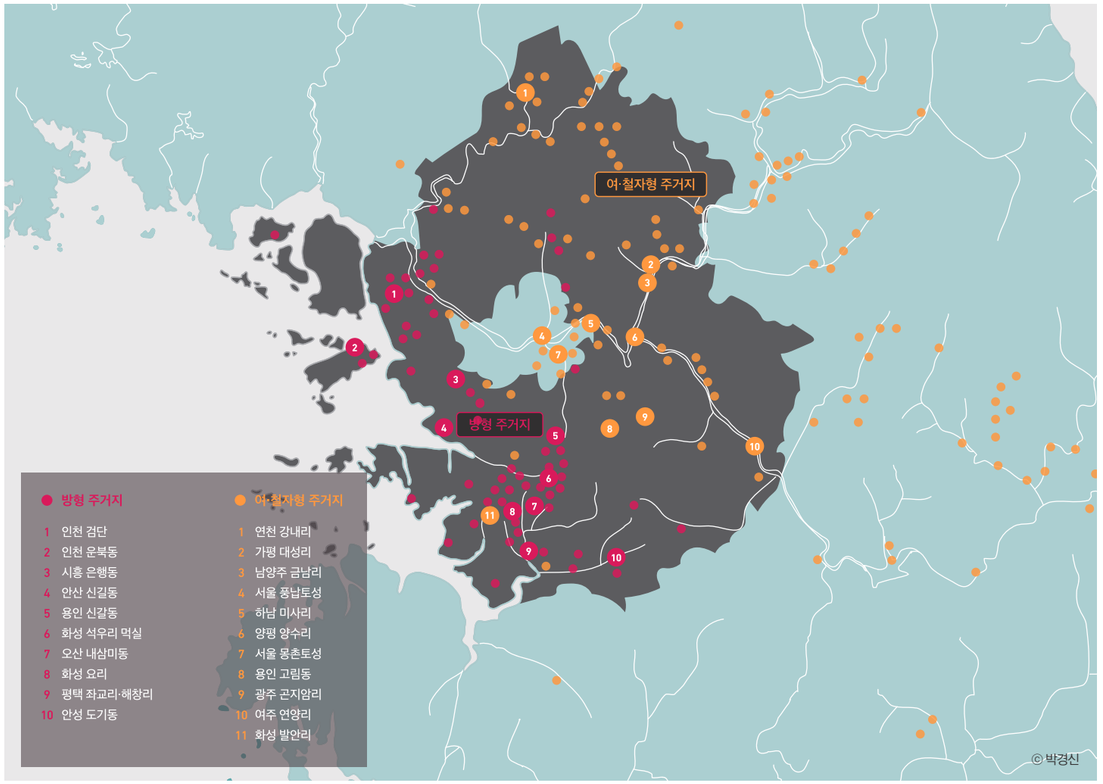
청동 말모양 허리띠고리

馬形帶鉤

Bronze Horse-shaped Buckle

—

평택 마두리 1호 토광묘
2세기
길이 9.6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경기지역 마한의 주거지

Remains of Mahan dwelling in Gyeonggi area

삼한 사회의 일반 사람들은 반움집 초가지붕의 목조가옥이나 움을 파서 만든 흙방土室에서 생활하였다. 경기지역 마한의 주거지를 형태로 구분하면 두 가지로 나뉜다. 한강을 포함한 중동부 지역은 출입구가 돌출된 '여呂'·'철凸'자형 주거지들이 나타나고, 서해안과 충청권에 인접한 중서부 지역은 4개의 중심기둥이 있는 방형 주거지四柱式 住居址가 분포한다.

방형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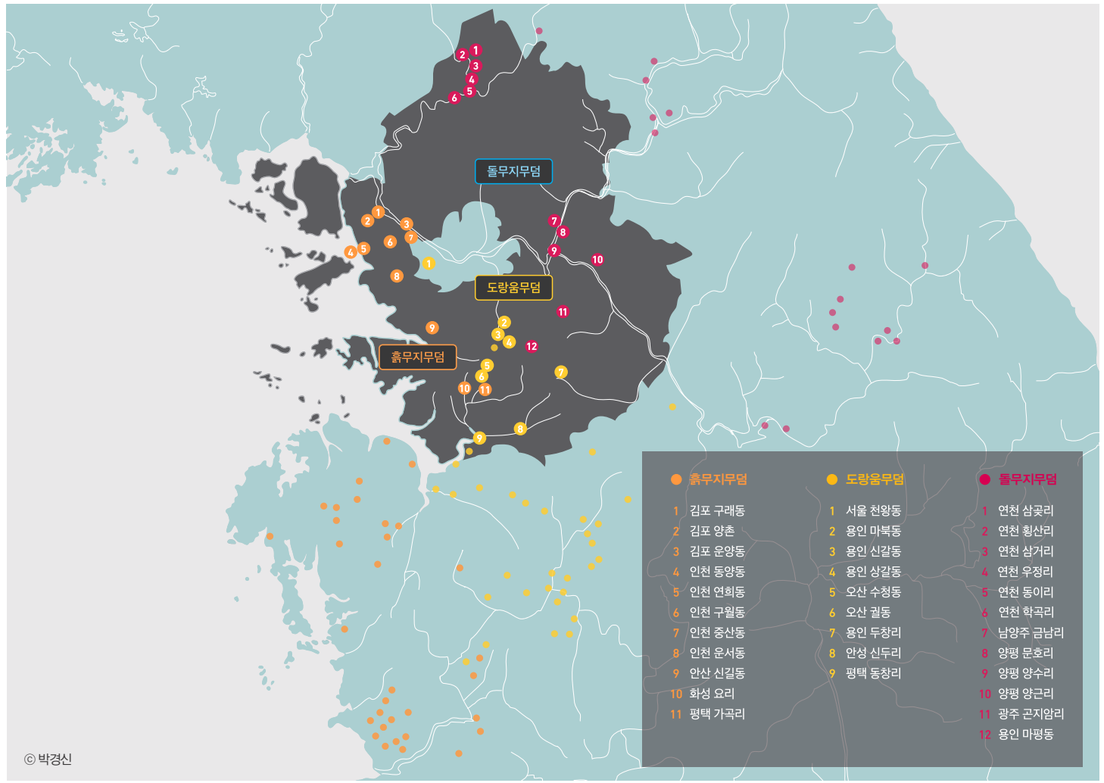
복원도

양주 옥정동 2구역 15호 주거지

여呂자형 주거지

복원도 © 한성백제박물관

미사리 A지구 1호 주거지(남-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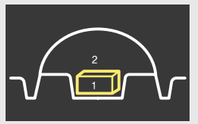
경기지역 마한의 무덤

경기지역 마한의 무덤 형태는 크게 흙무지무덤, 움무덤, 돌무지무덤, 독널무덤 등이 있다. 유적이 발견된 분포를 정리해보면 크게 3가지 지역군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인천·서남 해안지역에 위치한 흙무지무덤으로, 'ㅁ'자형으로 봉분을 쌓아 올린 후, 다시 봉분을 파고 나무널·나무덧널을 설치한 형태이다. 두 번째는 경기 남부와 충청 내륙지역에 분포하는 도랑움무덤으로 봉분 주위에 'ㄷ'자형·반원형의 도랑을 파고, 가운데 땅을 파서 그 안에 나무널·나무덧널을 설치한 모습이다. 세 번째는 경기북부와 영서지역에서 발견되는 돌무지무덤으로 돌을 쌓아 만든 하나의 큰 분구 속에 수십·수백 여 기의 집단 돌덧널무덤을 조성한 것이다. 이 밖에 일부 독널무덤도 확인된다.

흙무지무덤 墳丘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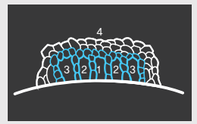
김포 운양동 1-11지점 12호

도랑움무덤 周溝土壙墓



오산 궐동 5지점 1호

돌무지무덤 積石墳丘墓



광주 곤지암리

전문가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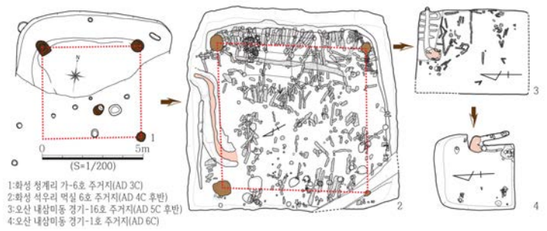
경기지역의 마한 소국을 말하다

박경신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학예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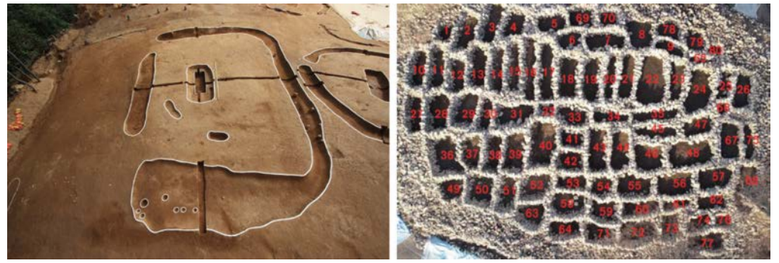
원삼국시대 중부지역은 한예韓濊 정치체政治體가 소국 형태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중부지역은 집자리, 무덤, 유물의 조합 양상에서 서부와 동부로 문화권이 양분되는데 대체로 서부는 마한계, 동부는 예계문화권으로 나뉜다. 원삼국시대 중부지역의 서부에 위치한 경기도는 마한의 54개 소국이 연맹을 이루고 있었다. 마한 각 소국의 위치를 정확하게 비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최근 조사된 마을, 무덤, 출토유물 등의 분포 양상을 통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지역 정치체의 존재는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백제가 고대국가로 성장한 이후에도 마한의 소국들은 일시에 해체되지 않고, 백제와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한의 세력권에 속해 있었던 경기도 서부마을의 집자리는 네모꼴에 4개의 기둥을 배치한 소위 "네기둥식집자리四柱式住居"로 대표된다. 이에 비하여 예계 문화권에 속한 동부마을은 "여철자모양집자리呂凸字形住居"가 유행한다. 그리고 서부마을은 흙무지무덤墳丘墓과 도랑움무덤周溝土壙墓을 만들어 주검을 묻었다. 동부마을은 돌을 쌓아서 여러 개의 무덤방을 만든 "돌무지무덤積石墳丘墓"이 유행한다. 한편, 원삼국시대 토기를 굽던 가마는 모두 서부마을에서만 발견되어 동부마을과 크게 대비된다. 이처럼 서부와 동부는 일상생활과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마한의 출발 시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중국의 역사책을 통해 볼 때 적어도 기원전 2세기대에는 분명히 마한이 존재했다. 최근에는 삼각형점토띠토기가 등장하는 기원전 3세기부터 마한이 출발했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마한 시기에 처음 등장한 집자리는 인천 운북동 유적에서 확인되는데, 네모꼴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벽면에 붙어 있는 화덕을 사용하였다. 이후 안성 중복리 유적 등의 사례로 볼 때 소형의 네기둥식집자리는 기원후 2세기 후엽에 등장한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화덕을 사용한다. 기원후 4세기 중엽에는 대형의 네기둥식집자리가 등장하는데 화덕은 점토로 만든 외줄구들이 사용된다. 기원후 5세기 후반부터는 네기둥식의 정형성이 보이지 않는 집자리와 생토를 파서 고래를 만든 기반토식 외줄구들이 사용된다. 한편 동부마을의 여철자모양집자리는 안양천을 따라 황구지천으로 확산되고, 다시 안성천 본류, 곡교천까지 전파되는 양상을 보인다.



경기 남부지역의 무덤은 초기철기시대 움무덤을 계승하여 사용하다가 기원후 2세기 후엽부터는 도랑움무덤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한다. 특히 도랑움무덤이 등장하면서 등고선과 나란히 무덤방을 쓰는 모양으로 통일되는데, 오산천의 무덤들은 이전 전통을 계속 유지하여 등고선과 직각을 이루는 무덤방이 오랫동안 유지된다. 이처럼 경기 남부지역은 하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무덤이 공존하게 된다. 한편 경기 서부의 서해안을 따라서는 분구무덤이 유행하여 남쪽의 도랑움무덤과 대비되는 현상을 보인다. 그런데 기원후 4세기 중엽 백제의 돌덧널무덤石槨墓이 경기 남부지역을 장악하면서 마한의 무덤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마한(서부마을) 흙무지무덤과 예계(동부마을) 돌무지무덤

경기지역에 있었던 마한 54국의 위치 비정은 어렵지만,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54국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면서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는 마한 소국의 위치를 정확히 비정할 수 없다. 다만 마을과 무덤들의 분포가 집중되는 파주, 김포, 인천의 북쪽 및 서쪽 세력권과 안성천, 진위천, 황구지천, 오산천의 경기 남부 세력권으로 크게 대별할 수는 있겠다. 그리고 특징적인 모양의 토기들이 일정한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는 점도 마한 소국의 존재를 대변해 주고 있다. 특징적인 모양의 토기인 이형토기異形土器는 파주, 김포, 인천 등 경기 서부지역의 마을에서만 발견된다. 이에 비하여 "뚜껑굽다리항아리有蓋盖附盃"는 오산, 평택, 안성, 아산지역 등 경기 남부지역의 무덤에서만 발견된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품을 담았던 백색토기白色土器는 파주, 김포, 인천 등 경기 서부지역에서만 발견된다.

마한은 한성백제가 건국한 초기에는 백제의 간접지배 대상지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백제가 본격적인 남하정책을 펼치는 기원후 4세기 후반부터는 백제의 직접지배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이 시기부터 백제의 무덤과 토기가 폭넓게 파급되면서 마한은 점차 소멸하게 된다. 한편 낙랑군이 설치된 초기에는 마한이 서해안을 따라 만들어졌던 무역길을 장악하면서 중국과의 교역이 차단된다. 그러나 기원후 2세기부터 마한과 중국 및 낙랑의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철기, 토기, 장신구 등 다양한 물질자료가 서부마을에 들어오게 된다. 서해안 무역길의 복원은 곡교천–미호천–낙동강 중상류로 연결된 무역길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나 백제에 흡수된 마한의 교역길은 고구려 및 신라가 침투하는 주요 교통로로 사용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로 이어졌다.

제3부

마한에서 한성 백제로

From Mahan to Hanseong Baekje

3세기말에서 4세기경에 이르면 마한의 54개 소국 중 하나였던 백제국伯濟國이 고대국가 백제百濟로 도약한다. 백제의 성장은 기존 지역 세력인 마한의 소국들을 통합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때 각 지역에 자리하고 있던 마한 소국은 차츰 백제의 지방地方으로서 고대국가 백제라는 새로운 질서에 들어가게 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백제가 고대국가로 돌입한 직후 경기지역을 직접 지배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최근 발굴 성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백제 한성기 이후 경기지역의 물질문화는 백제 중앙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으나, 여전히 마한의 토착적 지역문화가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즉, 마한 소국이 병립했던 시간 이후에 전개된 고대국가 백제의 시간 속에서 백제와 마한의 관계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은 백제에 의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마한 소국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By the 4th century BC, Baekje, one of the 54 tribal states of Mahan, became a full-fledged state. The expansion of Baekje was made through the integration of statelets belonging to the Mahan confederacy that had been local powers. The statelets, once the members of the Mahan confederacy across different areas, were gradually incorporated into the new society of Baekje. In the previous studies, it was viewed that Baekje started to directly control the Gyeonggi region immediately after it became a state. However, the latest discoveries suggest that the material culture after the Hanseong Period found in the Gyeonggi region has the influence of the central Baekje, but also the characteristics of aboriginal culture from Mahan. In the ancient state of Baekje after consolidating the Mahan confederacy, the relationship of Baekje and Mahan changed to that of 'central' and 'regional'. However, such process should be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diverse interactions rather than unilateral actions.

마한의 백제국에서 고대왕국 백제로, 몽촌토성과 석촌동 고분

From a statelet to ancient kingdom of Baekje, Mongchontoseong and Seokchon-dong tombs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안에 위치한 몽촌토성은 자연구릉을 이용하여 쌓은 성으로 길이가 전체 2,383m에 달한다. 몽촌토성이 사용된 시기는 4~5세기이다. 몽촌토성은 이웃한 풍납동 토성과 더불어 북성北城-풍납동 토성과 남성南城-몽촌토성으로 짝을 이루며 당시의 '서울'인 한성漢城을 구성하였다.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발굴한 북문터 일대에서는 성 안을 계획적으로 구획한 대규모 포장도로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궁宮'자가 찍힌 곧은입짧은목항아리, 배수관 역할을 하는 토관土管, 왕성 안 주요 건물을 장식했을 굴뚝 장식 등의 유물이 출토되어 왕성으로서 면모를 보여준다.

석촌동 고분군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48번지 일대에 위치한 백제 한성기 왕실의 묘역으로 3~5세기경에 조성되었다. 2015년부터 한성백제박물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많은 성과가 쏟아졌다. 석촌동 고분군은 수십 기의 돌무지무덤積石塚이 서로 맞닿아 이어진 연접식 돌무지무덤으로 밝혀졌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 안에서만 100m 넘는 규모가 확인되었다. 또한 축조 과정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대량의 항아리와 접시, 기와, 철제 무기류 등의 유물을 매납한 의례공간도 확인되었다.

몽촌토성

41

'宮'자가 있는 곧은 입 항아리편

'宮' 字銘直口壺片

Jar with Straight Mouth and Inscription of '宮'

—

서울 몽촌토성 삼국 7호 수혈
4~5세기
길이 8.0, 너비 12.0
한성백제박물관 발굴·소장

석촌동 고분군 발굴조사 구역

연접적석 1호 매장의례부 전경

42

세발토기

三足器

Vesse

—

서울 몽촌토성 삼국 8호 수혈
4~5세기
높이 7.5, 최대 지름 25.0
한성백제박물관 발굴·소장

43

금 귀걸이

金耳飾

Gold Earring

—

서울 석촌동 고분군 1호 매장의례부
3~5세기
길이 4.2, 너비 2.5
한성백제박물관 발굴·소장

44

짧은 목 항아리

短頸壺

Short-necked Ja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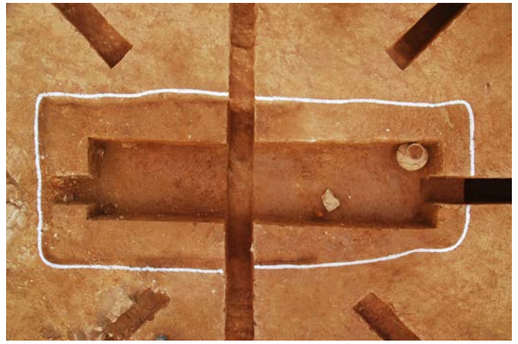
서울 석촌동 고분군 1호 구획적석목곽묘
3~5세기
높이 18.6
한성백제박물관 발굴·소장

거대한 사주식 주거지, 시흥 은행동·계수동

Remains of giant four-pillar type dwelling and double-rimmed jars, Eunhaeng-dong and Gyesu-dong, Siheung

시흥 은행동·계수동 유적은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과 계수동 일원에 위치하며, 2012~2015년 가야문물연구원이 발굴조사하였다. 백제 한성기의 거대한 사주식四柱式 주거지를 비롯해, 고상건물지, 수혈유구, 흙무지무덤墳丘墓, 덧널무덤木槨墓, 토기가마 등이 다수 발견되어 당시 마을의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방형으로 경기지역에 가장 거대한 사주식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내부시설은 벽구, 기둥구멍, 부뚜막, 아궁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흙무지무덤은 구릉 정상부와 중단부에 위치하며 평면 형태가 주로 방형이며, 매장주체부는 덧널무덤이다. 출토된 토기류와 철기류로 보아 3세기 중·후엽~4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토기가마는 수평연소식으로 연소실과 소성실 사이에 얕은 단을 갖춘 구조이다. 이곳에서는 독특한 형태의 겹아가리항아리二重口緣壺가 제작되어 일상생활에 사용되거나 무덤에 부장되었음이 확인되었다.

C구역 전경



C구역 삼국시대 주구묘 1호

45

겹아가리 단지

二重口緣壺

Double-rimmed Jar

—

시흥 은행동 삼국시대 주구묘·목곽묘
3세기 후반~4세기
높이 27.3, 입지름 15.3(좌)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마한의 전형적인 네모난 주거지가 있는 유적, 인천 남촌동 고래실골

Remains of typical Mahan Square-shaped dwelling, Goraesilgol, Namchon-dong, Incheon

인천 남촌동 고래실골 유적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24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2018년 백두 문화재 연구원이 발굴하였다. 원삼국~삼국시대 생활유구가 주로 발견되었는데, 주거지, 수혈유구, 고상 건물지 등이다. 주거지는 평면이 방형인 4주식 주거지가 총 46기가 발견되는데, 주로 서해안을 따라 호남·호서지역에 분포하는 마한의 주거지로 불린다.

여러 기의 주거지 중에서 28호는 남아있는 길이만 14m에 달하는 대형 주거지로, 집단의 권력계층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출토유물로는 계란모양토기, 호형토기, 깊은 바리, 이형토기, 환옥, 시루, 연통, 가락바퀴, 주조철부 등이 있다. 주거지와 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고래실골 유적은 3세기 중엽~5세기 중엽까지 동일 구릉 내에서 그 중심 입지를 달리하며 축조와 폐기를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마을을 형성해 온 것으로 추측된다.

조사지역 원경

원삼국~삼국시대 28호 주거지 전경

46

이형토기

異形土器

Differently-shaped Pottery

—

인천 남촌동 고래실골 28호 주거지
4세기
복원구경 32.8, 저경 13.8
백두문화재연구원 발굴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47

새 발자국 무늬 암키와

鳥足文 平瓦

Concave Tile with Bird Footprint

—

인천 남촌동 고래실골 107호 주혈
4세기
길이 12.8, 너비 12
백두문화재연구원 발굴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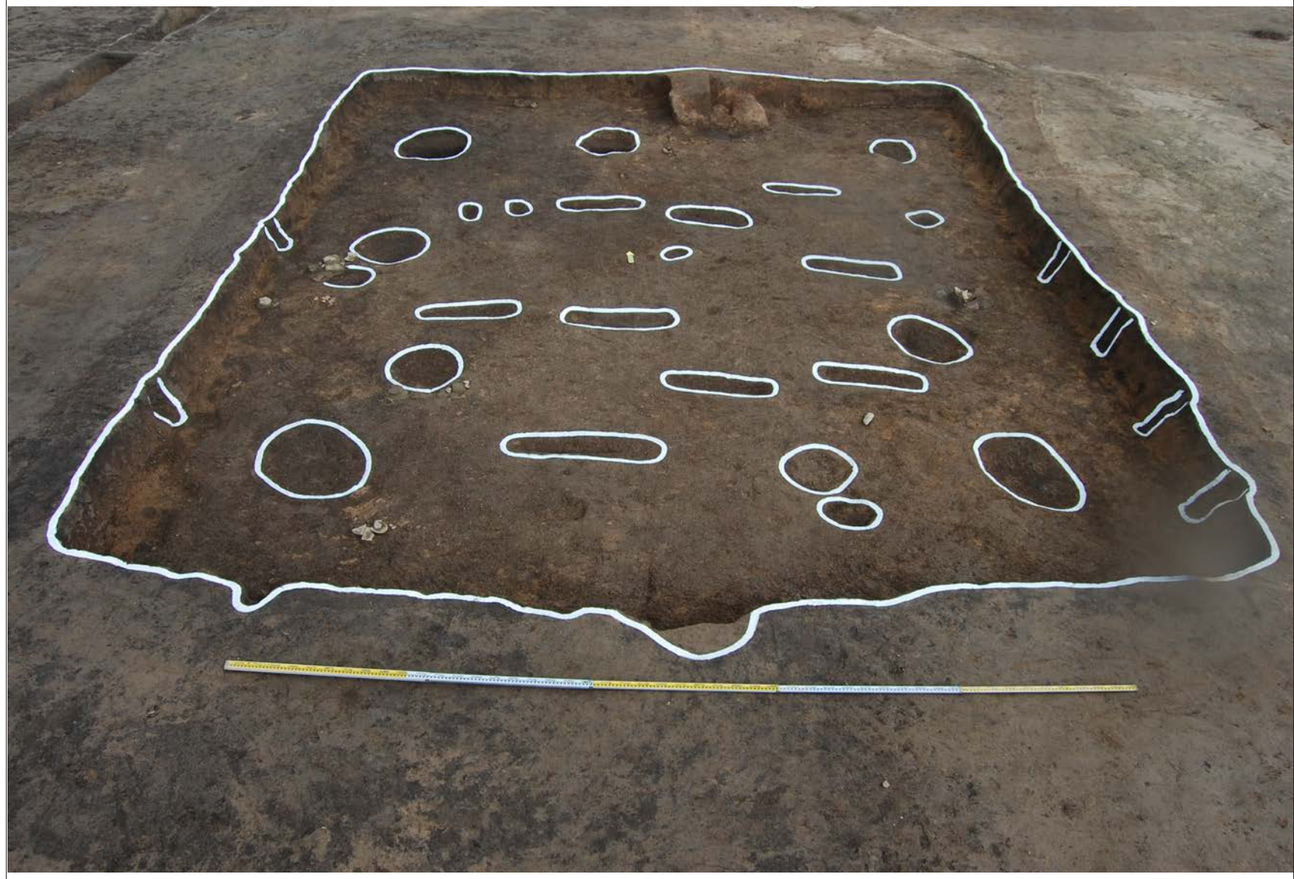
경기 북부로 이주한 사주식 마을사람들의 흔적, 양주 옥정동

Traces of people who migrated to northern Gyeonggi area and lived in four-pillar type dwelling, Okjeong-dong, Yangju

양주 옥정동 유적은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산32-3번지 일원으로, 2008~2010년 한국문화유산연구원에서 발굴하였다.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수혈유구, 구상유구가 다수 발견되었다. 방형 평면에 주요 기둥 구멍이 4개를 이루는 사주식四柱式 주거지가 16기로 주를 이루며, 그 외에 장방형, 육각형, 철凸자형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특히 방형의 4주식 주거지는 경기 북부에서는 발견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남쪽에서 이주한 집단이 만든 마을일 가능성이 높다.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 시루, 깊은 바리, 곧은입항아리直口壺, 붉은색 유리구슬, 철로 만든 농기구 등이다. 유물은 마한계토기와 한성양식토기가 혼재하고 있어 4세기 전엽~5세기 전엽에 걸쳐 형성된 마을 유적으로 추정된다.

2구역 전경



2구역 15호 주거지

48

사발

盌

Bowl

—

양주 옥정동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4세기 전엽~5세기 전엽
높이 5.2, 입지름 13.2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49

곧은 입 항아리

直口壺

Jar with Straight Mouth

—

양주 옥정동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4세기 전엽~5세기 전엽
높이 11.2, 입지름 18.0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50

경질무문토기 단지

硬質無文土器 甕

Plain Harder Pottery Jar

—

양주 옥정동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4세기 전엽~5세기 전엽
높이 32.4, 입지름 22.0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51

경질무문토기 항아리

硬質無文土器 壺

Plain Harder Pottery Jar

—

양주 옥정동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4세기 전엽~5세기 전엽

금동관과 금동신발이 발견된 무덤, 화성 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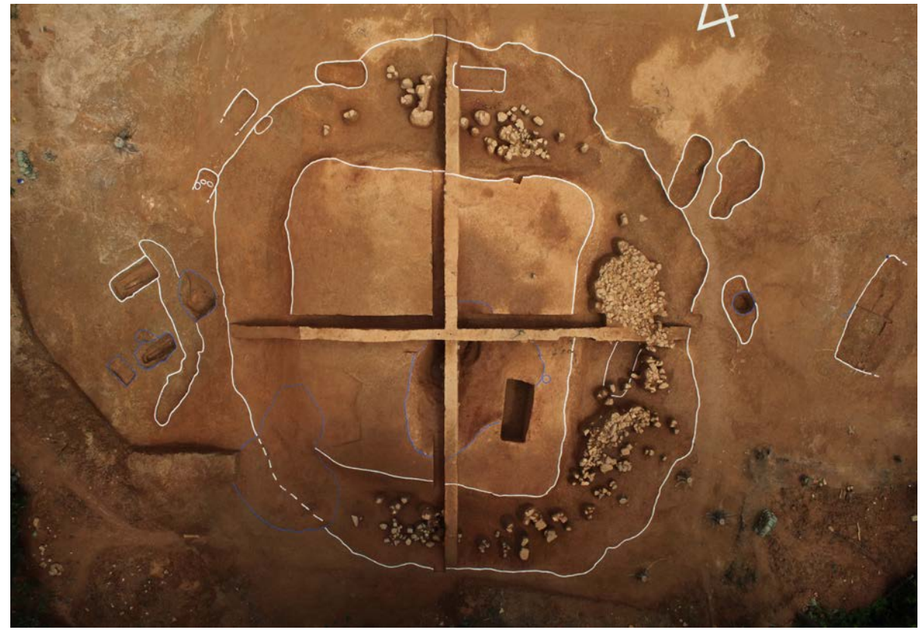
Tomb where gilt-bronze crown and ornamental shoes were discovered for the first time in Gyeonggi-do, Yo-ri, Hwaseong

화성 요리 유적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요리 ·상두리·화리현리 일원에 위치하며, 2014년 한국 문화유산연구원이 발굴하였다. 백제 한성기 최대 규모의 지방 성곽인 길성리 토성에 인접해 있으며 흙무지무덤填丘墓이라고 불리는 큰 무덤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위성처럼 둘러싸고 분포하는 널무덤

목관묘木棺墓와 덧널무덤木槨墓 7기, 그리고 독널무덤甕棺墓 1기가 발견되었다. 금동관과 금동신발이 발견된 1호 덧널무덤도 그 중 하나이다. 1호 덧널무덤은 길이 507cm, 복원 너비 310cm로 경기지역에서 확인된 덧널무덤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무덤의 내부에서는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금동관金銅冠帽과 금동신발金銅飾履을 비롯해서 금귀고리金製耳飾, 고리자루칼環頭大刀, 깊은바리深鉢가 확인되었다.

금동관은 백제 영역에서 단 9점만 출토되었으며, 경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금동관과 금동신발은 백제 중앙에서 지방의 유력자에게 나누어 주어 포섭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지방을 유연하게 통치하는 매개체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지방의 유력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며 중앙세력의 인정을 받는 진귀한 신물이었을 것이다.

유적 전경



| 지점 전경

| 지점 1호 목곽묘

52

금동관
金銅冠帽

Gilt-bronze Cap

—

화성 요리 I 지점 1호 목관묘
백제 4세기 후반
추정높이 24.6, 추정 너비 17.0
화성시역사박물관 소장

재현품, 화성시역사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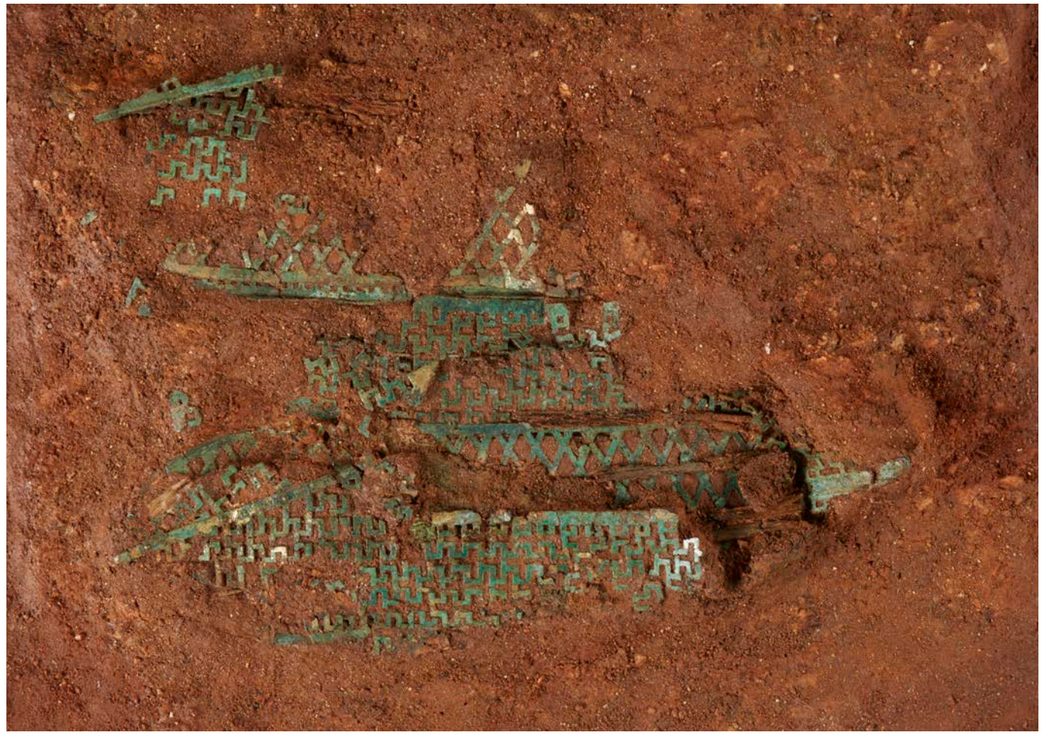
53

금동신발
金銅飾履

Gilt-bronze Shoes

—

화성 요리 I 지점 1호 목관묘
백제 4세기 후반
추정 길이 30.0, 추정 너비 8.7
화성시역사박물관 소장



재현품, 화성시역사박물관 소장

54

깊은 바리, 고리자루 큰 칼, 쇠도끼, 재갈 등

深鉢形土器, 環頭大刀, 鐵斧, 轡

Deep Bowl, Sword with Round Pommel, Iron Axe, Iron Bit

—

화성 요리 I지점 1호 목곽묘
백제 4세기 후반
높이 13.5(바리), 길이 86.0(환두대도), 길이 9.5–10.6(도끼)
화성시역사박물관 소장

경안천 유역 백제의 세력 확장, 용인 고림동

Expansion of power of Baekje in the Gyeongan Stream basin, Gorim-dong, Yongin

고림동 유적은 경기도 용인시 고림동 735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경안천과 양지천이 합수 되는 지점의 충적대지상에 해당한다. 2008~2009년 한신대학교박물관이 발굴하여 원삼국 시대부터 백제 한성기에 해당하는 주거지 총 31기를 비롯하여 저장구덩이, 구상유구 등을 확인하였다. 평면의 형태는 타원형 화덕이나 'ㄱ'자형 구들 또는 일자형 부뚜막 시설을 갖춘 장방형과 육각형이 있으며, 돌출된 출입구가 있는 여呂자형 또는 철凸자형이 대부분이다. 주거지 중에는 장축 20m에 달하는 초대형이 존재하며 곧은입항아리, 굽다리접시, 그릇 받침 등 다양한 기종의 한성양식토기, 유약을 바른 도기, 아궁이테, 그리고 철제 농경구와 무기를 비롯하여 철기 생산과 관련이 있는 송풍관, 노벽편 등이 출토되었다. 유약을 바른 도기는 서울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제외하면 서울·경기지역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흑색 간토기의 경우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었던 매우 특수한 고급 기종으로 백제 한성기에 중앙과 지방이 긴밀한 관계를 가졌음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그리고 주거지와 수혈유구 에서 발견된 탄화 작물을 분석한 결과 쌀, 보리, 밀, 콩, 팥, 조, 피, 기장 등 다양한 종류의 작물이 발견되었다. 고림동 유적은 3~5세기 동안 존속했으며 경안천 유역의 마을 유적 중 한성 백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중심 마을유적이다.

조사지역 전경

B구역 9호 주거지 전경

55

곡봉형 허리띠고리

曲棒形帶鉤

Curved Rod-shaped Belt Hook

—

용인 고림동 B2 구상
3~4세기
길이 14.8
한신대학교박물관 발굴

56

유약을 바른 토기

施釉陶器

Glazed Earthenware

—

용인 고림동 B23 수혈 등
중국 동진東晉 4세기 후엽~5세기 전엽
높이 4.2~10.1
한신대학교박물관 발굴

57

대롱옥, 환옥

管玉, 瑪瑙製珠

Tubular Jade, Agate Bead

—

용인 고림동 B5 주거지, B11 주거지
4~5세기
길이 4(대롱옥), 길이 1.3(환옥)
한신대학교박물관 발굴

58

시루, 계란모양 토기

甑, 長卵形土器

Steamer, Egg-shaped Vessel

—

용인 고림동 B73 수혈(시루), B2 구상(토기)
4~5세기
높이 30.8(시루), 높이 38(토기)
한신대학교박물관 발굴

59

아궁이 장식

爐址用 土製品

Fireplace Frame

—

용인 고림동 B7주거지
4~5세기
장 88.8, 폭 47.9
한신대학교박물관 발굴

60

사발

盌

Bowl

—

용인 고림동 A9 주거지 등
4~5세기
높이 4.4~4.9
한신대학교박물관 발굴

61

굽다리접시

高杯

Mounted Dish

—

용인 고림동 C10 수혈
4~5세기
높이 6.6~8.4
한신대학교박물관 발굴

백제의 경기 남부 전략거점, 화성 소근산성

Baekje strategic base in southern Gyeonggi area, Sogeun Fortress site, Hwaseong

소근산성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산18번지 일대로 2008~2009년 경기도박물관이 발굴하였다. 발굴조사에서 산성의 규모와 백제 한성기의 주거지, 수혈유구, 구상유구 등을 확인하였다. 산성은 총 15,130㎡의 면적에 성벽의 길이는 629m이고, 성벽은 판축공법* 으로 축조하였다. 소근산성에서 확인된 주거지는 평면이 방형으로 백제 한성기에서도 4세기 후엽~5세기 후엽에 해당된다.

발굴된 유물 가운데 토기는 그릇받침器臺, 곧은입항아리, 굽다리접시, 세발토기, 병, 뚜껑, 돌절구 등 백제 한성기에 확인되는 기종이 대부분 확인되었다. 특히 생활용 토기보다는 의례용 고급기종의 비율이 더 높은 편이며 절반가량은 의도적으로 타격한 흔적이 뚜렷하여 제의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근산성에서는 철기도 풍부하게 출토 되었는데, 주로 무기류의 비중이 크다. 등자, 비늘갑옷札甲, 쇠손칼, 삽날, 쇠화살촉, 쇠도끼, 꺾쇠, 쇠솥, 쇠로 만든 부뚜막 장식 등으로 다양하며, 특히 다량의 쇠화살촉이 산성 전역에서 확인되었다.

*판축공법 : 나무로 틀을 짜서 틀 내부를 견고하게 다지는 전통 토목기술

조사지역 전경

조사지역 근경

62

토기류

土器類

Pottery

—

화성 소근산성
4세기 후엽~5세기 후엽
경기도박물관 발굴·위탁

63

화살촉

鐵鏃

Iron Arrowhead

—

화성 소근산성
4세기 후엽~5세기 후엽
길이 7.0~11.9
경기도박물관 발굴·위탁

64

쇠도끼

鐵斧

Iron Axe

—

화성 소근산성
4세기 후엽~5세기 후엽
길이 14.8~19.9, 너비 4.9~5.4
경기도박물관 발굴·위탁

65

돌절구와 공이

石臼石杵

Stone Mortar and Pestl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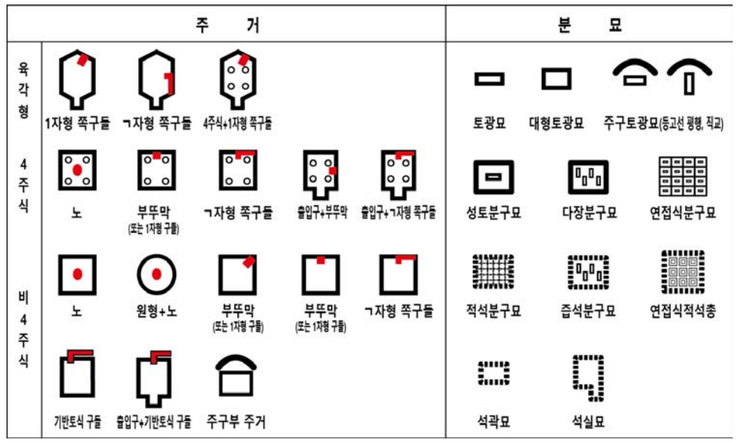
화성 소근산성
4세기 후엽~5세기 후엽
높이 14.5, 입지름 11.5(절구), 길이 13.2(공이)
경기도박물관 발굴·위탁

전문가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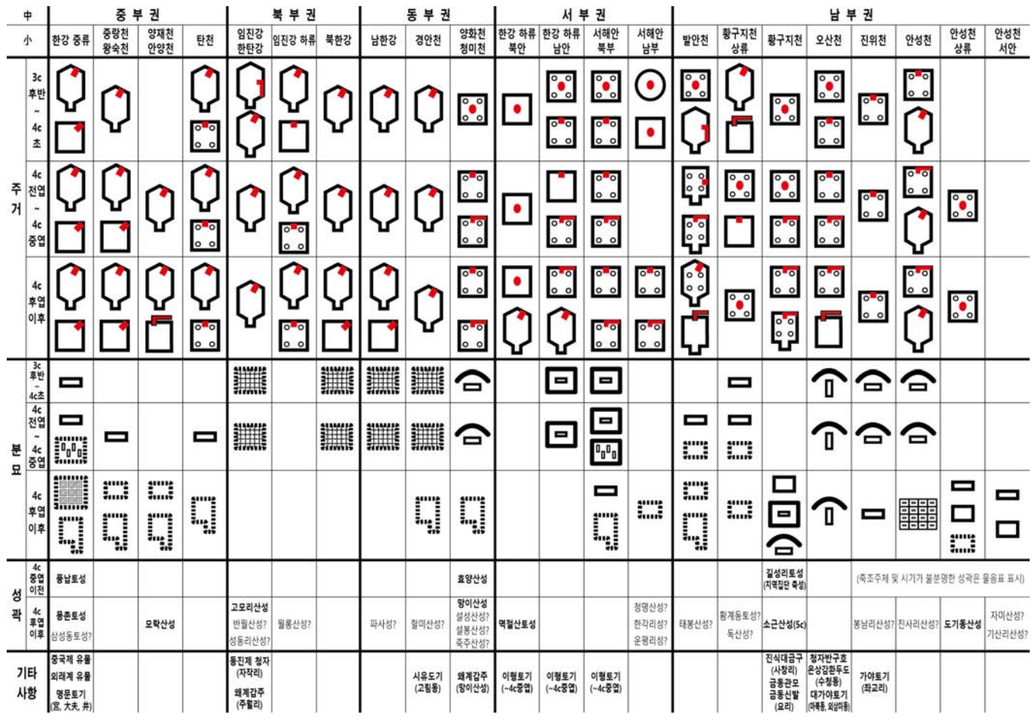
경기지역 백제 한성기 물질문화의 지역성

이혁희 (한성백제박물관 학예연구사)

경기지역의 백제 한성기는 마한 소국의 한 구성분자였던 백제국伯濟國이 고대국가 백제로 거듭난 시기이다. 경기지역은 고대국가 성립 초기부터 백제의 영역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발굴조사를 통해 주거지나 무덤 등과 같은 고고학적 물질자료가 축적되며 다른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경기지역에서 벌어졌던 백제의 중앙과 지역집단 간의 관계, 또는 지역집단 사이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에서 확인되는 고고학적 물질자료의 지역성은 대체로 자연지리적 경계인 하천과 산맥을 경계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중부권(한강유역), 북부권(임진강, 한탄강, 북한강), 동부권(남한강, 경안천), 서부권(경기 서해안), 남부권(안성천)으로 나눌 수 있다.



경기지역 백제 한성기의 주거지와 무덤구조



경기지역 내 권역별 고고학적 물질자료의 지역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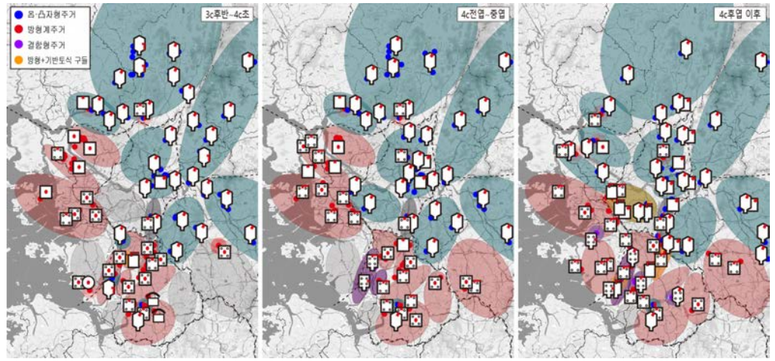
주거지의 지역성

우선 주거지를 살펴보면, 경기지역 내에서는 돌출된 출입구를 갖춘 육각형 주거지와 방형 주거지가 유행하였다. 양 주거지는 서로 다른 분포범위를 보이고 있다. 중부권, 북부권, 동부권을 중심으로 육각형 주거지가 분포하며, 서부권과 남부권을 중심으로 방형 주거지가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육각형 주거지는 한강유역과 강원도 영서지역, 영동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돌출된 출입구를 갖춘 '呂'자형, 또는 '여凸'자형 주거지의 한 유형이다. 여呂·철凸자형 주거지는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주 생활공간의 형태가 차츰 육각형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백제 한성기에 접어들며 육각형의 형태가 정형화되는 특징이 있다.

방형 주거지는 방형 또는 긴 방형 평면에 내부에는 4개의 중심기둥이 특징적인 '사주식 주거지'가 주로 확인된다. 사주식 주거지는 서부권의 시흥이나 인천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가 18m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로 확인되기도 하여 해당지역을 지배하였던 수장층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게 한다.

경기지역에서 확인되는 주거지의 지역성은 백제 한성기 전부터 형성되었으며,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양 분포권의 경계에서는 서로 다른 구조의 주거지가 함께 나타나거나, 서로의 구조가 섞이며 '결합형 주거지'가 등장하는 등 점이지대적 현상이 나타난다. 결합형 주거지는 출입구가 돌출된 주거지에 4개의 중심기둥이 조합된 형태이거나, 육각형 주거지 내부에 4개의 중심기둥이 설치된 구조가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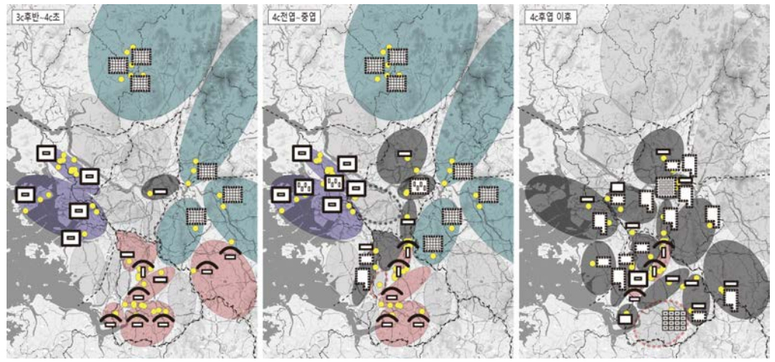


경기지역 내 주거지의 지역성과 전개과정

무덤구조의 지역성과 전개과정

다음으로 무덤을 살펴보겠다. 백제 한성기가 성립되기 전부터 돌무지무덤(적석분구묘), 흙무지무덤(분구묘), 도랑움무덤(주구토광묘)이라는 3가지 형태의 전통무덤이 분포하고 있었다. 돌무지무덤은 경기 북부권과 동부권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흙무지무덤은 서부권, 도랑움무덤은 남부권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3가지 전통 무덤의 분포권 사이의 공백지대인 중부권에서 움무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움무덤으로부터 시작하는 중부권은 다양한 무덤구조가 공존한다. 그것은 적석총, 즙석분구묘, 석실묘, 석곽묘 등으로서, 경기지역 내 전통무덤과는 판이한 구조이다. 이를 주목하면 이른 바 '백제계 분묘'로 설정할 수 있다. 중부권 내에서 확인되는 백제계 분묘의 전개과정을 정리하면, 백제 한성기의 왕실묘역인 석촌동 고분군을 정점으로 하는 무덤구조의 등급화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거대한 적석총을 필두로, 돌방무덤(석실묘), 돌널무덤(석곽묘)와 움무덤이 백제의 도읍이었던 한성을 중심으로 분포하였던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미 백제 한성기부터 무덤구조의 등급화뿐만 아니라, 왕족이나 최고 귀족의 무덤공간과 그 아래 계층의 무덤공간이 나누어지는 '묘역 분리현상'도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다.



경기지역 내 무덤구조의 지역성의 지역성과 전개과정

중부권에서 확인되는 무덤의 특징은 경기지역 내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호서·호남지역으로 시야를 확장하여도 돌출된다. 이러한 돌출적인 모습은 단지 무덤구조만이 아니다. 백제 한성기에 돌입하면서 물질문화 전반에 나타나는 새로운 문화의 창출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바로 왕성, 도성체제, 무덤의 등급화 구조, 한성양식토기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문화가 총체적으로 등장하며 다른 지역과는 차별된 특별한 공간을 형성한다. 중부권 내 물질문화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고대국가 백제의 '중앙'이 형성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중부권의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백제계 분묘는 4세기 초부터 중부권 전역과 남부권으로 확산되기 시작한다. 특히 남부권의 상황이 주목된다. 기존의 주구움무덤이 전통무덤으로서 유행하는 지역인 남부권에서는 '백제계 분묘'의 확산 과정은 단일하지 않고 매우 복잡하게 전개된다. 이를 대략 4가지의 사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전통무덤이 한성기의 늦은 시기까지 유지되는 사례, ② 전통무덤이 단절되고 더 이상 무덤이 나타나지 않는 사례, ③ 무덤구조가 전통무덤에서 백제계 무덤으로 변화하는 사례, ④ 무덤이 확인되지 않던 지역에서 새롭게 백제계 무덤이 나타나는 사례가 그것이다. 반면, 돌무지무덤이 주로 확인되는 북부권과 동부권이나, 흙무지무덤이 주로 확인되는 서부권은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4세기 후반의 어느 시점부터 전통무덤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으며, 백제계 무덤도 확인되지 않는 현상이 이어진다.

물질문화의 지역성과 상호작용의 의미

이렇듯 경기지역에서는 주거구조와 무덤구조가 다양하다. 특히 무덤구조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 당대 최고의 금공예품인 금동관과 금동신발이 백제 중앙과 인접한 화성 요리고분군에서 확인되는 현상을 더하면, 백제 중앙과 지역집단 사이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경기지역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물질문화의 지역성은 자연지리적 경계를 따라 형성된 마한의 전통적인 문화를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 고대국가 백제의 성립과 확산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며 복잡한 전개과정과 지역집단 사이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던 것이다.

흔히 고대국가가 성장하며 주변 지역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강제로 주입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일사분란하게 재편하는 모습을 그리게 된다. 고대국가 백제의 성장과정에서도 그러한 모습도 분명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백제는 갈등과 전쟁이라는 전략만을 고수하지 않았다. 과거 마한의 구성요소였던 지역집단을 고대국가 백제의 일원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다양한 관계를 맺거나, 합리적인 전략을 구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역 내 백제 한성기 물질문화의 지역성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따른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에필로그

2000년 전 마한馬韓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韓

마한의 유물 속에서 그 옛날 큰 칼을 차고 옥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옷에 상투를 튼

당당한 모습의 마한인들과 조우할 수 있다.

대한제국, 대한민국, 한민족의 한韓은 삼한의 '한韓'에서 시작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삼한三韓이라고 기록하기도 하였다.

1897년 고종이 황제를 칭하고 조선을 황제국으로 올리면서

나라 이름을 대한大韓이라 하였다.

이것은 삼한을 잇는 큰 한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이어졌다.

마한은 우리 역사 속에서 사라진 적이 없다.

논고

o unveil
rtful confederacy of statelets
.

짚어보니.

있다.
보게 되리라 기대한다.

We hope that this exhibition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write a new history of Mahan.

논고

중부지역 마한과 고대국가 백제

–마한지역 문화 특성과 백제영역화 과정을 중심으로–

이남규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명예교수

목 차

Ⅰ. 머리말
Ⅱ. 기존 견해들의 검토
Ⅲ. 마한지역 분묘와 주거지 양상
1. 분묘문화의 지역성
2. 사주식 주거지
Ⅳ. 백제 영역화의 몇 양상
1. 주요 진출루트의 개척
2. 구 마한지역의 영역화
Ⅴ. 맺음말–향후의 과제

Ⅰ. 머리말

한국고고학사 가운데 고대국가 형성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개의 획기들이 상정되는데 중부지역의 경우는 1997년~2000년의 기간에 풍납토성 내부가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백제도성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었고[1] 그와 함께 고고학과 고대사 분야에서 초기 백제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던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2].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인식되던 초기 백제 문화와는 다른 마한 계통 문화들이 경기 서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폭넓게 파악되기 시작한 점을 들 수 있다. 2000년 이후 김포·인천지역의 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분구묘를 중심으로 한 중요 유구들이 다수 조사되면서 그 범위는 화성, 안성지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오산, 용인은 물론 여주 등지의 내륙지역에서는 주구토광묘 내지는 토광묘 유적들이 계속 조사되어 기존에 백제 영역으로 알려졌던 지역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해졌다[3]. 그와 더불어 범마한적 특성을 갖는 사주식주거지도 밀도의 차이는 있으나 경기 남부, 서부 및 북부에 모두 존재하고 일부에서는 여철呂凸자형 주거지와 혼합된 형태로 확인되기도 하여 백제와 마한 문화의 시공간적 추이와 상관관계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상의 새로운 자료들은 백제의 고대국가 형성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고찰해야 하는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신지견들은 중부지역 초기 고대사 이해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는 결과를 낳았다[4]. 이는 현재 중부지역 고고학의 최대 이슈로서 백제 중심의 광의적 시각에서 논하던 기존 연구들[5]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어서 새로운 연구의 획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마한백제와 관련하여 도성을 위시한 성곽, 고분, 주거지 등의 유구들 제속성은 물론 다양한 유물들을 주제로 한 다수의 논문들이 발표되어 왔고 문헌사학 분야에서도 이에 관해 논고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으나[6] 고고학과의 간극은 그 폭이 아직도 너무 넓다.

본고에서는 이 모든 논의들 가운데 백제화에 대해 논한 기존 연구들의 몇 문제에 대해 간략히 검토해 보고 마한지역의 분묘와 주거지들이 갖는 역사문화적 의미를 살펴보겠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백제영역화의 몇 양상과 향후의 연구과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보고자 한다.

Ⅱ. 기존 견해들의 검토

그동안 초기백제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고학적 논고가 발표되어 왔는데 그 대부분이 상기한 마한권 문화에 대한 정보 없이 논한 사례들이어서 결정적 한계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분구묘·주구토광묘 및 토광묘와 같은 분묘들과 사주식주거지들이 폭넓게 분포한 경기도지역에서 백제의 국가형성과 마한병합 실태를 기존의 토광묘, 즙석식봉토분, 적석총, 석곽묘 및 석실분 만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게 되었다. 시공간적 자료가 부분적으로 밖에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앞서나가는 견해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유의미한 지적들이 있었음도 사실이지만 오류들 또한 결코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한 시기의 불완전한 자료들에 기초한 학술경향이라는 학사적 궤적을 남기는 결과가 되고 만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연구자들이 실증적 유적과 유물에 기초하지 않고 문헌에 의존하여 안이하게 해석하기도 하여 차제에 이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여기서 백제의 영역화과정 전반을 모두 다루는 것은 곤란하고 경기도지역을 중심으로만 2000년 이후 제시되었던 몇 견해들을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1 풍납토성 일원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는 한신대학교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풍납토성』Ⅰ~Ⅻ까지 발간된 상태이고 현재는 지속적으로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와 백제학연구소가 조사에 임하고 있다.

2 필자가 1997년의 삼화지구발굴과 1999~2000년의 경당지구 발굴에 참여한 바 있고 2015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한 풍납토성 세계유산화 작업에도 일부 관여하기도 하였는데 이 유적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여러 면에서 아직도 미흡하여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3 이를 주제로 한 개괄적인 논고(권오영, 2010「원삼국기 한강유역 정치체의 존재양태와 백제국가의 통합양상」『고고학』8-2호, 중부고고학회)가 발표 된 후 10여년간 새로운 지역들의 자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중부지역의 백제영역화가 다양한 마한 제세력들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어가고 있다.

4 사료에 근거하여 지방통치체제를 논하거나 위세품 사여방식 등에 의한 지방세력의 통제라는 단순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곤란해졌으며 다양한 상황전개에 대한 다원적 해석방식이 요구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5 崔夢龍·權五榮, 1986「考古學的 資料를 통해 본 百濟 初期 領域考察」『千寬宇先生還曆紀念論叢』; 金元龍, 1987「馬韓·百濟考古學의 發展」『馬韓·百濟文化』제10輯, 원광대학교 마한·백제연구소; 崔夢龍, 1989「漢城時代 百濟의 領域과 文化」『韓國考古學報』제22집, 한국고고학회; 權五榮, 1986「初期百濟의 成長過程에 관한 一考察」『한국사론』15, 서울大國史學科; 權五榮, 1988「4세기 百濟의 地方統制方式 一例」『韓國史論』18, 서울大國史學科; 임영진, 1993「백제 초기 한성시대 고분에 관한 연구」『한국고고학보』30, 한국고고학회; 林永珍, 1995「馬韓의 形成과 變遷에 대한 考古學的 考察」『三韓의 社會와 文化』, 新書苑; 朴淳發, 1994「한성백제 성립기 제묘제의 편년 검토」『선사와 고대』6, 한국고대학회; 朴淳發, 1998『百濟國家의 形成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朴淳發, 1999「백제 국가 성립에 대한 이해」『선사와 고대』12, 한국고대학회; 이현혜, 1997「3세기 馬韓과 伯濟國」『백제의 중앙과 지방』,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강현숙, 2001「한강유역 1~3세기대 묘제에 대한 일고찰」『동아시아 1~3세기의 주거와 고분』, 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김성남, 2001「부지방 3~4세기 고분군 세부편년」『백제연구』33,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김승옥, 2000「한성백제의 형성과정과 대외관계」『백제사상의 전쟁』, 서경문화사; 최몽룡, 2003「漢城時代의 百濟와 馬韓」『문화재』제36호, 국립문화재연구소; 林永珍, 2003「積石塚으로 본 百濟 建國集團의 南下過程」『先史와 古代』제19집, 한국고대학회; 박순발, 2007「墓制의 變遷으로 본 漢城期 百濟의 地方 編制 過程」『한국고대사연구』48, 한국고대사학회.

표 1. 백제 마한지역 영역화 과정과 관련한 몇 견해

번호	발표자	연도	중요 논점	비고
1	김성남[7]	2005	원거리 대상 '교섭체계 재편성 전략(A), 내부적 '복속전략(B)'. 중앙집권화의 4세기 중기 이후 B에 치중	위세품 사여 분묘 용인
2	임영진[8]	2006	3세기 중엽 마한권에 토광묘와 분구묘	분구묘 아산만권 이남
3	박순발 [9]	2007	백제 지방묘제 단독장 주구토광묘→집단장 주구토광묘→토광묘→수혈식석곽묘→횡혈식석실묘 순으로	중국도자기가 정치경제수단
4	권오영 [10]	2009	주거지는 주실의 평면형태가 방형·장방형·오각형·육각형 등 다양. 적석총·주구토광묘·주구 없는 목관(곽)묘 등 다양. 韓과 濊라는 두 가지 개념만으로 구별하려는 것은 무리	韓濊라는 표현은 韓과 濊의 통칭
5	송만영 [11]	2012	1세기 전반에 출현한 마한계 주거지는 5세기 후반까지 취사, 난방시설의 5단계 변화를 보이며 전개. 육각형주거지 A유형(탄천·경안천), B유형(마한지역)	마한지역 육각형주거지는 자발적 모방
6	조가영 [12]	2014	분구묘분포권과 주구토광묘분포권 구분설정	분구묘 충청북부와 비교
7	이남석 [13]	2016	3세기 즈음 주구토광묘가 등장하고, 주구토광묘의 고총고분적 전통의 영향으로 분구묘가 발생	남부 주구토광묘, 서부 분구묘
8	박지영 [14]	2017	백제가 마한의 각 지역 정치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확장전략 구사	C14연대 중점 사용
9	박중국 [15]	2018	중도문화·운양동문화·수청동문화 제시	중도문화에 중점

〈표 1〉의 제견해에 대해 간단히 검토와 첨언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은 아직 분구묘와 주구토광묘의 문화적 주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기에 제시되었던 견해였고, 2는 충청·전라지역의 분구묘는 파악하고 있었으나 경기도지역의 사례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시기의 한 견해라 할 수 있다. 3·4의 경우는 마한지역의 분묘에 대한 이해에 있어 경기도의 분구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상황을 보여주며, 5의 경우 주거지에 있어 예계(육각형)와 마한계(사주식)의 지역구분 설정에 의미가 있으나 그 이후 10년 사이에 신자료의 증가로 분포양상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졌다. 6의 경우 경기지역 분묘분포권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가운데 경기 서부와 남부에서의 분구묘와 주구토광묘의 분포권을 구분제시한 점이 주목되는데 최근에 경기남부와 동부에서 새로운 자료들이 추가되어 분포양상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해졌다. 7은 주구토광묘로부터 분구묘가 계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상호 편년상황을 보면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견해이다. C14연대를 기초로 해서 원삼국~삼국시대 마한·백제 권역 취락 분포의 시공간적 변화를 밝히려 한 8은 백제가 마한의 각 지역 정치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확장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본 점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차후 세밀한 지역적 연구를 통해 구체적 방증자료들을 제시해야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9는 원삼국시대 중부지역의 문화를 중도문화·운양동문화·수청동문화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평택 마두리유적[16]이나 오산 궐동유적[17] 전기 분묘의 경우와 같이 주구토광묘 이전의 단순토광묘문화도 포함하

6 이에 관한 최근의 연구 사례로 정동준, 2019 「문헌사료로 본 백제의 마한 통합 과정」 『백제학보』제29호, 백제학회를 들 수 있다. 기존에 문헌사 분야에서 마한·백제 관계에 대해 논한 주요 논고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朴英社; 千寬宇, 1976 「三韓의 國家形成 下」 『韓國學報』3, 일지사; 李鍾旭, 1976 「百濟의 國家形成」 『大丘史學』第11輯, 大邱史學會; 李賢惠, 1984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全榮來, 1985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盧重國, 1987 「馬韓의 成立과 變遷」 『馬韓百濟文化』제10輯, 원광대학교 마한·백제연구소; 李基東, 1987 「馬韓領域에서의 百濟의 成長」 『馬韓百濟文化』제10輯, 원광대학교 마한·백제연구소; 成周鐸, 1987 「馬韓初期百濟史에 대한 歷史地理的 管見」 『馬韓·百濟文化』제10輯, 원광대학교 마한·백제연구소;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千寬宇, 1989 『古朝鮮史 三韓史研究』, 一潮閣; 盧重國, 1994 「馬韓의 成立과 變遷」 『文山金三龍博士 古稀紀念論叢』; 李道學, 1995 『백제 고대국가 연구』, 一志社; 朴燦圭, 1995 「百濟의 馬韓征服過程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李基東, 1996 「百濟史研究」, 一潮閣; 李賢惠, 1997 「3세기 馬韓과 伯濟國」 『百濟의 中央과 地方』,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朴賢淑, 1998 「百濟 地方統治體制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金英心, 1998 「百濟 地方統治體制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姜鍾元, 1998 「4世紀 百濟 政治史 研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기섭, 2000 「백제와 근초고왕」, 학연문화사; 박찬규, 2001 「백제의 마한 사회 병합과정 연구」 『國史館論叢』第95輯, 국사편찬위원회; 노중국, 2003 「백제의 마한 복속과 지방지배 방식의 변화」 『한국사연구』120, 한국사연구회; 김기섭, 2018 「백제 국가형성사 연구 동향과 과제」 『東北亞歷史論叢』61, 동북아역사재단; 정동준, 2018 「백제 근초고왕대의 마한 영역화에 대한 사료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91, 한국고대사학회.

7 김성남, 2005 「百濟 漢城時代 南方領域의 擴大過程과 支配形態 試論」 『百濟研究』4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8 임영진, 2006 「마한 백제 고고학의 최근 연구 성과와 과제-백제의 영역 변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선사고고학보』12, 한국선사고고학회.

9 박순발, 2007 「墓制의 變遷으로 본 漢城期 百濟의 地方 編制 過程」 『한국고대사연구』48, 한국고대사학회.

10 권오영, 2009 「원삼국기 한강유역 정치체의 존재양태와 백제국가의 통합양상」 『고고학』8-2호, 중부고고학회.

11 송만영, 2012 「경기 남부 마한계 주거지의 변천」 『고문화』80,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2 조가영, 2014 「경기지역 마한 분구묘 사

회의 연구 성과와 과제」 『한국고고학의 신지평』, 제38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

13 이남석, 2016 「경기지역 3~5세기대 묘제환경의 검토」 『중앙고고연구』제21호, 중앙문화재연구원.

14 박지영, 2017 「백제의 확장과 주변부 취락 재조직 : 방사성탄소연대와 GIS 공간분석을 활용하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 박중국, 2018 「원삼국시대 중부지역의 고고문화와 지역집단」 『중부지역 물질문화와 지역성』, 2018년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중부고고학회.

16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1 『평택 마두리 유적』, 발굴조사보고 제10책.

17 中央文化財硏究院, 2013 『烏山 闕洞遺蹟』, 發掘調査報告 第199册.

18 목관묘가 20개소(서길덕, 2018 『한국 점토띠토기문화기 무덤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삼각형점토대토기유적 22개소(박경신, 2018 『原三國時代 中島類型 聚落의 編年과 展開』,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도가 알려져 있으나 이후의 원삼국시대 문화로 계기적 변화를 보이는 양상은 아직 불확실하다. 특히 예계지역은 처치하고 마한 분구묘지역에서의 단계적 문화변동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일부 주구토광묘지역에서는 토광묘→주구토광묘로의 변화양상이 파악되고 있다.

19 이에 대해 논한 논고(최성락, 2019 「고고학에 있어서 공백과 단절의 문제」 『한국상고사학보』제106호, 한국상고사학회)도 있으나 필자와는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20 김장석·김준규, 2016 「방사성탄소연대로 본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토기편년-중부, 호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100, 한국고고학회; 이창희, 2016 「탄소14연대를 이용한 중도식토기의 연대」 『한국기독교박물관지』 12,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1 분열적 상황에 대해 낙랑의 통제를 요인으로 지적하기도 하나(박순발, 1997 「漢江流域의 基層文化와 百濟의 成長過程」 『한국고고학보』제36집, 한국고고학회) 유적의 부재 내지는 부족상황에 대한 설명의 보완이 필요하다.

는 안이 필요해 보인다.

중부지역의 마한백제 문화과정에서 최대의 난점은 유적 수에 비해 청동기와 철기의 출토사례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 초기철기시대의 양상이 서남부지역에 비해 열위劣位의 위상을 보이고 있고[18],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의 유적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19].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편년방식의 수정을 논하기도 하고[20] 맥락적 이해의 측면에서 언급하기도 하나[21] 이를 보다 상세히 논한 사례는 별로 없다.

중부지역에서도 점토대토기문화가 고지성 취락을 중심으로 형성되기도 하나 청동기-전국계 철기를 소유하는 후기단계의 문화유적은 중서부 지역에 비해 그 수가 상당히 적은 주변적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렇듯 정치사회적 역량이 미약했다고 보여지는 문화집단의 존재 자체도 한사군이 설치된 이후에는 상당기간 동안 중부지역의 넓은 범위 내에서[22] 그러한 집단의 유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 앞서 지적한 제견해들에서도 이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못했던 점은 중부지역 고대국가 형성기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하여튼,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경기도지역의 분구묘, 토광묘와 주구토광묘 및 사주식주거지의 새로운 자료들이 속속 확인되고 그 분포범위가 개략적으로나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시점에서 중부지역 마한백제 문화현상의 세부적 양상들이 최근의 학술대회[23]를 통해 보다 상세히 정리될 수 있었던 점은 하나의 큰 연구 성과라 하겠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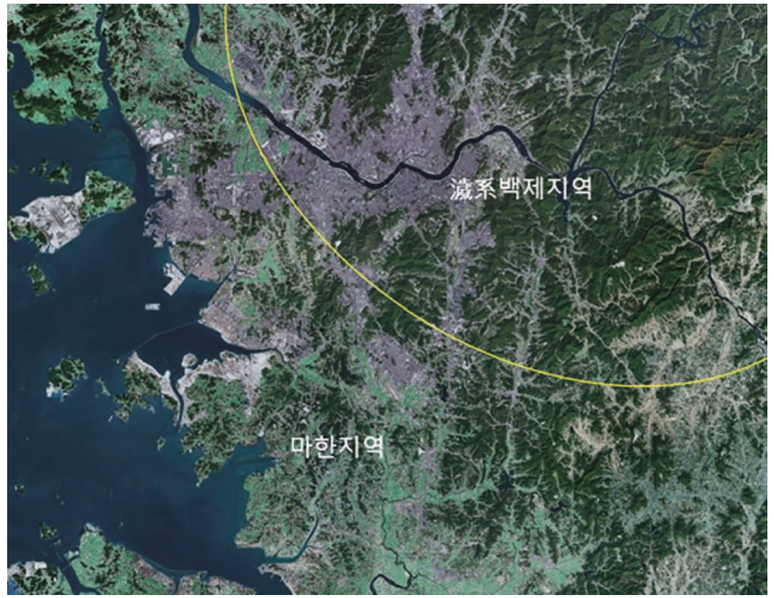


그림 1. 원삼국시대 중부지역 예계백제지역과 마한지역의 개략적 범위

Ⅲ. 마한지역 분묘와 주거지 양상

1. 분묘문화의 지역성

2010년 이후 중부지역 고대고고학에서 거둔 큰 성과 중 하나는 분구묘와 주구토광묘의 자료 증가에 힘입어 그 권역이 약간의 중복성을 보이면서 크게 구분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대체적으로 전자는 서부와 남부의 해양문화권에, 후자는 경기 남부와 동남부의 내륙문화권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한 연구들과 지역적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이들 두 분묘문화에 대한 양상과 몇 문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분구묘

분구묘는 1990년 후반까지 호서·영남·호남지역에서 확인되다가 2000년대 이후부터 중부지역에서도 그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하였다[24]. 그 개념 및 성격과 관련하여 '선분구 후매장' 내지는 '선매장 후분구'의 문제[25] 및 분류방식 등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어 왔다〈표 2〉.

표 2 분구묘의 제정의[26]

권오영	목관분구묘 · 목곽분구묘 · 옹관분구(식고)분 · 석실분구묘 등으로 명명
신대곤	저분구분과 고분구분으로 대별
이남석	분구옹관묘와 분구토광묘로 구분.
최성락	용어 채택에 비판적.
최완규	주구묘 · 이형분구묘 · 방대형분구묘 · 원형분구묘 등으로 세분함으로써 주구묘를 분구묘에 포함
최병현	호남지역의 고분을 봉토묘와 분구묘로 나누고 분구묘는 저분구묘에서 (분구)고총으로 변화.
최봉균	주구묘 · 주구토광묘 등을 모두 분구묘로 통칭

경기 서해안 일대의 분구묘들은 방형주구 내부에 목관 혹은 목곽을 대부분 단장으로 사용하고 토기 1~2점 및 일부 철기가 부장되는데 대형분에서는 환두대도가 출토되기도 한다. 부장유물은 초기에 마한계 유물이 출토되다가 4~5세기의 분묘에서는 전통묘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백제계 유물이 부장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체부의 성격에서 중서부지역과 차이가 있으면서 동시에 철서 등에서 문화적 상사성이 있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다[27]. 이러한 점 등에서 경기지역의 분구묘는 표 2에 제시한 범마한권의 다양한 제속성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고 단순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28], 그 기원과 전개과정 및 사용의 종언終焉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 연구의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 분구묘의 기원을 중국의 토돈묘와 관련시키는 견해도 있지만[29] 당시의 교역권과 해양교통로를 중심으로 대 이군二郡 관계를 볼 때 서북한지역과의 상관성을 우선 고려해

22 북한강역의 경우는 초기에 낙랑의 영향을 받는 유적들이 존재한다.(이우재, 2020 「북한강유역 낙랑계 토기의 지역성」,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3 경기문화재단 외, 2021 『최근 발굴성과로 본 경기도의 마한과 고대국가 백제』

24 2008년도의 인천지역 백제유적에 대한 이해상황(이희인, 2008 「인천지역 백제유적의 현황과 성격」 『고고학』7-1호, 중부고고학회)을 보면 대략 2010년경을 분기점으로 새로운 자료와 인식의 획기가 마련되었고 2010년대 전반기 이후 김포 운양동, 인천 연희동 등을 위시한 분구묘유적들이 김포와 인천에서 속속 조사되고 이를 기반으로 2014년도 제3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에서 마한지역의 도별 분구묘를 중심으로 한 패널발표회에서 경기지역 분구묘의 구조, 유물 및 사회에 대한 2인의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25 초기에 이성주가 두 종류로 구분한 바 있고(이성주, 2000 「분구묘의 인식」 『韓國上古史學報』32, 韓國上古史學會), 경기충청지역에서도 그러한 양상이 확인된다(임영진, 2011 「경기·충청지역 분구묘의 검토」 『墳丘墓의 新地平』, 전북대학교 BK21사업단·전북대학교박물관).

26 지혜, 2019 「김포·인천지역 마한 분구묘의 시공간적 특성」,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표1 내용을 정리한 것임

27 김기옥, 2014 「경기지역 마한 분구묘의 구조와 출토유물」 『한국고고학의 신지평』, 제38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 김일규, 2007, 「漢城期 百濟土器 編年再考」 『先史와 古代』27, 한국고대학회.

28 이에 추가하여 보고서에 따라 주구의 형태로 방형계와 원형계로 세분하는 경우도 있다(서경문화재연구원, 2013 「인천 연희동 유적」, 유적조사보고 제9책).

29 임영진, 2015 「韓·中·日 墳丘墓의 關聯性과 그 背景」 『백제학보』,제14집, 백제학회.

30 아직 억측단계이기는 하나 분구묘는 서북한 낙랑지역 방대형 고분과의 관련 가능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31 한울문화재연구원, 2018 『화성 송산리 유적』, 발굴조사보고 147. 이 유적에서는 구릉 상부의 분구묘와 사면의 주구토광묘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김포 양곡유적이나 인천 검단지구 유적조사에서도 유사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송산리유적 주구토광묘 묘광은 등고선과 평행하여 동측 황구지천 건너에 위치한 수청동고분군의 등고선 직교형과는 차별성을 갖는 점이 주목된다.

32 경기문화재단 외, 2021 『최근 발굴성과로 본 경기도의 마한과 고대국가 백제』

33 2008년도의 인천지역 백제유적에 대한 이해상황(이희인, 2008 「인천지역 백제유적의 현황과 성격」 『고고학』7-1호, 중부고고학회)을 보면 대략 2010년경을 분기점으로 새로운 자료와 인식의 획기가 마련되었고 2010년대 전반기 이후 김포 운양동, 인천 연희동 등을

야 할 필요가 있다[30]. 경기도 서부와 서남부의 분구묘들은 남부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서북한지역과 더 근접한 위치에 있어 보다 강한 영향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백제가 김포·인천 지역을 완전히 영역화한 이후 소멸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대체한 백제의 고분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라 할 수 있다.

〈표 3〉에서 보듯 경기지역 분구묘의 밀도가 김포·인천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 지역의 급속한 개발에 따라 조사사례가 많았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분묘들은 서해안을 따라 내려가면서 계속 분포하는 양상이어서 현재 확인된 상황이 과거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경기도의 분구묘 분포상을 보면 인천 이남의 시흥·안산·화성서부지역의 사례는 아직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고 화성 동남부의 송산리(그림 2)와 요리 일원에 하나의 작은 거점을 이루는 양상이며[31] 가장 남측으로는 24기가 밀집되 상태를 보이는 안성 승두리유적(그림 4)이 조사된 바 있다[32]. 이가운데 화성 송산리유적에서는 구릉 상부의 분구묘와 사면의 주구토광묘가 위치를 달리하면서 혼재하는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이 두 지역은 다소 내륙쪽으로 들어온 곳에 위치하지만 유적들 옆을 지나는 황구지천과 안성천의 깊숙한 곳까지 과거에 바닷물이 들어왔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김포·인천지역과 마찬가지로 서해의 해양문화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분구묘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그 종언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자료가 증가하면서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지역의 경우는 최근 검단지구에서 대규모의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한성백제 문화의 이식상황을 이해하게 하여주는 자료들이 크게 늘어났다[33].

표 3. 경기-인천지역 분구묘

번호	유적명	분묘		분구묘 출토 중요유물	비고
		분구묘	기타		
1	김포 양곡	4	주구토광묘4, 목관묘1	주조철부(이조돌대), 대옹	
2	김포 구래동	1	추정분구묘1	대옹편	
3	김포 양촌	33	목관묘10	환두대도, 낙랑계토기	
4	김포 운양동	32	목관묘3	금제이식, 한국식동검, 철제무기,낙랑계토기	부여계?
5	김포 학운리	1	토광묘6		
6	인천 동양동	1	목관묘4, 옹관묘1	단경호, 심발형토기	
7	인천 연희동	56	목관묘1	환두대도, 철모, 철정	
8	인천 중산동	2		환두대도, 단경호	
9	인천 운서동	2		환두대도, 단경호, 궐수문장식	
10	인천 구월동	13	목관묘3, 목곽묘1	환두도, 직구소호	
11	인천 검단	1?	주구토광묘12, 토광묘1, 목곽묘10	단경호(주구내)	묘광 삭평
12	화성 송산리	2	주구토광묘2, 토광묘4	원저단경호, 광구장경호, 심발형토기	
13	화성 요리	1	목곽묘1, 토광묘6, 옹관묘1	금동식리, 관모(목곽묘)	5세기
14	안성 승두리	24		타날문대호	5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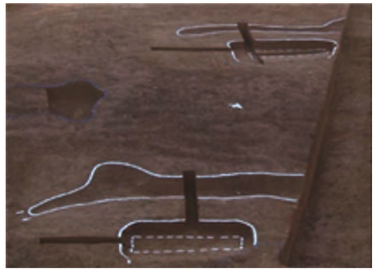


그림 2. 화성 송산리유적 분구묘(좌)와 주구토광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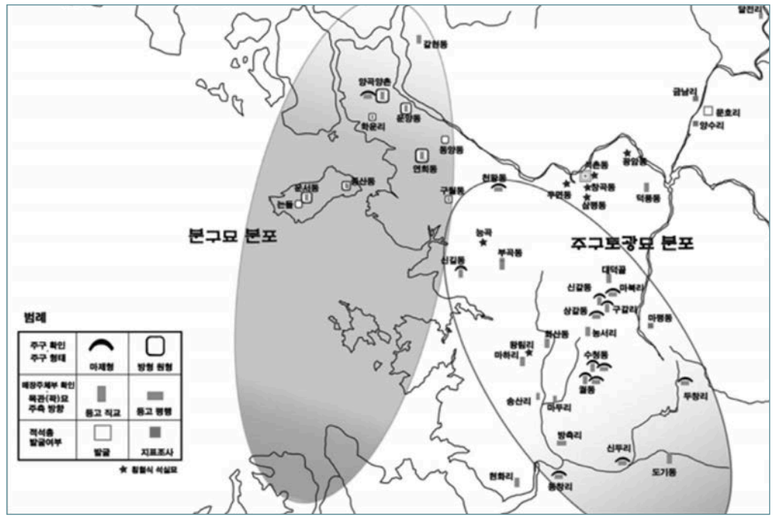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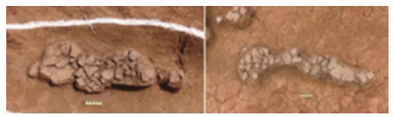


그림 3. 경기지역 분구묘와 주구토광묘 분포[34]
(가는선 : 표 1의 분구묘 범위, 굵은선 : 중요 주구토광묘유적 범위, A~D : 중요유적)

주구 유물



타날문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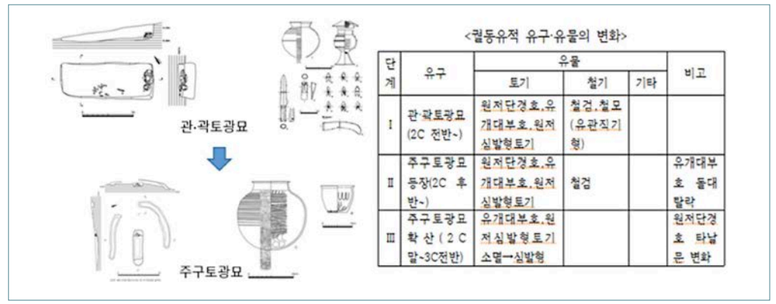
그림 4. 안성 승두리유적 유구와 유물

34 조가영, 2014「경기지역 마한 분구묘 사회의 연구 성과와 과제」,『한국고고학의 신지평』, 제3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관련 가능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 주구토광묘

일반적으로 구릉의 사면에 주구를 돌리고 묘광에 관 혹은 곽을 등고선에 평행하거나 수직되게 설치한 구조로서 1990년대 초 천안 청당동유적에서 확인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전라남도에 이르기까지 범마한권의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분묘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부지역의 경우 밀도를 달리하면서 분구묘 범위의 동남쪽 지역에 중점적으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지역에서 주구토광묘가 가장 밀집된 지역은 경기 남부의 용인 동부와 오산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곳의 유적들은 상류의 신갈천-하류의 오산천으로 연결되는 축선상에 위치하여 그 북쪽의 한강으로 유입되는 탄천수계의 문화와 상호 대치되는 상태를 보이며 원삼국시대에서부터 5세기대 사이에 백제화 과정이 진행되면서도 이 지역의 전통적 묘제를 고수하는 양상을 보인다[35].



<궐동유적 유구·유물의 변화>

단계	유구	유물			비고
		토기	철기	기타	
Ⅰ	관·곽토광묘 (2C 전반~)	원저단경호,유개대부호,원저심발형토기	철검,철모 (유관직기형)		
Ⅱ	주구토광묘 등장(2C 후반~)	원저단경호,유개대부호,원저심발형토기	철검		유개대부호 돌대 탈락
Ⅲ	주구토광묘 확산(2C 말-3C전반)	유개대부호,원저심발형토기 소멸→심발형			원저단경호 타날문 변화

그림 5. 오산 궐동유적의 문화변동 양상

분구묘의 경우 그 계보적 및 계기적 변화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경기남부지역의 경우는 관·곽토광묘 단계에서 평택 마두리유적[36] → 오산 궐동유적[37]으로의 단계적 변화를 보이다가 궐동유적에서는 토광묘 계통 분묘들이 위치를 달리하면서 주구토광묘로 전환되는 양상이 파악된다. 뿐만아니라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덤 양식의 변천과 함께 부장품에도 변화상이 나타난다.

표 4. 오산 수청동고분군의 지점별 분묘 수

		4지점	5-1지점	5-2지점	5-5지점	계
주구묘	목관묘	31	49	18	43	141
	이중목관묘		2(?)	2		4
	목곽묘		1	1		2
	토장묘	4	3		2	9
	불명		12		2	14
	소계	35	67	21	47	170
무주구묘	목관묘	26	40	8	21	95
	목곽묘	2				2
	토장묘	1	14	1	5	21
	옹관묘		1			1
	불명	2	7	1	4	14
	소계	31	62	10	30	133
	계	66	129	31	77	303

35 최근 인천 검단지구 4개 지점의 127기가 보고되어(주 33) 범위가 분구묘지역과 중첩되는 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졌다. 이제까지 중부지역의 분구묘에 대한 논고는 몇 편이 발표되었으나 주구토광묘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36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1『평택 마두리유적』, 발굴조사보고 제10책

37 中央文化財硏究院, 2012『烏山 闕洞遺蹟』發掘調査報告 第199册.

이 분묘문화권의 중심지역인 경기남부의 오산지역에서는 이러한 변화상과 함께 세부적으로 그 중심지의 위치가 궐동에서 수청동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그림 6) 〈표 4〉. 이곳의 4개 지점에서 5세기까지의 주구묘와 무주구묘 303기가 발굴되었을 뿐만 아니라 4지점 서측의 존치지구에도 다수의 분묘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경기남부 최대의 마한계 고분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이 고분군 주변에 사주식주거지가 다수 분포하고 제철관련 유적도 존재하여[38] 이 지역에 경기지역에서는 가장 강력한 마한 소국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7)[40].

그림 6 오산 수청동고분군 유구와 유물[39]

38 최지훈, 2019 「원삼국~한성백제기 오산천유역문화의 지역상주거와 분묘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9 畿甸文化財硏究院, 2006 「烏山 水淸洞 遺蹟」, 學術調査報告 第63冊; 京畿文化財硏究院, 2012「烏山 水淸洞 百濟墳墓群」, 學術調査報告 第139冊.

그림 7. 오산천유역권의 마한백제유적 분포상황(주 39에서 발췌)

(1. 평택 마두리, 2. 가곡리, 3. 오산 탑동·두곡동, 4. 가수동, 5. 청학동, 6. 궐동, 7. 수청동, 8. 수청동고분군, 9. 내삼미동, 10. 내삼미동, 11. 내삼미동, 12. 외삼미동, 13. 화성 금곡리, 14. 감배산, 15. 청계리, 16. 석우리 먹실, 17. 용인 농서리, 18. 공세리)

이러한 주구토광묘 세력은 그 범위가 북측으로 확장되어 용인 마북리[41]신갈동[42]·상갈동[43]등에 고분 내지 고분군이 분산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그림 4 참조). 이 일대는 오산천 상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한성백제 도성지역으로 북류해가는 탄천과 완만한 구릉을 경계로 수계가 구분된다. 따라서 이곳 분묘들 및 인근의 주거지들 출토품의 성격을 보면 마한계적 문화성격에서 점차 백제와의 문화접변적 추이가 간취된다.

이러한 오산–용인 서남부지역의 주구토광묘 문화권은 백제의 영역확장 과정에서 남방으로 진출하는데 큰 장애적 요소로 작용하였고 이들 지역을 고대 영역국가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단계적인 노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구묘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출토철기를 보면 대도·철모·철촉을 기본으로 하는 무장체제가 상당히 갖추어진 상황이어서 백제가 이 지역을 무력적으로 점령하여 지배하려는 방식은 쉽게 허용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지역은 수원–오산–평택–천안·아산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주구토광묘 연대 문화권의 북방에 해당하는 지역이어서 그 배후의 세력을 고려해서도 백제의 남방진출은 4세기 중반까지도 결코 수월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주구토광묘는 용인 두창리유적[44]과 여주 용은리유적[45]에서도 묘광이 등고선과 평행하는 형식이 조사된 바 있어 경기 동남부지역에도 마한계(그림 8) 세력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백제가 남방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는 과정에 이러한 세력들을 어떠한 방식

40 이 지역은 중심을 관류하는 오산천 주변에 야산들이 전개되어 있는 지형이어서 경기도지역에서 원사~고대 시기에 농경, 생산활동 및 거주에 생태적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 할 수 있으며 당시 천안·아산지역의 마한세력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던 지역으로 보여진다.

41 畿甸文化財硏究院, 2005 「龍仁 麻北里 百濟 土壙墓」, 學術調査報告 第45冊.

42 京畿文化財硏究院, 2010 「龍仁 新葛洞 周溝土壙墓」, 學術調査報告 第121冊.

43 고려문화재연구원, 2008「용인 상갈동유적」, 학술조사보고서 30

44 中央文化財硏究院, 2006「龍仁 杜倉里 遺蹟」, 發掘調査報告 第87冊., 주구토광묘 107기, 토광묘 107기가 발굴되었으며 토기와 철기 등으로 4세기대로 편년되고 있다.

45 국방문화재연구원, 2015「여주 용은리유적」, 학술조사보고 제46책., 이 유적은 성남–여주 복선전철 구간에서 확인된 구릉상 유적으로서 주구토광묘 22기와 토광묘 9기에서 삼발형토기와 원저단경호 등의 토기류, 환두도, 철모, 철촉, 철겸, 철도자, 철부 등의 철기류, 청동제 마형대구, 구슬류 등이 다수 출토되었으며 토기와 철기의 형식 및 AMS 연대를 기준으로 4세기 중반을 중심 연대로 하는 3세기 후반~5세기의 고분으로 보고하였다.

그림 8. 여주 용은리유적 주구토광묘와 출토유물

으로 병합해 갔는가를 상세히 밝히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4세기를 중심연대로 하는 이 두 유적은 개발이 크게 진전되지 않아 유적조사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은 용인 동남부~여주지역의 청미천과 양화천 등 남한강 지류 유역권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유적들은 각각 도로와 철도 개설구간의 제한된 범위내에서 조사된 것이어서 유적의 범위가 인접한 구릉상으로 확대되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사주식주거지

그동안 마한계 주거문화의 한 특성인 사주식주거지를 주제로 한 연구는 유적과 유구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다수 진행되었고 호서지역의 직간접적 연구사례도 상당수 있어 왔다. 이에 비해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중부지역의 조사 연구도 일부 이루어지면서 그 양상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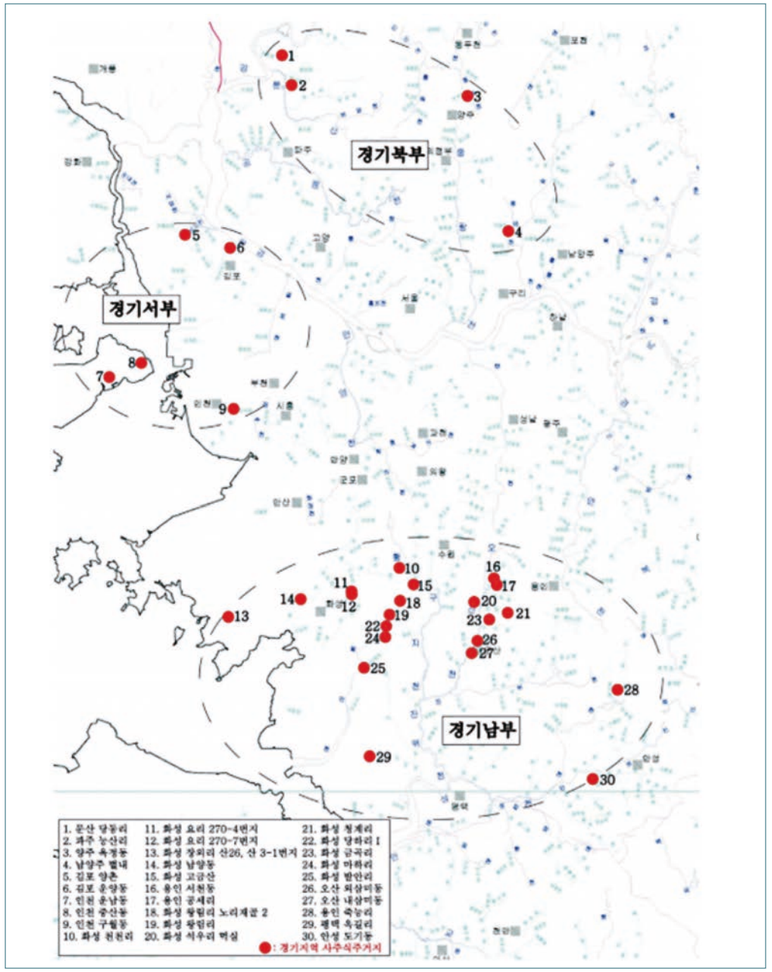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주식주거지는 경기도의 30여개 유적에서 130기 이상

46 2010년경까지도 중부지역 주거와 취락에 대해서는 몸凸자형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그 이후 사주식주거지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송만영, 2012「경기 남부 마한계 주거지의 변천」『古文化』80輯,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이상걸, 2013「서울-경기지역 원삼국~한성백제기 사주식주거지 연구」, 『주거의 고고학』,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고고학회., 신은정, 2017 「원삼국~한성백제기 경기지역 사주식주거지 연구」,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 조사되었다(2017년 기준). 분포상을 보면 남부지역의 밀집도가 높으며 서부와 북부에도 산재하나 동부지역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분포권을 보면 중부지역에서도 경기-인천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서울지역의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현재 입지는 구릉상과 충적지에 위치하는 것으로 구분되나 거의 모두가 전자에 속하고 후자는 화성 발안리유적의 몇 기 만이 알려져 있는 상태이다. 주거지의 전체적인 형태는 서부(방형, 장방형, 말각방형)와 북부(방형, 장방형)는 단순한 편이나 남부의 경우는 서부와 북부의 제형태 외에 말각장방형, 몸凸자형, 육각형 등으로 다양하다(그림 10).

경기 남부의 이러한 주거형태 다양성은 마한-백제간의 지속적인 문화접변



47 신은정, 위의 논문

그림 9. 경기도의 사주식주거지 분포 47

(acculturation) 결과로 해석된다.

그 외에 취사·난방시설과 주공속성 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있으며 동질적이던 마한계 주거문화가 마한지역 백제영역화 과정에서 지역적 편차를 보이면서 어떠한 문화변동(culture change) 과정을 거쳤는지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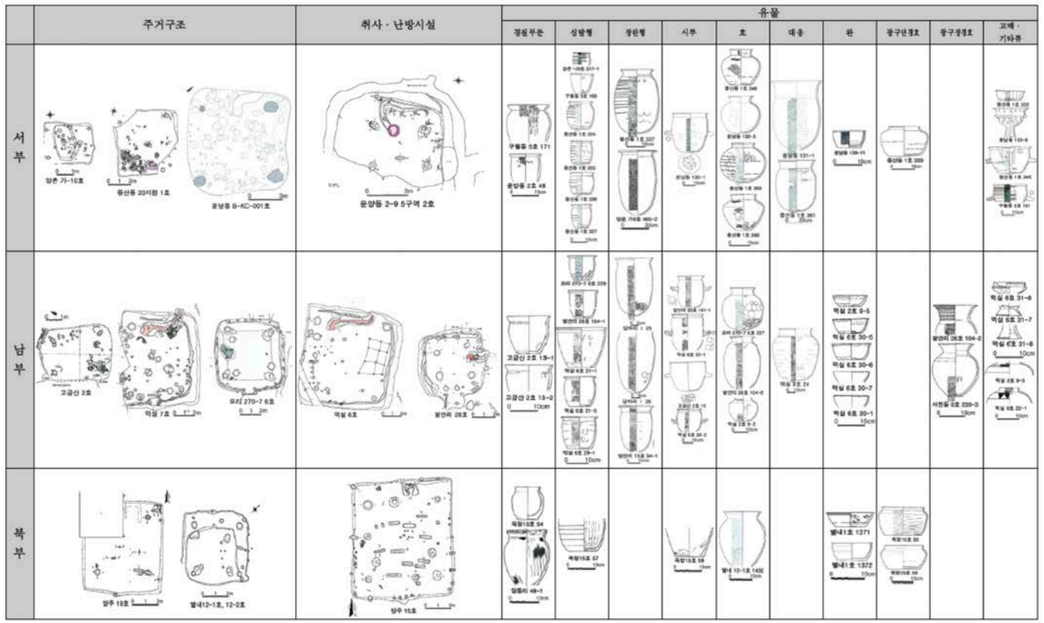


그림 10. 경기-인천지역 사주식주거지의 유구와 유물[48]

Ⅳ. 백제 영역화의 몇 양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삼국시대의 백제伯濟는 소국 단계에서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 영역화를 해나가면서 먼저 기존의 문화적 동질성을 갖는 동쪽과 북쪽의 呑凸자형주거지 집단, 즉 예濊세력을 규합해가면서 이질성이 강한 서측과 남측의 분구묘 및 주구토광묘 사용집단인 마한세력을 자신의 정치적 영향권에 포함시키는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 틀림이 없다. 전자前者의 경우에는 고대국가 영역화에 어려움이 적었으리라 예상되는데 비해 후자의 경우에는 여러가지의 특수한 상황들이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우선적 중요 진출루트의 개척상황과 구마한세력권에 대한 백제영역화에 대해 간단히 추론해 보고자 한다.

48 신은정, 위 논문에서 인용.

49 이는 현재의 국도 43호 및 39선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50 화성 행궁지역 조사에서 석실분이 조사되기는 하였으나 신라고분으로 밝혀졌고 그 이전 부터의 계기적 문화양상을 설명해주는 유적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51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포털이나 기타 사전류들에서 "1995년 경부고속철도 경가충청권 구간에 대한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사실은 1994~1995년에 화성시의 의뢰에 의해 한신대학교박물관이 실시한 화성시 전역에 대한 지표조사에서 최초 확인 보고된 것이다(한신대학교박물관, 2015『화성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그 당시 유적을 확인하지 못했던 고속철도구간조사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후 필자가 호암미술관에 권유하여 첫 발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호암미술관, 1998『화성 마하리 고분군』). 그리고 고속철도구간과 주변에서 고분과 주거지등의 조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숭실대학교박물관·서울대학교박물관, 2004『馬霞里 고분군』) 2019년에는 인접한 정남면 관항리에서 횡혈식 석실묘 67기, 석곽묘 52기 등 140여기의 유구가 조사되어(기호문화재연구원, 2019『현장 공개 설명회 개최 알림』) 마하리고분군과의 관련성이 지적되고 있다.

52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華城 發安里 마을遺蹟』, 學術調査報告 第80冊

52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華城 發安里 마을遺蹟』, 學術調査報告 第80冊

53 한신대학교박물관, 2007『華城 佳才里 原三國 土器窯址』, 총서 제28책. 이 유적은 그 시기가 3세기 중반경으로 판단되는 경질무문토기 요지여서 이 지역으로의 예계문화 진출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진 사례에 해당한다.

54 경기도박물관, 2012,『소근산성 -학술발굴조사 보고서-』

55 韓國土地公社 土地博物館, 2006,『文化遺蹟分布地圖 -華城市-』

56 대중국이나 대왜 교류를 위한 해양루트 개척을 위해 한강 하구지역으로 세력확장을 한 근거는 아직 너무 미약하다.

1. 주요 진출루트의 개척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제가 고대국가로 성장하면서 진출을 꾀한 중요한 교통로가 서울→수원→봉담→발안→아산만으로 이어지는 선이 아니었나 추정된다[49]. 아직 수원지역의 유적은 거의 없으나[50] 대규모의 마하리고분군[51]을 위시한 봉담읍의 여러 유적들, 발안리 취락유적(그림 12)[52], 가재리유적[53], 양감면의 소근산성[54] 및 우정·장안면의 백제계 유물 산포지들[55] 등을 통해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가재리유적과 발안리유적의 성격을 보면 그러한 문화의 진출은 3세기 단계부터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마한의 분구묘 내지 주구토광묘 분포권 중에서도 유적이 아직까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공백적 지대에 해당하는 곳이어서 백제가 루트개척에서 마한과 충돌해야 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이었고 아산만의 해양교통적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진출을 서둘렀던 방향으로 추정된다[56].

그가운데에서도 마하리고분군은 목관묘-목곽묘-석곽묘-석실분의 백제계 묘제가 대단히 넓은 범위에 분포하는 3~5세기대 유적으로서 한성백제시기에 남방에 형성된 고분군으로서는 최대규모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백제의 남방 영역화에 있어 어느곳 보다 중요시되던 지역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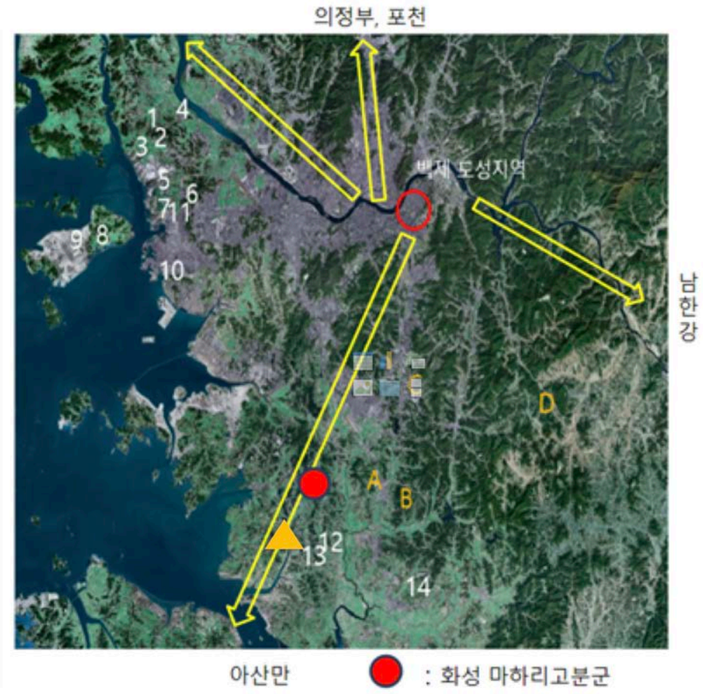


그림 11 백제영역화 과정의 중요 진출 루트 (1~14 : 분구묘유적, A~D : 주요 주구토광묘유적)

그림 12. 화성 발안리 유적

그림 13. 화성 마하리고분군

고분군 주변에서 아직 대규모의 취락유적이나 관련 유적들이 제대로 조사되지는 않았으나 고분 규모로 볼 때 주변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으며 발안리 마을유적 조사 내용을 보면 주거지 들이 呂凸자형이 중심인 가운데 일부 사주식주거지와 결합된 형태를 보이는 것도 있어 마한계 집단과 문화접변을 해가면서 이쪽 방면으로의 진출을 꾀했던 것으로 보인다[57].

57 마한지역에 위치하는 呂凸자형 주거지를 마한주민의 자발적 수용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송만영, 2012「경기 남부 마한계 주거지의 변천」『古文化』第80輯, 한국대학박물관협회) 발안리유적의 성격과 주변의 유적 양상으로 보아 백제집단의 적극적 진출의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 같다.

한편 남한강지역으로의 진출은 아직 조사된 유적들이 너무 적어 실상을 알기 어려우나 백제가 철산지의 확보를 위해 충주지역으로 적극 진출하려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충주지역은 칠금동유적으로 대표되는 국내 최대의 고대 제철기지가 형성되어 있던 곳으로서[58], 한성백제 도성지역에서 이 지역까지의 중간지역에 위치하는 저명한 유적으로는 여주 연양리유적[59]과 원주 법천리유적[60]이 조사되어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충주지역에도 탑평리유적에서 여철자형을 비롯한 4~5세기의 주거지들이 25기 발굴된 바가 있어[61] 한성백제가 4세기로 들어서서 이 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62] 그 주된 목적은 풍부한 철산지의 확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정에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변에 여철자형주거지를 중심으로 하는 예계 백제세력권이 상류지역까지 계속 형성된 것은 지정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63].

그 외에 백제가 주변세력을 규합해 나가면서 고대 영역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 우선적인 통합 대상은 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던 동부와 북부 지역의 예계집단으로서 배후세력의 확보를 위해 이 양 지역도 우선적인 영역화 대상이었을 것이다. 북부지역은 자연지형상 진출루트가 북한강라인, 의정부–포천 라인, 의정부–양주라인, 고양–파주라인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교통로를 따라 황해도지역과 강원도 북부지역으로의 영역확장을 꾀했을 것으로 보인다.

2. 구 마한지역의 영역화

원삼국시대의 백제伯濟가 고대의 백제百濟 영역국가로 성장하면서 많은 난관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남부지역으로 확장하는 과정에 그 지역에 폭넓게 포진하고 있던 주구토광묘집단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었을 것이고 그와 동시에 한강 하류지역과 서해안지역을 장악하여 해양교통상의 길목을 막고 있던 분구묘집단도 또하나의 거대한 장벽이었을 것이다.

그림 14. 중부지역 분구묘와 주구토광묘의 무기 중심 철기류

58 중원문화재연구원, 2008『충주 칠금동 제철유적』,調査報告叢書第62輯.,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8「충주 칠금동(392–5번지 일대) 제철유적 발굴조사 보고서Ⅰ」, 학술총연구총서 제19책., 同, 2020『충주 칠금동(392–5번지 일대) 제철유적 발굴조사보고서Ⅱ」, 학술연구총서 제21책., 그 외에 용교리에서도 삼국시대의 제철유적이 조사된 바 있다(중부고고학연구소, 2021『忠州 荷潭里·岑屏里龍橋里 遺蹟』, 學術調査報告 第 60冊). 칠금동제철유적은 기존에 3~4세기로 편년되었으나 최근의 연구에서 그 시기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59 國立中央博物館, 1998『驪州 凞陽里 遺蹟』, 國立博物館 古蹟調査報告 第29冊

60 國立中央博物館, 2002『法泉里Ⅱ』, 古蹟調査報告 第29冊

61 中央文化財硏究院, 2013『忠州 塔坪里 遺蹟』, 發掘調査報告 第201冊

62 이 지역에서는 아직 마한계 고분이나 취락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아 한성백제와의 상호 관계를 논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신수현, 2019「남한강유역 원삼국시대~한성백제기 주거지 변화양상」,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3 정지영, 2019「원삼국~백제 한성기 경안천유역 주거와 토기의 변천과 지역성」, 한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참조

이러한 양 집단은 변진지역으로부터 철공급을 받거나[64] 자체적으로 철생산을 해가면서[65] 비교적 발달된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어 확인된 고고학 자료를 보는 한에 있어서는 3세기~4세기 중반경까지 백제가 이들 집단에 비해 군사력에 있어 열위劣位에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그림 14)[66].

농업 등의 생산경제면에서는 경기 남부지역 주구토광묘 세력권의 생산력이 서울 중심의 백제 세력 보다는 높았을 것으로 보여지며 그러한 기반 위에서 3~5세기에 지속적으로 주구토광묘문화를 유지하면서 백제의 영역확장에 대응하여 나름대로 독자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백제와 마한의 대치와 경쟁적 관계에서 철문화상의 우열양상 추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한집단의 경우 낙랑의 멸망에 따라 그 이전부터 변진-한-2군(낙랑·대방)으로 연결되던 철교역망이 붕괴되어 곤란을 겪게된데 비해 백제는 충주지역을 비롯한 주변 철산지들을 적극적으로 장악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67].

이러한 지역에서의 백제영역화 과정을 고고학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일부 지역들에서는 그러한 양상을 말해주는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용인 동부지역이나 경기 남부 주구묘문화권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수청동고분군의 주변 유적을 보면 4세기대 후반 이후 한성백제의 문화가 서서히 이식되어 들어오고 그러한 상황은 6세기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15)[68]. 이는 문헌사료상 지방통치를 안정화시켰던 근초고왕대의 정황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백제는 한성기에 구마한지역의 주구토광묘와 분구묘 사용집단을 백제 영역속에 포함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것이 단계별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굳이 문헌사료의 내용과 연관시켜 고려한다면 백제가 구마한지역을 영역화하는 과정에 고이왕(234~286) 단계, 근초고왕(346~375) 단계 및 한성백제 말기의 개로왕(455~475) 단계 등에 대한 정황을 고분과 주거지 양상을 통해 밝혀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근초고왕 시기와 관련된 4세기 후반 이후의 백제 영역화 양상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64 『三國志』 魏書東夷傳 弁辰條 「國出鐵韓濊倭皆從取之」. 이 때 수입된 철이 철기의 형태였음이 유물을 통해 확인되나(김새봄, 2011「原三國後期 嶺南地域과 京畿·忠淸地域 鐵矛의 交流樣相」『한국고고학보』81, 한국고고학회., 이용범, 2015「2~3세기 마한과 진변한의 철제무기 교류의 배경」『고고학』17-1, 중부고고학회) 철정과 같은 소재 관련 자료는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다.

65 화성 기안리유적(畿甸文化財硏究院, 2011『華城 旗安里 遺蹟』, 學術調査報告第107冊)이나 평택 가곡리유적(삼강문화재연구원, 2017『平澤 佳谷里 遺蹟』, 한울문화재연구원, 2017『평택 가곡리 유적』, 발굴조사보고 129) 등이 알려져 있으나 이들 유적들은 원료와 연료의 생산과 공급면에서 제약이 있어 마한의 철과 관련하여 이러한 유적들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김길식, 2017「원삼국~백제 한성기 경기남부지역 제철기지 운용과 지배세력의 변화 추이」『백제문화』제56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66 한강 하류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여 철제무기가 집중되다가 3세기 중반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으나(김길식, 2014「2~3世紀 漢江 下流域 鐵製武器의 系統과 武器의 集中流入 背景 -김포 운양동유적 철제무기를 중심으로-」『백제문화』제50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주구토광묘지역에서의 2~4세기 철기류들이 무기 중심의 구성을 보이고 있어 이제는 중부지역 범 마한권의 철제무기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그림 14참조).

67 이에 대응하여 중서부지방의 진천·청주 등지에서의 철생산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경기 남부지역의 주구토광묘세력도 그 유통망 안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68 이러한 상황은 오산 외삼미동유적(한백문화재연구원, 2011『오산 외삼미동유적』, 학술조사총서 제29책)과 내삼미동유적(高麗文化財硏究院, 2010『烏山 內三美洞 遺蹟』, 學術調査報告書 第51輯, 경기문화재연구원, 2011『烏山 內三美洞 遺蹟』, 學術調査報告 第130冊)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림 15. 오산 내삼미동유적 유구와 유물

Ⅴ. 맺음말-향후의 과제

자료가 제한적이었던 2000년 이전은 중부지역의 마한·백제 관련 문제는 분묘를 중심으로 한 백제의 고고학적 문화성격 파악과 영역국가로의 성장이 주된 관심사였으나 그 이후 김포·인천과 경기남부지역의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해양문화권인 서부의 분구묘 지역과 남부내륙의 주구토광묘 중심지역 문화의 성격이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범마한계 주거형태인 사주식주거지가 경기 남부에 다수 분포하고 경기 서부와 북부에도 존재하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적들의 유구와 유물을 중심으로 한 거시적 및 미시적 연구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한 과정에 중부지역 마한·백제 역사문화에 대한 인식과 연구의 패러다임에 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점증하는 자료에 대응한 연구체제의 구축도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유적 분포권의 문제 있어 인천지역에서는 주구토광묘가, 경기 남부의 해양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분구묘가 각각 확인되어 그 분포권과 상호 관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백제는 고대국가로 성장해가면서 동질적 예계문화를 통합하고 이러한 마한세력들을 극복해야하는 내외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했다. 고고자료를 볼 때 이러한 상황에서 백제는 초기에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마한세력보다 우월하지는 못했지만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영역의 점진적 확대와 지역의 개발을 추진하고, 충주지역을 포함한 철산지의 확보 등을 기반으로 4세기대 중반 이후 크게 성장하였다. 이때 마한의 제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강화하면서 고대영역국가로 발돋음해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응해 서부와 남부의 마한세력들은 한성백제의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영향하에서도 기존의 분묘문화와 주거문화 양식을 보존하는 문화적 보수성을 유지해 나아갔다.

본고에서는 마한문화권 일부 지역으로의 백제 진출과 마한세력권으로의 영역확장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각 지역 유적들을 엄밀히 시기구분하고 분묘와 주거지에서 보이는 문화변동 양상을 세밀히 분석하면서 그 정확한 실상을 보다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향후 도모하여야 할 연구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먼저 유적조사상의 상황과 개선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로나 철도 노선상 유적의 조사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나 넓은 범위의 택지개발지역 조사의 경우 구릉지역 조사에 주로 주력하고 취락이나 경작유구가 존재하는 저지대의 조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다. 구릉상의 조사도 잘못된 매장문화재제도로 인해 발굴범위를 최소화하여 중요 유구들이 조사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구릉상 분묘유적의 조사사례에 비해 주거지 및 경작지를 바롯한 저지대의 유적 조사가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불균형을 낳고 있다. 중부지역 마한·백제문화에 대한 총체적접근(holistic approach)을 위해서는 당시의 각 문화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성격의 유구들이 종합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하루속히 조사의 전략에 대한 큰 전환이 있어야 한다.

현재 중부지역 서부의 분구묘 집중지역과 경기 남부의 주구토광묘 중심지역과 같은 지역성을 인지하게 되었지만 이는 최근에 이 지역들의 개발과정에 조사가 급증하면서 얻어진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강하류의 남북 접경군사지역, 경기 북부, 동부, 동남부 등 아직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적게 이루어진 지역들이 존재하고 있고 백제의 영역화 문제는 황해도 남부지역까지도 대상에 포함시켜 논해야 되는 과제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분단고고학이 이러한 주제를 밝히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동안 관련 유적들이 점증하는 가운데 이러한 주제를 놓고 유적과 유물에 대한 거시적(macro) 연구들이 많았는데 그와 더불어 중요한 소단위 지역들에 대한 지역적연구(regional study)를 보다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미시적 연구들에 기반을 둔 거시적 연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러한 새로운 고고학자료들에 기초한 중부지역 마한·백제고고학의 연구는 아직 초보적 단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로 분묘와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유구들 연구 외에

자료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토기와 철기 등을 주제로 한 유물들 연구가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가 크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유구와 유물의 시간성에 대한 문제가 아직 제대로 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유구·유물의 분석 및 과학적 분석방법에 기초한 타당한 편년체계를 확립하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과제라 할 수 있다.

최근 자료의 급증 추이에 맞추어 개인에 의한 개별적 및 주제별 연구 외에 체계적인 집단적 연구방식도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주제가 현재 중부지역 고고학의 중요 연구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중부고고학회에 마한·백제고고학연구회와 같은 소연구집단을 구성하여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부지역의 최대 연구현안인 만큼 중부지역에 소재한 국공립 연구소들은 이에 대한 연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마한백제 문제는 문헌사에서도 관심을 크게 기울이는 연구분야이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아직도 사료 중심의 연구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최근의 마한·백제 고고학자료들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융합적 연구체제를 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國立中央博物館. 1998 『驪州 淵陽里 遺蹟』. 國立博物館 古蹟調査報告 第29册.

國立中央博物館. 2002 『法泉里 II』. 古蹟調査報告 第29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8 『충주 칠금동(392-5번지 일대) 제철유적 발굴조사보고서 I』. 학술연구총서 제20책.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20 『충주 칠금동(392-5번지 일대) 제철유적 발굴조사보고서 II』. 학술연구총서 제21책.

경기도박물관. 2012 『소근산성 -학술 발굴조사 보고서-』.

京畿文化財硏究院. 2010 『龍仁 新葛洞 周溝土壙墓』. 學術調査報告 第121册.

京畿文化財硏究院. 2011 『烏山 內三美洞 遺蹟』. 學術調査報告 第130册.

京畿文化財硏究院. 2012 『烏山 水淸洞 百濟墳墓群』. 學術調査報告 第139册.

고려문화재연구원. 2008 『용인 상갈동유적』. 학술조사보고서 30.

高麗文化財硏究院. 2010 『烏山 內三美洞 遺蹟』. 學術調査報告書 第51輯.

畿甸文化財硏究院. 2005 『龍仁 麻北里 百濟 土壙墓』. 學術調査報告 第45册.

畿甸文化財硏究院. 2006 『烏山 水淸洞遺蹟』. 學術調査報告 第63册.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 『華城 發安里 마을遺蹟』. 學術調査報告 第80册.

畿甸文化財硏究院. 2011 『華城 旗安里 遺蹟』. 學術調査報告 第107册.

대동문화재연구원. 2019 『인천 검단지구 유적 I~IV』. 學術調査報告 第104輯.

삼강문화재연구원. 2017 『平澤 佳谷里 遺蹟』.

서경문화재연구원. 2013 『인천 연희동 유적』. 유적조사보고 제9책.

숭실대학교박물관·서울대학교박물관. 2004 『馬霞里 고분군』.

中部考古學硏究所. 202 『忠州 荷潭里·岑屛里·龍橋里 遺蹟』. 學術調査報告 第 60册.

中央文化財硏究院. 2006 『龍仁 杜倉里遺蹟』. 發掘調査報告 第87册.

中央文化財硏究院. 2012 『烏山 觀洞遺蹟』. 發掘調査報告 第199册.

中央文化財硏究院. 2013 『忠州 塔坪里遺蹟』. 發掘調査報告 第201册.

中原文化財硏究院. 2008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調査報告叢書第62輯.

韓國土地公社 土地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華城市-』.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1 『평택 마두리유적』.

한백문화재연구원. 2011 『오산 외삼미동유적』. 학술조사총서 제29책.

한신대학교박물관. 2015 『화성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한신대학교박물관. 2007 『華城 佳才里 原三國 土器窯址』. 총서 제28책.

한양문화재연구원. 2021 『安城 蠅頭里 遺蹟』. 학술조사보고서 제30책.

한울문화재연구원. 2017 『평택 가곡리 유적』. 발굴조사보고 129.

한울문화재연구원. 2018 『화성 송산리 유적』. 발굴조사보고 147.

호암미술관. 1998 『화성 마하리 고분군』.

권오영. 2009 「원삼국기 한강유역 정치제의 존재양태와 백제국가의 통합양상」 『고고학』 8-2호. 중부고고학회

김기옥. 2014 『경기지역 마한 분구묘의 구조와 출토유물」 『한국고고학의 신지평』. 제38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

김길식. 2014 「2~3世紀 漢江 下流域 鐵製武器의 系統과 武器의 集中流入 背景 -김포 운양동유적 철제무기를 중심으로-」 『 백제문화』 제50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김길식. 2017 「원삼국~백제 한성기 경기남부지역 제철기지 운용과 지배세력의 변화 추이」 『백제문화』 제56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김새봄. 2011 「原三國後期 嶺南地域과 京畿·忠淸地域 鐵矛의 交流樣相」 『한국고고학보』 81. 한국고고학회

김성남. 2005 「百濟 漢城時代 南方領域의 擴大過程과 支配形態 試論」 『百濟硏究』 4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김일규. 2007 「漢城期 百濟土器 編年再考」 『先史와 古代』 27. 한국고대학회

김장석 · 김준규. 2016 「방사성탄소연대로 본 원삼국시대 · 삼국시대 토기편년-중부 · 호서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00. 한국고고학회

박경신. 2018 『原三國時代 中島類型 聚落의 編年과 展開』.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순발. 1997 「漢江流域의 基層文化와 百濟의 成長過程」 『한국고고학보』제36집. 한국고고학회

박순발. 2007 「墓制의 變遷으로 본 漢城期 百濟의 地方 編制 過程」 『한국고대사연구』 48. 한국고대사학회

박중국. 2018 「원삼국시대 중부지역의 고고문화와 지역집단」 『중부지역 물질문화와 지역성』. 2018년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중부고고학회

박지영. 2017 「백제의 확장과 주변부 취락 재조직 : 방사성탄소연대와 GIS 공간 분석을 활용하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길덕. 2018 『한국 점토띠토기문화기 무덤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만영. 2012 「경기 남부 마한계 주거지의 변천」 『古文化』 第80輯.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신수현. 2019 「남한강유역 원삼국시대~한성백제기 주거지 변화양상」.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은정. 2017 「원삼국~한성백제기 경기지역 사주식주거지 연구」.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남석. 2016 「경기지역 3~5세기대 묘제환경의 검토」 『 중앙고고연구』 제21호. 중앙문화재연구원

이상걸. 2013 「서울-경기지역 원삼국~한성백제기 사주식주거지 연구」. 『주거의 고고학』.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고고학회

이성주. 2000 「분구묘의 인식」 『韓國上古史學報32』. 韓國上古史學會

이용범. 2015 「2~3세기 마한과 진변한의 철제무기 교류의 배경」 『고고학』17-1. 중부고고학회

이우재. 2020 「북한강유역 낙랑계 토기의 지역성」.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창희. 2016 「탄소14연대를 이용한 중도식토기의 연대」. 『 한국기독교박물관지』 12.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이희인. 2008 「인천지역 백제유적의 현황과 성격」 『고고학』 7-1호. 중부고고학회

임영진. 2006 「 마한 백제 고고학의 최근 연구 성과와 과제-백제의 영역 변천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선사고고학보』 12. 한국선사고고학회

임영진. 2011 「경기·충청지역 분구묘의 검토」 『墳丘墓의 新地平』. 전북대학교 BK21사업단 · 전북대학교박물관

임영진. 2015 「韓·中·日 墳丘墓의 關聯性과 그 背景」 『 백제학보』제14집. 백제학회

정지영. 2019 「원삼국~백제 한성기 경안천유역 주거와 토기의 변천과 지역성」.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가영. 2014 「경기지역 마한 분구묘 사회의 연구 성과와 과제」 『한국고고학의 신지평』. 제3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지혜. 2019 「김포·인천지역 마한 분구묘의 사공간적 특성」.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성락. 2019 「고고학에 있어서 공백과 단절의 문제」 『 한국상고사학보』 제106호. 한국상고사학회

최지훈. 2019 「원삼국~한성백제기 오산천유역문화의 지역성:주거와 분묘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논고 2

백제의 마한 통합과정에 대한 이해

권오영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목 차

1. 백제와 마한의 관계
1) 마한의 여러 정치체
2) 백제국에서 백제로
3) 대팽창의 시대

2. 백제국(伯濟國) 발전의 물적 증거
1) 풍납토성
2) 몽촌토성
3) 석촌동고분군

3. 백제의 주변 통합 방식
1) 인물의 이동
2) 축성을 통해 본 백제 중앙과의 관계
3) 위세품 분여
4) 지역 집단 간 상호관계

4. 나머지 말

1. 백제와 마한의 관계

1) 마한의 여러 정치체

백제와 마한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마한의 일부였던 백제국伯濟國[1]에서 백제사가 시작되었다는 점, 백제 국가의 발전에 반비례하여 마한 여러 정치체의 위상이 저하되었다는 점이다.

1 이 글에서 '백제'라고 표기할 경우에는 고대 국가 백제를, '백제국'이라고 표기할 경우에는 마한의 한 구성 분자로서 서울 강남에 자리 잡은 작은 정치체를 지칭한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한과 백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오류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고조선, 혹은 기자(기준) 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이 남으로 내려오면서 마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인식이다. 이는 전근대 역사학의 특징 중 하나인 정통론과 관련된 논의이며, 소수의 왕족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사고의 산물이다. 준왕과 그를 둘러싼 소수의 집단이 남하하기 이전부터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는 다양한 정치체가 성장하고 있었으며 그중 일부가 마한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금강, 만경강 유역에서는 기원전 3세기 이후 철기문화가 발전하면서 한반동 중부 이남에서는 선진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러한 우월함이 그 후 마한의 건마국으로 계승된다. 천안-아산 일대에서 성장한 마한 목지국은 3세기 무렵 전체 마한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였다.

마한을 하나의 통합된 정치체나 종족으로 보려는 시도 역시 잘못된 것이다.《삼국지》 한조에 등장하는 마한은 단일한 정치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충청-전라지역에 분포하던 50여 개 정치체에 대한 통칭이다. 목지국의 진왕이 대표격이었던 적은 있으나 그가 한반도 중부 이남 전체를 통치한 것은 아니었으며, 목지국은 결코 넓은 영토를 소유한 영역국가가 아니었다.

마한이라고 불린 50여 개 정치체가 동일한 문화를 향유한 것도 아니다. 가옥과 무덤의 구조에서 마한 여러 정치체는 공통성과 함께 지역별 차이점도 보인다. 고구려나 진, 변한에 비해서는 공통성이 강하면서도 그들은 때로는 동맹하고 때로는 다투면서 우후죽순처럼 성장하고 있었다. 각각의 정치체들은 나름의 지배구조를 발전시켜 가고 있었지만, 4세기 이후의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하면 아직은 미숙한 상태였다. 이 정치체들이 국가 단계에 올라섰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고대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 혹은 국가적 성격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 초기국가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한의 시작점을 명확히 정의할 수는 없으나 기원전 3세기 이후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정치체가 성장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마한의 여러 정치체의 전신일 것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통합과 이산을 거치면서 기원후 3세기 중엽 정도가 되면 서울의 백제국, 천안-아산의 목지국, 익산의 건마국이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 이 시점이 되면 영남의 진한에서는 경주의 사로국이, 변한에서는 김해의 구야국과 함안의 안야국이 강자로 등장하였다.

『삼국사기』에서는 온조가 건국한 백제보다 유서가 깊고 강력하였으나, 서로 대립하다가 멸망하는 존재로서 마한이 등장한다. 이때의 마한은『삼국지』에 소개된 마한과는 달리, 천안-아산 일대를 거점으로 성장한 목지국 하나를 지칭한 것이다. 서울의 백제국과 천안-아산의 목지국은 함께 마한의 구성 분자였으나 3세기 중엽 이후 양자의 관계는 역전되어 백제국은 마한 전체의 패자가 되고 목지국은 백제국의 통제를 받으며 서서히 지방 세력으로 흡수되고 만다.

백제국과 목지국의 중간에 위치한 경기도 남부의 여러 정치체는 어떤 과정을 거쳐

〈그림 1〉 목지국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산 명암리 밖지므레 유적의 주구토광묘

백제의 지방으로 편제되었을까? 『삼국사기』나 『삼국지』와 같은 문헌자료는 이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다. 고고학적 물질자료를 통해서만 경기지역의 여러 정치체가 서울의 백제국과 상하 관계를 맺고, 결국 지방 세력으로 편제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3~4세기 무렵 목지국의 영향권인 천안–아산 및 그 주변 지역에서는 주구토광묘가 크게 발전한다(그림 1). 충남과 전라 서해안 일대에서는 분구묘라는 묘제가 유행한다. 반면 서울과 그 인근에서는 주구토광묘가 확인되지 않으며, 대신 주구가 없는 목관묘와 목곽묘가 발전한다. 경기 남부의 용인, 오산, 안성, 평택 등지에서는 주구토광묘를, 인천, 강화, 화성에서는 분구묘(그림 2)를 주 묘제로 사용한다. 연천 등 경기 북부에서는 적석분구묘(무기단식 적석총)를 사용하였다. 이렇듯 마한권 전체는 물론이고 경기도의 마한 세력 사이에서도 묘제의 차이가 보인다. 백제국에서는 4세기 이후 적석총이 등장하지만 이 묘제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양상은 그리 뚜렷하지 않다.

경기지역의 3~4세기 무렵 가옥 구조의 차이도 현저하다. 천안–아산처럼 방형 평면에 4개의 기둥을 세운 사주식 주거지를 사용한 지역, 강원지역처럼 출입 시설이 달려서 평면 여ㅁ(철凸)자형 주거지를 사용한 지역, 양자가 공존하거나 융합되는 지역 등 다양한 편차를 보인다. 서울의 백제국은 평면 여자형 주거지가 발전한 지역이지만, 묘제와 마찬가지로 백제국 가옥의 공간적 확산 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백제국의 정치적 성장, 주변 지역에 대한 지배 강도가 높아지는 역사적 사실을 묘제와 주거지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백제국의 고유한 주거 구조가 확산한 것도 아니고, 횡혈식석실묘가 백제국에서 먼저 등장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백제국의 정치력이 주

〈그림 2〉 서산 부장리의 분구묘

변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지표는 무엇일까? 이 문제는 2장과 3장에서 살펴본다.

2) 백제국伯濟國에서 백제로

『삼국사기』에 의하면 온조가 백제를 건국한 시점은 기원전 18년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 연대는 고고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다. 온조와 비류가 주인공이 된 건국 이야기는 동명, 주몽으로 이어지는 부여, 고구려 건국 신화의 최종판이자 신화적인 부분이 탈색된 버전이다. 하지만 이 전승만으로 백제 건국의 베일을 벗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편적인 문헌자료만을 가지고 고대사의 그 많은 수수께끼를 푼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최근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고고학적 자료야말로 열쇠를 쥐고 있다[2].

이런 까닭에 삼한, 좀 더 좁히자면 마한 사회 내부에서 백제국 伯濟國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백제 국가 형성사를 이해하는 바른길이라고 생각한다. 부여–고구려계 유이민의 급작스러운 남하에 의한 건국, 4세기 무렵 북방에서 내려온 기마민족의 정복왕조 건국이 아니라, 마한 사회 내부에서 한강 하류역에 위치한 백제국이 점차 성장하는 과정이 본질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미리 언급할 주제가 이른바 "예濊계 문화권론"이다. 서력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기원후 3세기 무렵까지 서울–경기–강원지역에서 보이는 주거 형태, 이른바 "중도식 경질무문토기"의 동질성을 근거로 이를 "중도유형문화"로 명명하자는 견해는 박

2 2013년에 진행된 학술대회와 그 결과물(노중국 외, 2013 「백제, 누가 언제 세웠나」, 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1, 한성백제박물관)을 현재의 분위기와 비교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순발에 의해 제기되었다[3]. 현재는 찬성과 반론과[4] 수정안이[5] 공립하는 상태이다. 여기에 강원 영서 지역의 정치체를 영서 예라고 지칭하는 주장[6], 춘천을 맥국貊國의 근거지로 보는 주장이 얽히면서 논의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기도 지역의 문화적 지형을 마한으로 보는 통설과 달리 마한계 문화와 예계 문화가 공간적으로 병존한다는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한강유역의 2~3세기 물질문화의 양상은 강원 영서, 나아가 영동지역과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를 예계 기층문화, 혹은 예족의 문화로 단순화시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 서울과 경기 남부의 물질문화는 강원 영서만이 아니라 충남 북부와 유사한 점이 많고, 충남 북부는 충남 남부, 전북, 전남으로 이어지면서 점진적으로 차이가 선명해진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중부지역을 대상으로 마한문화권과 예계문화권을 선으로 명확하게 긋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

3) 대팽창의 시대

문헌자료를 토대로 백제의 마한 통합과정을 논의할 때 주로 등장하는 시점이 고이왕 대와 근초고왕 대이다. 고이왕 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삼국사기』초기 기사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삼국지』에서도 의미 있는 기사를 찾을 수 있다. 3세기 중엽 조위曹魏는 요동의 공손씨公孫氏 정권을 무너뜨리고 고구려를 침략하였으며 기세를 몰아 낙랑군、대방군을 앞세워 한韓 세력과 전쟁을 벌였다. 대방태수가 전사할 정도로 치열한 전쟁이었으며 전세는 중국 측에 불리하였던 것 같다. 하지만 전쟁의 승패에 대해『삼국지』에서는 "낙랑군과 대방군이 마침내 韓을 멸망시켰다"라고 하거나, "한나해韓那奚 등 수십 국이 항복하였다"고 전한다. 반면『삼국사기』에서는 "고이왕(고이왕)이 장수를 보내어 낙랑의 변민邊民을 습격하여 빼앗아 왔지만, 나중에 돌려주었다"라고 하여 상황설명에 차이가 있다. 공통적인 점은 3세기 중엽 마한 사회와 중국 군현이 군사적인 충돌을 벌였으며 이 전쟁을 주도한 세력은 백제국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시점 이후 백제국이 마한사회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이 커졌을 것으로 이해된다.

4세기 전반, 한반도 서북부에는 낙랑군과 대방군이란 두 개의 중국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들의 임무는 한반도의 토착 세력이 통합,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정치적인 부분, 동북 아시아 교섭망의 장악이었다. 이들이 313년과 314년 차례로 한반도에서 축출되었다. 그 후계자를 자임하고 나선 것은 고구려와 백제였다. 두 나라의 지배층은 낙랑과 대방이 존속할 때만 하더라도 양국이 서로 국경을 맞대고 싸울 일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사정은 달라졌다. 동아시아의 교역망을 누가 확보할 것인가, 나아가 누가 동아시아의 패권을 손에 넣을 것인지를 놓고 양국은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였다.

371년 백제의 근초고왕은 태자인 근구수와 함께 정예 병사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왕 고국원왕이 항전하다가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다. 백제는 공격의 끈을 늦추지 않고 마침내 황해도 일대의 신계, 곡선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서울, 경기, 강원 서부 지역에 대한 지배를 바탕으로 남으로 충청, 전라지역까지 백제의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한다.

3 『三國遺事』권1, 王曆1 太祖 己卯조 및 韓基汶, 「寺院의 創建과 重創」,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p. 35.

4 권오영, 2010 「마한의 종족성과 공간적 분포에 대한 검토」『한국고대사연구』60, 한국고대사학회.

5 박중국, 2012 「중도문화의 지역성 -중도유형문화론'의 재검토를 중심으로」『중앙고고연구』11, 중앙문화재연구원.

6 문안식, 1996 「영서예문화권의 설정과 역사지리적 배경」『동국사학』30, 동국역사문화연구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고고학적 증거물이 지방 수장묘에서 출토되는 금동관, 신발, 귀걸이 등의 장신구류와 중국에서 수입하여 분배한 자기류, 금동 허리띠 등이다. 화성 요리, 원주 법천리, 천안 용원리、화성리, 청주 신봉동, 공주 수촌리, 서산 부장리, 익산 입점리, 나주 신촌리, 고흥 안동유적 등 넓은 범위에 걸쳐 발견되고 있다.

문제는 근초고왕의 마한 정복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4세기 중엽 이후에도 금동관 등 위세품의 분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근초고왕이 마한 잔여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였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심지어 영산강유역에서는 5세기 이후 고분의 초대형화가 진행되면서 백제 중앙과는 다른 독자성을 마음껏 과시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근초고왕의 남정을 부정하거나, 설사 군사적 침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사건에 불과하였고, 영산강유역 정치체의 독자성이 6세기 전반, 혹은 중엽, 즉 무령왕-성왕 대까지 유지되었다는 반론이 제기된 것이다.

사실 근초고왕의 남정이란 사건도 실은 사료적 가치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받는『 일본서기』신공기 기사에 기초한 것이다. 이런 까닭에 국내 고대사학계에서 정설로 통하던 "근초고왕의 마한 정복과 가야지역 진출"에 대한 반론이 심해지고 있다. 결국 고고학적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건이 될 것이다.

2. 백제국 발전의 물적 증거

백제국이 본격적인 고대 국가 백제로 전환된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점은 학계의 큰 논쟁거리이다. 역사학계에서는 3세기 중반의 고이왕 대를 중시하였으나 고고학적 물적 증거는 그리 풍부하지 못한 형편이다. 근년 서울 강남의 백제 유적 발굴조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많이 밝혀졌다.

1) 풍납토성

1999년에 진행된 동벽 절개 조사 결과, 기저부 폭 40m 이상, 높이 12m 이상, 길이 3,500m 정도라는 규모가 확인되었다. 이 정도라면 축조에 동원된 인원수는 적게 잡아도 연인원 100만 명을 훨씬 넘어서게 된다.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려면 강력한 국가 권력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풍납토성의 축조는 백제의 국가형성 시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인정되었다[7].

이후 토성 내부의 경당지구와 미래지구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풍납토성이 백제의 왕성인 하남위례성이었음이 입증되었다. 풍납토성은 평상시 왕의 거성, 몽촌토성은 비상시의 산성 역할을 하면서 함께 한성이라는 도성체제를 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풍납토성의 탁월함은 일단 그 규모에서 나타난다. 둘레가 3.500m에 달하는 대규모

7 임영진 외, 2012『동북아시아 속의 풍납토성』, 학연문화사.

토성은 3~5세기 무렵, 한반도와 중국 동북 지방에 존재하지 않았다. 인근의 몽촌토성, 경주의 월성, 대구의 달성, 청도의 이서국성, 평양의 낙랑토성 모두 풍납토성의 규모에 훨씬 못 미친다. 고구려 전성기의 왕성인 길림성 집안 국내성도 그 둘레가 2,686m에 불과하여 풍납토성에 훨씬 못 미친다.

게다가 풍납토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최첨단 기술이 총동원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저습한 지점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부엽공법, 점질이 다른 흙을 교대로 다져 올린 판축기법, 그리고 점토 덩어리를 쌓아서 성벽 표면의 방수를 고려한 기법, 성벽 내면과 외면에 강돌을 입혀서 성벽이 흘러내리는 현상을 막으면서 위풍당당한 왕성의 모습을 연출하였음이 드러났다.

풍납토성 내부에서는 일반적인 취락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별한 구조와 기능을 지닌 시설물이 많이 발견되었다. 풍납토성 내부에서는 일상적인 거주와 생산 활동 이외에 복잡하고 특수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8].

풍납토성 내부 경당지구 44호 건물지는[9] 한성기 건축물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특이한 외형을 갖추고 있다. 연약한 지반을 파내고 그 내부를 다른 흙으로 채워넣는 되파기 기법, 평면 呂字形의 구조는 한성기에 이미 많은 사례가 보고되었기 때문에 특이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주실을 구 溝로 돌린 점, 구 내부에 목탄을 채운 점, 3개의 기둥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점, 점토로 문턱을 만든 방식은 일반적인 주거지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특징이다. 내부에서는 석제 구슬 1점, 심하게 불탄 철기 2점, 그리고 고온에 의해 피열 변형된 토기 완 1점만 출토되었다. 이렇듯 유물이 빈약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청소가 진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의 고분시대 신전神殿이나 사祠와 같은 종교시설에서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경당지구 206호 유구는[10] 동서 10.5m, 남북 11m의 정도의 방형 공간을 구획한 후, 약 3m 깊이로 연약한 구지표층(황갈색 사질층)을 파내고, 그 내부에 점성이 강한 흙과 사질토를 교대로 되메운 후, 중앙에 지름 2.5m, 깊이 3m 이상의 석조 우물을 설치한 것이다. 우물 바닥에서는 200점이 넘는 완형의 백제 토기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는데 토기의 소성 수준은 매우 높으며 일부 토기는 표면에 다양한 문양을 새겨 놓았다. 토기의 연대는 대개 400년을 전후한 시점으로 이해되는데 중앙산과 지방산이 혼재하고 있다. 고급 토기의 다량 매납, 토기의 풍부한 장식성 등을 고려할 때 식수나 용수를 얻기 위한 일상적인 우물이 아니라 국가 중앙권력, 혹은 왕실이 주재하고 지방 세력이 참여하는 의례를 치르던 어정으로 판단된다.

경당지구의 서편에 해당하는 미래마을에서는 총 5동의 지상 건물이 발견되었다. 고상식 무기단 초석 건물지(라-1호, 2호)는 적심석과 초석이 기둥을 받치고 주거 상면이 지상에 위치한 형태로서 공주 공산성 추정 왕궁지내 제1, 2 건물지, 부여 관북리와 궁남지에서도 유사한 건물이 확인된다[11]. 마-2호 건물지는 이 시기의 일반적인 주거지의 평면 형태인 여자형呂字形을 따르면서도 구지표면을 굴착 후 메꾸어 성토하고 그 위에 생활면을 둔 특이한 형태이다. 다-4호 건물은 할석으로 만든 기단과 문지도리석을 갖춘 지상 건물이다. 마-1호 건물(은 초석이 지하에, 생활면은 지상에 둔 건물이다[12]. 이상의 건

8 신희권, 2007 「풍납토성의 도성 구조 연구」 『풍납토성, 500년 백제왕도의 비전과 과제』, 국립문화재연구소.

9 권오영, 2015 「풍납토성 경당 44호 유구의 구조와 성격」 『한성 백제 건축유적 유형분류와 복원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10 한성백제박물관·한신대학교박물관, 2015 『風納土城』 X VII.

11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한성백제 건축유적 유형분류와 복원연구』, p.393.

12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한성백제 건축유적 유형분류와 복원연구』, pp. 396-402.

물들은 대개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 완전한 복원은 어렵지만, 한성기에 다양한 형태의 지상 건물들이 병존하였음을 보여준다.

미래마을 가-30호 주거지는 여자형呂字形 평면을 띤 수혈식 주거지이다 (그림 3). 조사공간의 문제로 인해 출입부가 조사되지 못하였음에도 주실의 길이가 20.2m, 폭이 17.5m로 면적이 338㎡(약 102평)에 달한다[13]. 마한 및 백제의 수혈 주거지는 대개 60㎡ 이하가 많으며 100㎡ 이상이면 대형에 속한다. 150㎡ 이상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338㎡ 이상의 면적을 자랑하는 미래마을 가-30호 주거지는 압도적인 규모임이 분명하다. 초대형 수혈건물의 기능은 일반적인 거주용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림 3〉 초대형인 미래마을 가-30호 주거지

미래마을에서 발견된 도로는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이 교차한 형태인데 자갈로 노면을 다졌고 배수를 위한 측구를 갖추고 있다[14]. 최근 백제의 도로 유적이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그 구조와 기능에 대한 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15] 잔자갈로 노면을 포장한 도로는 오로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성 내부에서 발견되는 도로의 존재는 축력을 이용한 수레의 운행을 전제로 하며 그 용도는 화물 운송용, 탑승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도로를 통해 성 내부가 구획되었을 것이며 구역별로 다른 형태의 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경당 101호 유구는[16] 4기의 수혈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중복되면서 형성된 일종의 폐기장이다. 수혈 내부에서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경에 해당하는 각종 토기류와 기와류, 오수전, "직直"으로 보이는 문자를 음각한 전돌, 동물 뼈가 출토되었다. 문자가 새겨진 전돌은 백제의 문자 자료로서는 가장 이른 것이다. 소, 사슴, 노루, 멧돼지, 참돔 등의 동물유체는 모종의 제의가 종료된 후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 서술한 특

1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風納土城 XI』 p.232.

14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風納土城 XI』 pp.335-338.

15 이정희, 2015 「백제도로의 축조기술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판섭, 2015 「백제 교통로의 고고학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 국립문화재연구소『한신대학교박물관, 2005 『風納土城 VI』.

수 건물인 경당 44호에서 진행된 제의에서 사용된 제기와 희생을 모아놓은 폐기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경당 9호 유구는[17] 길이가 13.5m에 달하는 대형의 평면 장타원형 수혈이다. 폭은 5.2m, 최대깊이 2.4m로서 층층이 유물이 쌓여 있었다. 1,000점이 넘는 토기류 중에서도 "대부大夫"와 "정井"을 새긴 직구단경호 2점이 주목된다. "대부大夫"와 "정井"이란 글자(기호)는 한성백제기의 몇 안 되는 문자 자료라는 점이 중요하다. 토기 기종은 조리나 저장용보다 고배, 삼족기, 개배 등 소형 제기류의 비중이 높다. 토기 일부분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흔적도 모종의 제의가 치러졌음을 의미한다. 이외에 원반형 토제품, 송풍관, 토우, 통제 구슬과 유리구슬, 어망추, 가락고동, 운모와 안정, 복숭아씨, 소와 말의 머리뼈 10개체 이상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물들은 제사와 관련된 것인데 유물의 수준을 고려할 때, 국가나 왕실이 주도하는 모종의 제의에서 사용된 제기와 동물을 폐기한 특수 폐기장으로 추정된다.

개별 유물을 통해서도 풍납토성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경당 101호 출토 전돌, 경당 9호 출토 문자 토기는 문자 해독층의 존재를 보여준다.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당시에 발견된 진식대구의 심엽형 과판[18], 동경, 노기, 초두 등은 중국에서 입수한 최고급의 물품이다. 성 내부 곳곳에서 가야[19], 고구려의 토기, 왜의 하니와 埴輪가 출토되고, 백제 지방 곳곳에서 제작된 토기류가 발견되는 현상도 일반적인 유적에서는 볼 수 없다. 경당 196호 유구는[20] 동서 길이 10.8m, 남북 폭 5.8m 정도의 장방형 평면을 띠고 있는 식료 창고로서 총 117개체에 달하는 토기가 출토되었다. 5점의 전문도기 옹을 포함한 중국제 시유도기가 33점이나 포함되어 있었는데, 높이가 50cm 이상, 용량이 77~118ℓ의 대용량이다. 중국에서 술이나 차와 같은 값비싼 물품을 들여오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와의 존재도 주목된다. 2015년 현재 한성 백제기의 기와가 발견된 유적은 40군데에 이른다 (그림 4)[21]. 지방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기와는 수적으로 수점 내지 수십 점을 넘지 않지만, 풍납토성의 경우는 양적으로 다른 유적을 압도한다. 미래마을에서는 가-1호 수혈 단일 유구에서만 5,000점이 넘는 다량의 기와가 출토되었으며[22] 단일 건물지에서 47점에 달하는 와당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고대사회에서 기와의 사용이 왕궁, 관청, 사원 및 특수 건물에 국한되었던 사정을 고려한다면 백제의 일반 취락과 풍납토성의 격차는 매우 크다.

풍납토성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와당이 발견되었다. 한성기 백제유적에서 와당이 발견되는 경우는 중앙을 제외하면 매우 희소하다. 따라서 와당의 유무를 통해서도 풍납토성의 높은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전돌의 출토도 중요하다. 웅진기 이후의 화려한 연화문이나 동전무늬는 아니지만 (사)격자문이 시문된 것도 적지 않아서 나름의 장식성을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기와와 전돌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수혈주거지와는 격이 다른 왕궁, 관청, 사원과 같은 특수 건물의 존재를 보여준다.

17 한신대학교박물관, 2004『風納土城Ⅳ』.

18 김태식, 2001『풍납토성』, 김영사.

19 권오영, 2002「풍납토성 출토 외래유물에 대한 검토」『百濟硏究』36 충남대 백제연구소; 성정용, 2007「금강, 한강유역의 영남지역계통 문물과 그 의미」『百濟硏究』46 충남대 백제연구소.

20 한성백제박물관 · 한신대학교박물관, 2011『風納土城Ⅺ』.

21 정치영, 2015「백제 한성기의 와전문화와 낙랑」『낙랑고고학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18, p.334.

22 립문화재연구소, 2009『風納土城Ⅺ』, p.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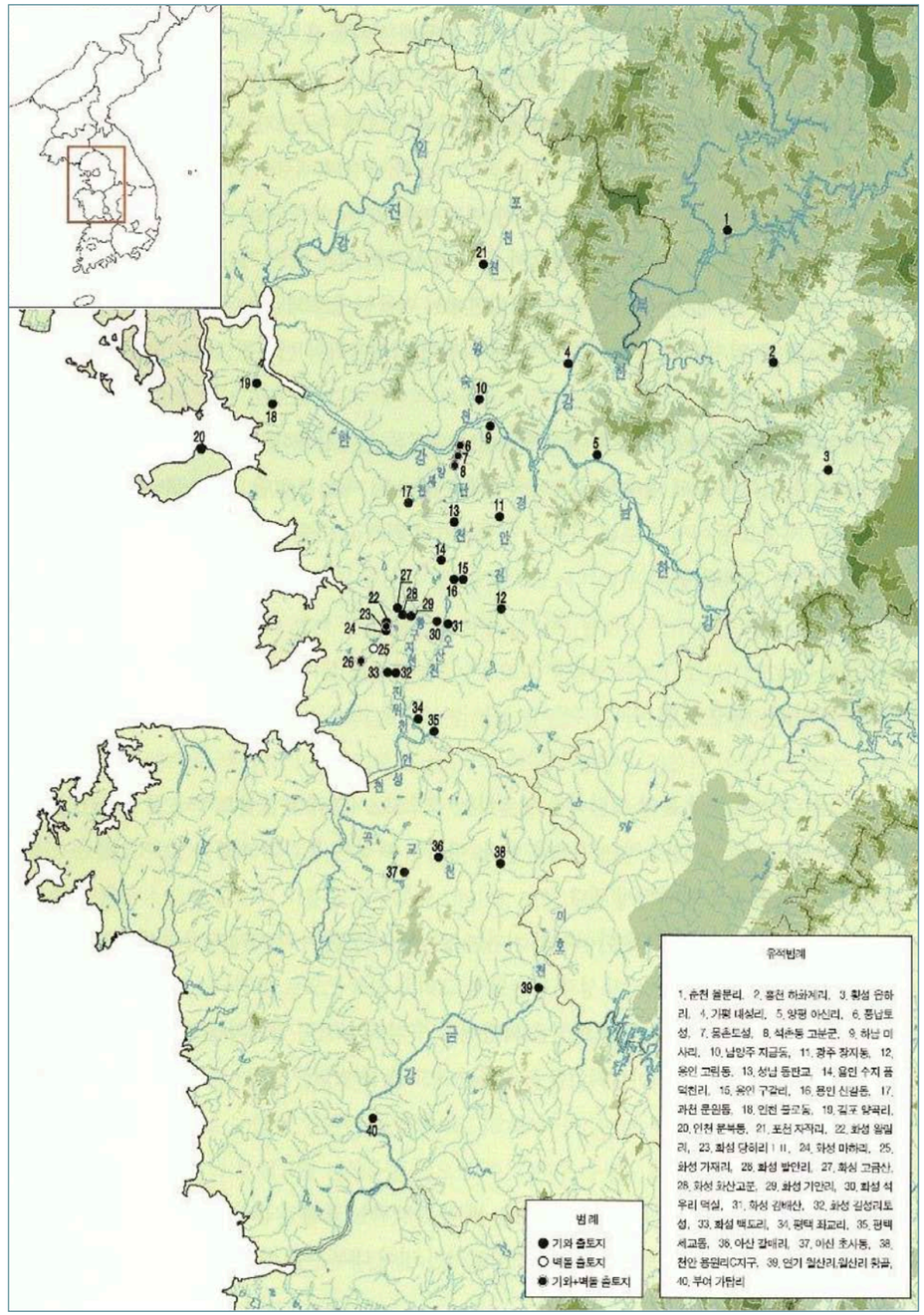


그림 4. 한성백제기 기와출토 유적(정치영, 2015에서)

2) 몽촌토성

풍납토성 남쪽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몽촌토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198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막대한 양의 백제 유물이 출토되면서 1980-1990년대에는 이 토성을 왕성, 즉 하남위례성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였으나, 이제는 근초고왕 대에 축조된 한성별궁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풍납토성이 평지에 입지하고 많은 인구를 포괄할 수 있는 데에 비하여, 몽촌토성은 자연적인 구릉 위에 세워져서 훨씬 좋은 경관을 갖추고 있지만 내부의 인구 포용도는 풍납토성보다 낮다. 이런 까닭에 왕을 위시한 소수의 귀족이 거처하던 별궁의 기능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풍납토성과 달리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군대에 의해 함락된 후에도 고구려가 점유한 결과 고구려 유구와 유물이 많이 발견되었다.

2013년도 이후 한성백제박물관이 북문지 일대를 대상으로 정밀 발굴조사를 장기간 추진하면서 백제-고구려-신라로 이어지는 문화층이 확실한 층서관계를 보이면서 확인되었다. 현재 발견된 유구는 수혈주거지, 벽주건물, 도로유구 등인데 앞으로의 조사 성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출토된 백제 유물 중에서 중요한 것은 금동제 진식대구의 수하식, 그리고 "宮"이란 글자가 새겨진 토기편[23] 등을 꼽을 수 있다.

3) 석촌동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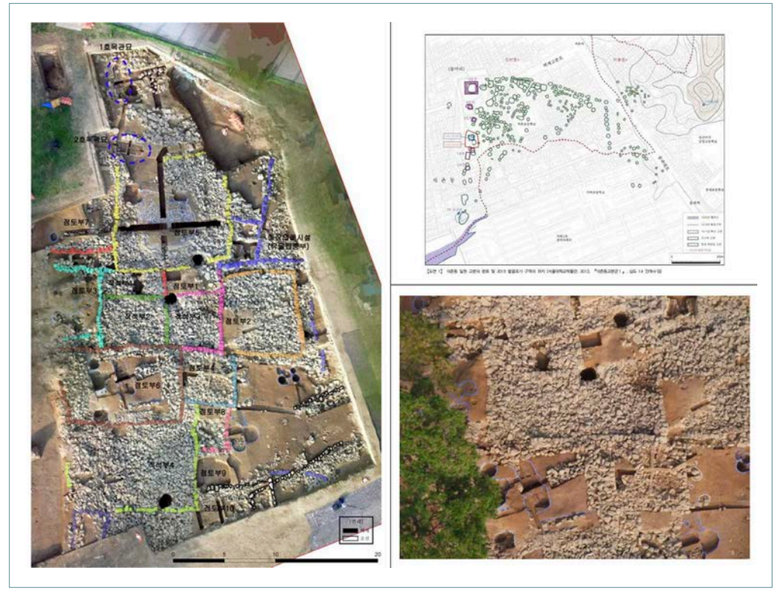
한성기 왕릉은 송파구 석촌동과 가락동 일대에 분포하였다. 일제 강점기만 하더라도 200기 이상으로 구성된 대규모 고분군을 이루고 있어서, 고구려 왕릉구역인 중국 집안의 우산하고분군, 신라 왕릉과 귀족 무덤군인 경주 시내의 대릉원과 비견될 정도였다. 1970년대 이후의 강남개발로 인해 외관이 많이 훼손되었으나 1980년대의 조사를 통하여 적석총의 구조가 고구려와 다른 독특한 면모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났다.

2015년 이후 한성백제박물관이 1호분 북편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면서 종전의 지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평면 방형의 적석총이 마치 벌집 모양처럼 연접하면서 거대한 묘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그림 5).

이와 달리 석촌동 고분군 최북단의 3호분은 한변의 길이가 50m를 넘는 초대형이어서 왕릉에 어울리고 구조적으로 고구려 적석총과 매우 흡사하다. 연대는 4세기 후반대로 보여서 근초고왕의 무덤일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외에 즙석봉토분이라고 불리는 분구묘의 일종, 석곽묘와 토광묘 등도 발견되었다. 무덤은 대개 4~5세기 대에 축조된 것인데 이보다 앞선 시기의 백제 왕실의 무덤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발굴 조사가 현재도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의 성과를 기대해 본다.

23 한성백제박물관, 2020『왕성과 왕릉』, 발굴조사성과전.



〈그림 5〉 연접한 형태를 보여주는 석촌동고분군의 적석총

3. 백제의 주변 통합 방식

1) 인물의 이동

백제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마한의 여러 세력으로 퍼져나가면서 결국 고대 국가 백제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지표로는 무엇이 있을까? 그동안 고고학계에서 논의하였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중앙양식 토기의 등장과 확산, 흑색마연토기、기대、고배、삼족기 등 고급 기종의 확산, 중앙산 위세품(금동관과 신발 등)의 분야, 중앙묘제의 파급, 중앙세력에 의한 산성의 축조, 수취의 증거인 대규모 창고군의 조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중앙 출신 인물의 파견이란 현상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충청-전라지역의 마한 주거지는 평면이 원형이나 방형을 보이는 것이 주류를 이루지만 일부 지역에서 중부지역의 呂(凸)자형 주거지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아산 갈매리, 천안 용원리, 대전 지족동유적이다. 갈매리 KC001호는 서울-경기-강원지역의 전형적인 呂字形 주거지와 매우 유사하다. 반면 용원리의 Ⅰ-4호는 철자형이지만 4개의 기둥이 귀퉁이에 배치된 四柱式이란 점이 특징적이다. 대전 지족동 1호와 2호 주거지 역시 중부지역의 여(철)자형과 재지적 속성이 결합된 형태이다.

반면 충청-전라지역의 서부에서 크게 유행한 사주식 주거지가 경기지역에 영향을 끼친 모습도 확인된다. 경기 남부지역 마한-백제 주거지의 평면형은 여(철)자형이 주류인 지역, 사주식이 주류인 지역, 양자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나뉜다. 그런데 화성 발안리와 마하리, 요리에서는 여(철)자형 평면에 사주가 세워진, 즉 두 가지 구조적 속성이 절충된 주거지가 등장한다. 평택 세교지구에서는 지점을 달리하여 여(철)자형 주거지와 방형의 사주식 주거지가 공존하는 현상도 확인된다.

사주식 주거지 밀집 분포권에서 멀리 떨어진 양주 옥정에서 호남의 사주식과 매우 흡사한 주거지가 분포하는 현상도 주목된다. 경기 남부와 서부지역에서 사주식 주거지는 드물지 않게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섬처럼 한정된 옥정에서 돌연 출현하는 전형적인 사주식 주거지는 주민의 이동을 생각하게 만든다[24]. 그 이동이란 것이 자발적인지 중앙, 혹은 국가 권력의 의지에 의한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평택 세교에서 발견된 벽주건물은 중앙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최근 광주와 곡성 등 호남지역에서도 한성기에 해당되는 벽주건물이 발견되는데 이는 중앙 출신 인물의 이동을 반영하는 중요 지표일 수 있다.

한편 서울 풍납토성 경당지구와 가락동 2호분에서 발견된 이중구연호는 한강유역에서는 매우 이질적인 토기로서 금강유역권에서 반입되었거나 그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임이 분명하다. 김포 운양동 분구묘에서 출토된 양이부호 역시 금강유역권의 영향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한강유역과 금강유역 집단 간의 교섭, 나아가 주민의 이주 및 지배관계의 형성 양상을 유추할 수 있다. 약간 후대의 일이지만 충주 탑평리유적에서 전형적인 여자형 주거지가 등장하는 현상은 중앙의 지배권력이 지방에 파급되는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주목되는 유적이 화성 기안리유적이다. 제철 및 철기 제작과 관련된 이 유적에서는 낙랑, 대방지역의 토기, 기와 제작기술이 반영된 토기 및 송풍관이 발견되었다. 단순히 외형만이 아니라 제작기법에서도 공통성이 보이기 때문에 낙랑, 대방출신 집단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3세기 중반에 낙랑군, 대방군과 한반도 중부지역의 정치체들이 전개한 대규모 군사 충돌 와중에 포로가 낙랑, 대방지역의 주민들이 화성지역에 사민되어 제철 작업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인근의 당하리 I 유적에서도 낙랑계 토기와 송풍관, 철재鐵滓, 철광석 등이 발견되어서 낙랑계 주민들에 의한 제철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성 백제의 중앙도 아닌 화성지역에 낙랑계 주민들이 정착하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백제 중앙이 포로로 잡은 낙랑계 주민들을 화성지역에 안치시켰을 가능성이다. 하지만 3세기 중엽 단계에 서울 강남의 백제국이 화성지역에 독단적으로 낙랑계 주민들을 안치할 정도의 지배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화성권역 정치체의 전쟁 참여 및 포로 안치 동의가 있었을 것이다.

24 신은정, 2017 「原三國~漢城百濟期 京畿地域 四柱式住居址 硏究」,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축성을 통해 본 백제 중앙과의 관계

경기도 일대에 분포하는 고대 성은 축조 재료에 따라 토성과 석성, 입지에 따라 산성과 평지성으로 구분된다. 축조 주체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재지 정치체가 축조한 경우, 백제국, 혹은 백제 중앙이 축성한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성의 축조 및 사용의 주체 문제는 중앙과 지방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직결된다.

경기도 지역에서 발전한 지역 정치체 중에서 독자적으로 성을 쌓은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학술적으로 입증된 유적으로는 화성 길성리토성이 유일하다. 화성의 서부 해안가에 위치한 우정면 일대의 소규모 토루도 후보가 되지만 아직 본격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길성리토성은 한성 1기에 축조되었으며 축조기법은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과 다르며 출토 유물에서도 백제 중앙의 영향이 별로 보이지 않는 점에서 재지 정치체가 축성의 주체일 가능성이 크다.

경기 북부와 동부의 경우는 포천 반월산성, 여주 파사성 등의 산성이 백제 중앙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이해된다. 파주의 육계토성, 이천의 효양산성은 재지세력이 축조한 토성일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그 실체가 분명치 않다.

화성, 오산, 안성, 평택, 용인 등 경기 남부에는 한성백제기 성이 여럿 확인되었다. 길성리토성에 인접한 화성 소근산성과 청명산성에서는 한성 2기에 해당되는 중앙양식 토기가 주로 출토되므로 축성 주체가 백제 중앙일 가능성이 높다(그림 6). 의왕 모락산성은 한성2기 토기가 출토되며 교통의 요지에 입지한다. 안성 공도읍의 진사리산성은[25] 테뫼식 산성으로서 백제 토기가 출토된 바 있는데, 평택 지제동토성, 백봉리토성과 유

25 경기도박물관, 2003 「안성천,문화유적(I), pp.506-509.

〈그림 6〉 화성 소근산성

사한 성격으로 이해된다. 그 특징은 평야와 안성천이 조망되는 나지막한 구릉 위에 토축으로 쌓은 소규모 성곽이란 점이다. 이런 점에서 한강 하구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진입부를 조망하는 고양 멱절산토성, 바다를 조망하는 화성 우정면의 토루유적과 상통한다. 특히 멱절산토성의 경우 발굴조사 결과, 한성 2기에 속하는 중앙양식 토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백제 중앙의 의도가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

3) 위세품 분여

서울 강남의 백제국이 마한의 여러 세력을 통합하는 데에는 군사적인 정복과 평화적인 회유, 포섭 전략이 병행되었다. 인구나 규모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던 마한의 각 국 간에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세력은 없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군사적 병합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백제국은 주변의 마한 세력들을 통합하면서 이제는 마한의 일개 구성 분자가 아닌 여러 마한 세력을 합한 백제를 칭하게 되었다. 중앙과 지방의 개념이 발생한 것이다.

백제국의 지배 세력은 백제 중앙으로 전환되어 마한 세력들을 지방으로 편제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느슨한 상하 관계의 우호적 동맹관계 체결이었다. 백제국, 혹은 백제 중앙이 대표가 되어 중국 군현이나 서진, 동진과 교섭을 전개하는 과정은 마한의 최고 리더로서 백제국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과의 교섭에서 획득한 고가의 희소품, 그리고 고도의 기술이 발휘된 자체 생산 귀금속 장신구 세트를 지방 수장층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중앙과 지방의 상하 관계를 상징하는 퍼포먼스였다. 지방 수장층에게는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여 집단 내부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거나 이웃한 경쟁자를 견제하는 데에 유리하였다.

그 결과 백제 국가의 영역 확대와 함께 중국 자기류와 중앙산 착장형 위세품이 퍼져나가게 된다[26]. 서울의 몽촌토성, 풍납토성, 석촌동고분군에서는 서진西晉에서 유송대劉宋代에 이르는 시기의 다양한 도자기류가 출토되었고, 중앙에 집적된 물품 중 일부가 정치적 목적을 띠고 한성기 지방에 해당하는 화성 요리, 원주 법천리, 천안 화성리와 용원리, 공주 수촌리, 서산 부장리 등지로 운송되었다. 때로는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 아직 영역화가 진행되지 못한 전북 고창 봉덕고분, 전남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등지로 운송되었다. 심지어 원거리에 위치한 가야나 큐슈세력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목적으로 백제의 금동관과 금동신발이 이동하였다.

그런데 백제 중앙이 이러한 정책을 펼치면서 모든 정치체를 대등하게 다룬 것은 아니었다. 경기 남부의 경우 오산 수청동고분군 축조 세력과 화성 요리고분군 축조 세력에 대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오산 궐동-수청동 일대에서는 2세기 이후 5세기에 걸쳐 수백 기의 고분을 축조할 정도로 장기 지속된 정치체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축조하고 묻힌 고분에서는 동진 대에 해당하는 청자 반구호, 금동제 화살통, 철제 비늘갑옷 정도가 부장될 뿐, 금동 관과 신발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인근에 위치한 화성 요리고분군에서는 그다지 넓은 면적을 조사한 것이 아님에

26 權五榮, 1988 「4세기 百濟의 地方統制方式 -一例 -東晉青磁의 流入經緯를 中心으로-」『韓國史論』18,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成正鏞, 2003 「百濟와 中國의 貿易陶磁」『百濟研究』38,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李漢祥, 2005 「위세품으로 본 한성백제의 중앙과 지방」『고고학』 4-1, 서울경기고고학회.

도 목곽묘에 금동관을 부장한 사례가 2건 확인되었다. 게다가 요리고분군은 1930년대에 우연한 기회에 파괴되어 유물만 신고된 사창리 산 10-1번지와 동일 묘역으로 이해된다. 이곳에서 신고된 유물은 철제 무구, 무기, 공구류, 유리나 금제 장신구류, 토기류 등 매우 다양한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금동제 晉式帶具이다[27]. 진식대구는 동오-동진 대에 크게 유행하면서 선비朝陽[28], 고구려集安, 신라(영주, 경산), 가야(김해), 왜(나라, 효고)로 확산되었다. 진식대구가 출토된 유적의 위상은 매우 높으며 대개 4세기 대에 해당된다. 서울 풍납토성에서는 1925년의 대홍수에 진식대구 과판 1점이 발견되었지만, 현재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서울 몽촌토성에서도 진식대구의 수하식 1점이 발견되었다. 이러니 사창리 출토 금동관의 위상이 매우 높음은 분명하다.

요리와 사창리를 묘역으로 삼은 집단이 길성리토성과 관련됨은 분명해 보인다. 길성리토성의 동편과 남편을 묘역으로 삼았던 이들은 3~5세기 무렵, 화성 일대 최고 강자로 인정된다. 길성리토성의 규모가 몽촌토성에 못지않은 점, 토성을 중심으로 다수의 취락이 위성처럼 분포한 점을 고려할 때 길성리토성은 화성권역 정치체의 중심, 즉 국읍적인 존재였을 것이다. 백제 중앙의 입장에서는 경기 남부의 최강자인 길성리토성 세력을 우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결과 수청동과 요리의 부장품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백제 중앙세력으로부터 독자적인 권력을 유지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중국제 물품의 획득 과정에는 백제 중앙의 힘이 개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창리에서 출토된 중국제 허리띠는 근초고왕, 근구수왕 대에 이루어졌던 영역팽창, 동진과의 교섭 등 역사적 사건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백제 중앙과 지방의 정치적 관계의 산물이다. 길성리의 정치체는 4세기대에는 백제 중앙과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 형태는 처음에는 위세품의 분여에 의한 느슨한 상하 관계였겠지만 중앙에서 이곳으로 미치는 압박은 점점 강도를 더하여갔을 것이다. 인근의 소근산성의 축조 주체가 백제 중앙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 성의 축조는 길성리토성 세력의 쇠락과 연결될 것이다.

4) 지역 집단 간 상호관계

백제 중앙이 주변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한 정치체들의 대응은 동일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기에는 아직 자료와 정보의 양이 부족하다. 경기 북부와 동부는 고구려의 남하, 그리고 그 조종을 받는 예계 집단(말갈)을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을 것이다. 원주 법천리 일대에 4세기 무렵부터 백제 중앙이 진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경기 서부와 인천은 분구묘라는 묘제의 공통성에서 충남 서해안과 연결되는 곳이면서 한강을 통해 침입하는 외적을 방어하여야 하는 곳이었다. 서산 부장리 분구묘 축조 집단에 대한 귀금속 장신구와 중국 도자기 사여는 이러한 사정과 연결될 것이다.

경기 남부는 천안-아산 일대의 목지국目支國과 지리적으로 연결되는 지역이며 백제가 영토 확장 과정에서 가장 주력하는 곳이었다. 2세기 무렵에 해당되는 평택 마두리, 오

27 권오영·권도희, 2003 「사창리출토 유물에 대한 소개」『吉城里土城』, 한신대학교박물관.

28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2 『三燕文物精華』, 遼寧人民出版社, p. 70~71.

산 궐동의 목관묘에서는 고식의 마형대구가 출토되는데 아산 명암리 진터, 공수리유적과 상통한다. 3세기 이후에는 오산 수청동, 용인 두창리, 안성 신두리[29] 등지에서 주구토광묘가 발전하였으며, 화성 청계리에서는 방형계 주거지가 많이 발견되었다. 오산-평택-안성권이 주구토광묘, 마형대구 등을 특징으로 하는 목지국 문화권(천안-아산권)과 상통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수청동의 주구토광묘는 주구의 형태와 묘광의 방향이 용인이나 천안, 아산지역의 것과 다른 지역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4세기 이후 경기 남부에서는 수혈식석곽묘가 새로운 묘제로 채택된 지역(화성 마하리, 백곡리, 화산, 안성 도기동)이 등장하는데 목관(곽)묘에서 수혈식석곽묘, 횡혈식석실묘로 변화하는 천안 용원리와 상통한다. 특히 마하리에서는 횡혈식석실묘가 다수 확인되었다. 반면 오산 수청동처럼 주구토광묘가 장기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횡혈식석실묘는 화성 마하리, 왕림리 노리재골 등 봉담 일대에서 많이 발견되었는데 주고 방형 평면이란 점에서 세장방형 평면의 용원리 횡혈식석실묘와 다르다. 안성 장원리에서도 횡혈식석실묘가 확인되는데[30], 3기 모두 구릉 경사면에 위치하고 현실 평면은 방형이며 천정의 형태는 궁륭상, 연도는 중앙에 마련되었다. 구조적으로 볼 때 연기 송원리 고분군과 유사하지만, 바닥에 별다른 시설이 없고 관대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마하리와 왕림리 석실묘는 방형 평면인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연도의 위치가 좌편재(왕림리), 우편재(마하리)라는 점, 관대의 존재에서 장원리와 차이가 난다.

이렇듯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의 횡혈식석실묘는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여서 단일한 경로로 새로운 묘제가 도입된 것은 아닌 것 같다. 게다가 중앙인 서울과 그 인근의 횡혈식석실묘 자체가 서울 가락동의 방형계와 성남 판교, 하남 감일동의 장방형계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면 중앙의 획일적인 압력은 없었던 것 같다. 즉 횡혈식석실묘에 한하여 본다면 백제 중앙이나 지방 각지의 세력들은 별도의 경로를 통하여 제각각 횡혈식석실묘를 수용하였던 것 같다. 묘제와 장제에 대하여 중앙 권력이 지방에 강제하는 것은 수백 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4. 나머지 말

백제의 마한 통합 과정에 대한 연구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부족한 문헌자료를 통하여 설명하려는 과거의 방법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여-고구려계 주민의 남하, 온조에 의한 기원전 18년 건국, 강력한 기마군단에 의한 정복전쟁 등은 모두 입증되지 못한 허상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모두 고고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 석촌동의 적석총을 근거로 온조로 대표되는 백제 건국 집단이 고구려계임을 입증하려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하였으나 지속적인 발굴조사 결과 이 고분군의 중심연대는 4~5세기이며 구조와 유물이 고구려와 그리 유사하지 않음이 규명되었다. 따라서 기원전 1세기 무렵 부여-고구려계 주민집단이 남하하고 온조가 기원전 18년에 백제를 건국하였다는 통설은 무너지게 되었다. 기원전 1세기 무렵의 유적이 서울 강남지역에서 단 한군데도 발견되지 않는 상태를 인정할 때가 된 것이다[31].

1999년에 실시된 풍납토성 동벽의 절개면에서 채취한 목탄을 이용한 연대측정 결과 기원을 전후한 시기로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면서 한국고고학계와 고대사학계는 커다란 소용돌이에 말려들게 되었다. 만약 풍납토성이 기원 전후한 시기에 축조된 것이 맞는다면 기원전 18년이라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연대관이 옳으며 이는 종전 사료적 가치를 의심받던『삼국사기』초기 기사를 다시 보아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하였다. 이에 대해 기원전으로 소급되는 측정치 말고도 3-4세기에 해당되는 측정치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편을 취사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양측은 치열한 논쟁을 전개하였다.

1999년도 이후 풍납토성 내부의 경당지구와 미래마을부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경기-강원지역의 한성백제기 유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풍납토성의 연대를 기원 전후로 소급시키는 것은 곤란하고 3세기 후반 이후로 보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합의를 보게 되었다.

2010-2011년 사이에 진행된 풍납토성 동남부 성벽에 대한 절개 조사 결과 상황은 다시 변하였다. 이 토성의 축조연대가 4세기 대 이후로 내려갈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예상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풍납토성의 축조 연대가 기원전 1세기로 올라갈 가능성은 무망하여졌으며, 이를 전제로 한 백제 국가 발전사 연구도 수명을 다하였다는 점이다.

백제 국가의 형성은 소수의 "건국 주체세력"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룩한 것이 아니라, 청동기시대 이후 수백 년간 한강 하류역에서 전개된 수많은 지역 집단, 정치체 간 다양한 활동과 교섭의 결과물이다. 어느 한 시점을 끊어서 국가 형성 이전과 이후를 논하기보다는 장기간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면서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실상에 가까울 것이다. 백제 국가 형성을 "시작, 출발점이 아닌 과정"이란 인식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백제의 국가형성 과정은 백제국이 마한의 여러 정치체들과 다양한 교섭을 맺는 과정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종전의 연구 경향은 백제 중앙을 유일무이한 주체로, 마한의 여러 정치체들은 모두 객체로 설정한 채 중앙의 통합 대상으로만 다루었다. 고고학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문헌자료를 주로 이용하는 방법론에서는 피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겠으나 이제는 상황이 변하였다.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지역의 고고학적 조사 성과가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주체과 객체로 구분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백제국 자체도 마한의 한 구성 분자로 인정한 전제에서 경기 전체, 나아가 마한이나 삼한 전체를 시야에 넣고 백제국이 마한 전체의 맹주가 되는 과정을 그려야 한다.

29 中央文化財硏究院, 2010『安城 新頭里 遺蹟』.

30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0「안성 두교리-죽산 도로건설공사 예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31 권오영, 2020「부여와 백제의 계승성 연구에 대한 제안」『백제는 부여를 계승하였나』, 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17, 한성백제박물관.

참고문헌

한성백제박물관, 2020 『왕성과 왕릉』 발굴조사성과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한성백제 건축유적 유형분류와 복원연구』.
경기도박물관, 2003 『안성천』 문화유적(1).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風納土城 XI』 p.232.
국립문화재연구소·한신대학교박물관, 2005 『風納土城 VI』.
中央文化財硏究院, 2010 『安城 新頭里遺蹟』.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0 「안성 두교리-죽산 도로건설공사 예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한신대학교박물관, 2004 『風納土城 IV』.
한성백제박물관·한신대학교박물관, 2011 『風納土城 XII』.
한성백제박물관·한신대학교박물관, 2015 『風納土城』 X VII.
김태식, 2001 『풍납토성』 김영사.
노중국 외, 2013 『백제, 누가 언제 세웠나』 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1, 한성백제박물관.
임영진 외, 2012 『동북아시아 속의 풍납토성』 학연문화사.
權五榮, 1988 「4세기 百濟의 地方統制方式 -例 -東晉靑磁의 流入經緯를 中心으로-」 『韓國史論』18,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권오영, 2002 「풍납토성 출토 외래유물에 대한 검토」 『百濟硏究』 3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권오영 · 권도희, 2003 「사창리출토 유물에 대한 소개」 『吉城里土城』 한신대학교박물관.
권오영, 2010 「마한의 종족성과 공간적 분포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60, 한국고대사학회.
권오영, 2015 「풍납토성 경당 44호 유구의 구조와 성격」 『한성 백제 건축유적 유형분류와 복원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권오영, 2020 「부여와 백제의 계승성 연구에 대한 제안」 『백제는 부여를 계승하였나』 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17, 한성백제 박물관.
문안식, 1996 「영서예문화권의 설정과 역사지리적 배경」 『동국사학』 30, 동국역사문화연구소.
박순발, 1996 「한성백제 기층문화의 성격 -중도유형문화의 역사적 성격을 중심으로-」 『백제연구』2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박순발, 1997 「한강유역의 기층문화와 백제의 성장과정」 『한국고고학보』36, 한국고고학회.
박중국, 2012 「중도문화의 지역성 -'중도유형문화론'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중앙고고연구』11, 중앙문화재연구원.
成正鏞, 2003 「百濟와 中國의 貿易陶磁」 『百濟硏究』 38,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성정용, 2007 「금강, 한강유역의 영남지역계통 문물과 그 의미」 『百濟硏究』 46 충남대 백제연구소.
신은정, 2017 「原三國~漢城百濟期 京畿地域 四柱式住居址 硏究」,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희권, 2007 「풍납토성의 도성 구조 연구」 『풍납토성, 500년 백제왕도의 비전과 과제』,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정희, 2015 「백제도로의 축조기술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판섭, 2015 「백제 교통로의 고고학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李漢祥, 2005 「위세품으로 본 한성백제의 중앙과 지방」, 『고고학』, 4-1, 서울경기고고학회.

도판목록

1
민무늬토기
無文土器
Plain Pottery
—
구리 토평동 F구역 10호 주거지
청동기 기원전 12~11세기경
높이 24.6, 입지름 27.7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2
겹아가리토기
二重口緣土器
Double-rimmed Pottery
—
구리 토평동 F구역 10호 주거지
청동기 기원전 12~11세기경
높이 42.6, 바닥지름 9.0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3
긴 목 항아리
長頸壺
Long-necked Jar
—
구리 토평동 F구역 10호 주거지
청동기 기원전 12~11세기경
현재높이 24.55, 입지름 9.8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4
반달모양 돌칼, 바퀴날 도끼, 돌검 손잡이
半月形石刀, 環狀石斧, 石劍 柄部
Semilunar Stone Knife, Disk-shaped Stone Axe,
Stone Dagger Handle
—
구리 토평동 F구역 10호 주거지
청동기 기원전 12~11세기경
현재길이 14.38(돌칼), 지름 8.3(도끼), 현재길이 8.5(돌검)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5
대롱옥
管玉
Tubular Jade
—
고양 강매동 1지점 청동기 8호·11호 주거지
청동기 기원전 10~9세기경
길이 16.0(8호), 길이 13.5(8호), 길이 8.1(11호)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6
구순각목공렬문 심발형토기·석기류
深鉢形土器·石器類
Pottery, Stone Implement
—
고양 강매동 1지점 청동기 9호, 11호 주거지
청동기 기원전 10~9세기경
높이 35.0(토기/11호), 현재길이 14.3(석부/11호),
현재길이 12.7(석창/11호), 현길이 15.9(석창/9호)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7
반달모양 돌칼
半月形石刀
Semilunar Stone Knife
—
고양 강매동 1지점 청동기 주거지
청동기 기원전 10~9세기경
길이 4.2~5.5 폭 12.6~21.8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8
점토대토기
粘土帶土器
Attached-rim Vessel
—
인천 검암동 1호 토광묘
초기철기 기원전 3~2세기경
잔존높이 7.45
인천광역시검단선사박물관 소장

9
세형동검
細形銅劍
Slender Bronze Dagger
—
인천 검암동 1호 토광묘
초기철기 기원전 3~2세기경
길이 31.7 너비 2.95

10
철도끼, 철기편
鐵斧, 鐵器片
Iron Axes, Iron
—
인천 검암동 1호 토광묘
초기철기 기원전 3~2세기경
현재길이 2.1, 현재너비 3.9
인천광역시검단선사박물관 소장

11
경질무문토기·삼각형 점토대토기
硬質無文土器 · 三角形 粘土帶土器

Plain Harder Pottery · Triangular Attached-rim Vessel

—

양평 양수리 원삼국시대 6호 수혈
기원전 1세기
복원구경 12.5(점토대토기), 저경 6.0(무문토기), 저경 6.2(무문토기)
한양문화재연구원 발굴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12
삼각투창 그릇받침, 짧은 목 항아리, 화분형 토기
器臺, 短頸壺, 花盆形土器

Stand, Pottery

—

남양주 금남리 1호 목곽묘
기원전 1세기 전반
높이 16.0(단경호)
한강문화재연구원 발굴

13
짧은 목 항아리, 화분형 토기, 철기류
短頸壺, 花盆形土器, 鐵器類

Pottery, Iorn

—

남양주 금남리 2호 목곽묘
기원전 1세기 전반
높이 11.0(짧은 목 항아리)
한강문화재연구원 발굴

14
짧은 목 항아리, 화분형 토기, 乙자형 동기, 청동반지· 팔찌
短頸壺, 花盆形土器, 乙字形 銅器, 靑銅指環· 環

Pottery Pot, Bronze

—

남양주 금남리 3호 목곽묘
기원전 1세기 전반
높이 16.0(짧은 목 항아리)
한강문화재연구원 발굴

15
경질무문토기
硬質無文土器

Plain Harder Pottery

—

가평 대성리 원삼국시대 주거지
2~3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6
낙랑계 토기
樂浪系 土器

Nangnang style Pottery

—

가평 대성리 원삼국시대 주거지
2~3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
타날문 토기
打捺文土器

Pottery

—

가평 대성리 원삼국시대 주거지
2~3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8
화분형토기
花盆形土器

Pottery Pot

—

가평 대성리 원삼국시대 주거지
기원전 1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
철기류
鐵器類

Irons

—

가평 대성리 원삼국시대 주거지
2~3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0
경질무문토기
硬質無文土器

Plain Harder Pottery

—

양평 양수리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기원후 3~4세기
한국문화유산연구원 발굴

21
짧은 목 항아리
短頸壺

Short-necked Jar

—

연천 강내리 원삼국시대주거지(58)
3세기
높이 30.3, 입지름 19.5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22
경질무문토기 시루
硬質無文土器 甑

Plain Harder Pottery Steamer

—

연천 강내리 17호
3세기
높이 18.4, 입지름 28.9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23
경질무문토기 단지
硬質無文土器 甕

Plain Harder Pottery Jar

—

연천 강내리
3세기
높이 24.5, 입지름 13.1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24
경질무문토기 단지
硬質無文土器 甕

Plain Harder Pottery Jar

—

연천 강내리
3세기
높이 18.2, 입지름 11.8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25
경질무문토기 단지
硬質無文土器 甕

Plain Harder Pottery Jar

—

연천 강내리
3세기
현재높이 20.5, 입지름 14.7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26
철검
鐵劍

Iron Knife

—

김포 운양동 1-11지점 원삼국시대 분구묘
2~3세기
길이 120cm 내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7
철모
鐵矛

Iron Spearhead

—

김포 운양동 1-11지점 원삼국시대 분구묘
2~3세기
높이 20.1~56.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8
금 귀걸이
金耳飾

Gold Earring

—

김포 운양동 2-9지점 1호 원삼국시대 분구묘
2~3세기
높이 2.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9
유리구슬
琉璃玉

Glass Beads

—

김포 운양동 1-11지점 원삼국시대 분구묘
2~3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30
수정, 유리구슬
水晶, 琉璃玉

Crystal, Glass Beads

—

김포 운양동 2-9지점 1호 원삼국시대 분구묘
2~3세기
높이 1.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31
백색토기
白色土器

White earthenware Jar

—

인천 검단지구 I-7B구역 원삼국시대 1호 주구묘
3세기 전반
잔존높이 20.9, 구경 12.8
인천광역시검단선사박물관 소장

32
철검
鐵劍

Iron Knife

—

인천 검단지구 I-7B구역 원삼국시대 1호 주구묘
3세기 전반
길이 100.2
인천광역시검단선사박물관 소장

33
철모
鐵鉾

Iron Spearhead

—

인천 검단지구 I-7B구역 원삼국시대 1호 주구묘
3세기
전반길이 27.1~36.5
인천광역시검단선사박물관 소장

34
둥근 바닥 바리모양 토기
圓底深鉢形土器

Deep Bowl

—

오산 궐동 5지점 23호 토광묘
2세기 후반
높이 14.3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35
뚜껑 있는 굽다리단지
有蓋臺附壺

Mounted Jar with Lid

—

오산 궐동 5지점 20호 토광묘
2세기 후반
입지름 13.4, 높이 6.1(뚜껑), 입지름 12.0, 높이 27.1(단지)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36
마노, 유리, 옥구슬
瑪瑙, 琉璃, 玉

Agate, Glass, Jade Beads

—

광주 곤지암리 돌무지무덤
3~4세기
기남문화재연구원 발굴

37
송풍관
送風管

Tuyere

—

후반 화성 기안리
3세기
길이 42.4, 32.0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38
뚜껑 있는 굽다리단지
有蓋臺附壺

Mounted Jar with Lid

—

평택 마무리 2호 토광묘
2세기
지름 15.7, 높이 7.2(뚜껑), 입지름 30.4, 높이 31.2(단지)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39
유리 구슬
琉璃玉

Glass Bead

—

평택 마두리 2호 토광묘
2세기
직경 0.2~0.4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40
청동 말모양 허리띠고리
馬形帶鉤

Bronze Horse-shaped Buckle

—

평택 마두리 1호 토광묘
2세기
길이 9.6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41

'宮'자가 있는 곧은 입 항아리편
'宮' 字銘直口壺片

Jar with Straight Mouth and Inscription of '宮'

—

서울 몽촌토성 삼국 7호 수혈
4~5세기
길이 8.0, 너비 12.0
한성백제박물관 발굴·소장

42

세발토기
三足器

Vesse

—

서울 몽촌토성 삼국 8호 수혈
4~5세기
높이 7.5, 최대 지름 25.0
한성백제박물관 발굴·소장

43

금 귀걸이
金耳飾

Gold Earring

—

서울 석촌동 고분군 1호 매장의례부
3~5세기
길이 4.2, 너비 2.5
한성백제박물관 발굴·소장

44

짧은 목 항아리
短頸壺

Short-necked Jar

—

서울 석촌동 고분군 1호 구획적석목곽묘
3~5세기
높이 18.6
한성백제박물관 발굴·소장

45

겹아가리 단지
二重口緣壺

Double-rimmed Jar

—

시흥 은행동 삼국시대 주구묘목곽묘
3세기 후반~4세기
높이 27.3, 입지름 15.3(좌)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46

이형토기
異形土器

Differently-shaped Pottery

—

인천 남촌동 고래실골 28호 주거지
4세기
복원구경 32.8, 저경 13.8
백두문화재연구원 발굴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47

새 발자국 무늬 암키와
鳥足文 平瓦

Concave Tile with Bird Footprint

—

인천 남촌동 고래실골 107호 주혈
4세기
길이 12.8, 너비 12
백두문화재연구원 발굴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48

사발
盌

Bowl

—

양주 옥정동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4세기 전엽~5세기 전엽
높이 5.2, 입지름 13.2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49

곧은 입 항아리
直口壺

Jar with Straight Mouth

—

양주 옥정동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4세기 전엽~5세기 전엽
높이 11.2, 입지름 18.0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50

경질무문토기 단지
硬質無文土器 甕

Plain Harder Pottery Jar

—

양주 옥정동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4세기 전엽~5세기 전엽
높이 32.4, 입지름 22.0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51

경질무문토기 항아리
硬質無文土器 壺

Plain Harder Pottery Jar

—

양주 옥정동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4세기 전엽~5세기 전엽
높이 32.0, 입지름 19.85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52

금동관
金銅冠帽

Gilt-bronze Cap

—

화성 요리 I 지점 1호 목관묘
백제 4세기 후반
추정높이 24.6, 추정 너비 17.0
화성시역사박물관 소장

53

금동신발
金銅飾履

Gilt-bronze Shoes

—

화성 요리 I 지점 1호 목관묘
백제 4세기 후반
추정 길이 30.0, 추정 너비 8.7
화성시역사박물관 소장

54

깊은 바리, 고리자루 큰 칼, 쇠도끼, 재갈 등
深鉢形土器, 環頭大刀, 鐵斧, 轡

Deep Bowl, Sword with Round Pommel, Iron Axe, Iron Bit

—

화성 요리 I 지점 1호 목곽묘
백제 4세기 후반
높이 13.5(바리), 길이 86.0(환두대도), 길이 9.5~10.6(도끼)
화성시역사박물관 소장

55

곡봉형 허리띠고리
曲棒形帶鉤

Curved Rod-shaped Belt Hook

—

용인 고림동 B2 구상
3~4세기
길이 14.8
한신대학교박물관 발굴

56

유약을 바른 토기
施釉陶器

Glazed Earthenware

—

용인 고림동 B23 수혈 등
중국 동진東晉 4세기 후엽~5세기 전엽
높이 4.2~10.1
한신대학교박물관 발굴

57

대롱옥, 환옥
管玉, 瑪瑙製珠

Tubular Jade, Agate Bead

—

용인 고림동 B5 주거지, B11 주거지
4~5세기
길이 4(대롱옥), 길이 1.3(환옥)
한신대학교박물관 발굴

58

굽다리접시
高杯

Mounted Dish

—

용인 고림동 C10 수혈
4~5세기
높이 6.6~8.4
한신대학교박물관 발굴

59

아궁이 장식
爐址用 土製品

Fireplace Frame

—

용인 고림동 B7주거지
4~5세기
장 88.8, 폭 47.9
한신대학교박물관 발굴

60

사발
盌

Bowl

—

용인 고림동 A9 주거지 등
4~5세기
높이 4.4~4.9
한신대학교박물관 발굴

61

시루, 계란모양 토기
甑, 長卵形土器

Steamer, Egg-shaped Vessel

—

용인 고림동 B73 수혈(시루), B2 구상(토기)
4~5세기
높이 30.8(시루), 높이 38(토기)
한신대학교박물관 발굴

62

토기류
土器類

Pottery

—

화성 소근산성
4세기 후엽~5세기 후엽
경기도박물관 발굴·위탁

63

화살촉
鐵鏃

Iron Arrowhead

—

화성 소근산성
4세기 후엽~5세기 후엽
길이 7.0~11.9
경기도박물관 발굴·위탁

64

쇠도끼
鐵斧

Iron Axe

—

화성 소근산성
4세기 후엽~5세기 후엽
길이 14.8~19.9, 너비 4.9~5.4
경기도박물관 발굴·위탁

65

돌절구와 공이
石臼石杵

Stone Mortar and Pest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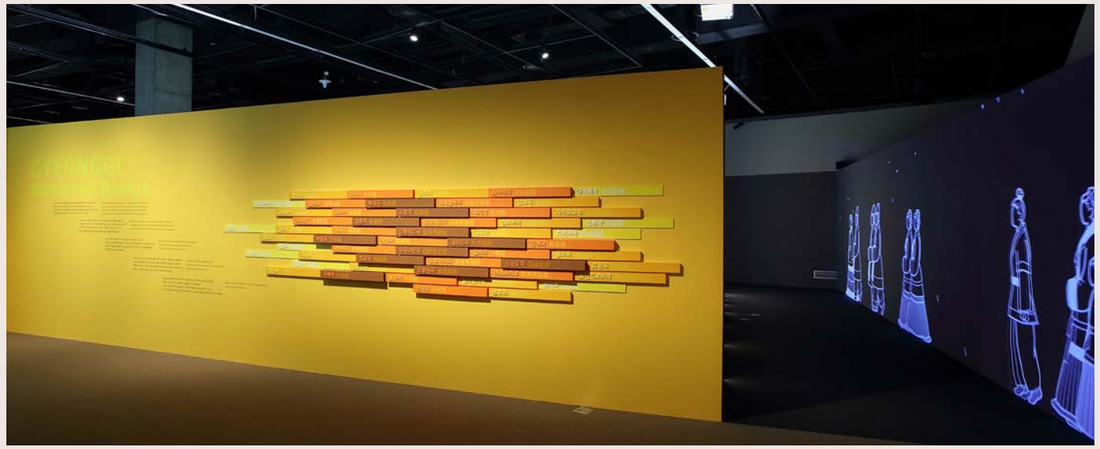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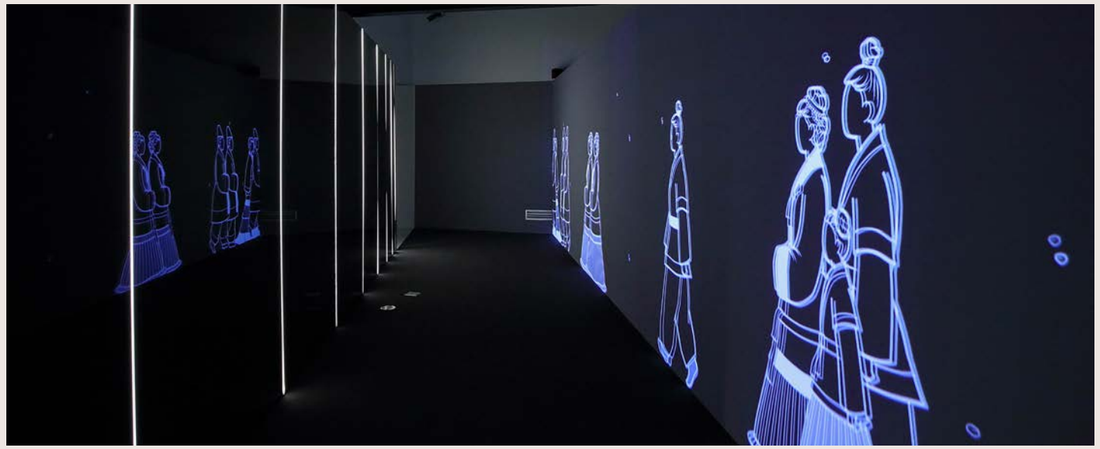
화성 소근산성
4세기 후엽~5세기 후엽
높이 14.5, 입지름 11.5(절구), 길이 13.2(공이)
경기도박물관 발굴·위탁

부록

전시 구성

입구 전시 타이틀





전시 도입부

The Dawn of Mahan

마한의 신성한 의례 공간 '소도'
Sodo', a sacred district for ritual in Mahan

1부

The Dawn of Mahan

2부

3부

발 행 일 2021년 12월 20일

발 행 처 경기도박물관
1707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www.musenet.ggcf.kr

디 자 인 (주)디자인나눔
0404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6길 9-24 동우빌딩 5층
www.designnanoom.com

제 작 한국디자인테크연구소
17370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 87번길 31

ISBN 978-89-999-0431-8 95910(PDF)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경기도박물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2021. Gyeonggi Provincial Museum

유튜브에서 '경기 마한 백제'로 검색하시거나 아래 주소로 영상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영상 https://youtu.be/zoDox5kk2wc
소개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sbblurA6Skg
학술대회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UKN6JsS6jtg

QR코드로 접속하셔서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